

# 소비자이론 (5)

ECON201  
조남운

# Topics

- 현시선호이론
- 불확실성과 소비자선택

# 현시선호이론 Revealed Preference Theory

# 효용의 관측문제

- 효용은 주관적 만족도
- 효용의 서수성으로 인해 효용의 크기는 의미가 없음
  - 순서만이 의미있음
- 효용 그 자체는 제3자에 의해 관측이 불가능
- 관측 가능한 데이터들
  - 재화 가격, 소비자 소득,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
- 이를 통해 효용 극대화가 관측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지를 검토하려는 시도

# 현시선호의 기본원리

- “ $x$ 와  $y$  중에  $x$ 를 선택했다면, 그 소비자는 이 선택을 통해  $x$ 를  $y$ 보다 선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”
- 현재 소비는 소득을 남기지 않음을 가정할 것임
  - 따라서 가격체계  $P$  하에서  $X$ 를 소비했다면 이는 그 소비자의 소득이  $PX$ 임을 의미

$$m = P \bullet X = (p_1, p_2) \bullet (x_1, x_2) = p_1 x_1 + p_2 x_2$$

# 현시선흐: 정의 Revealed Preference

$$Q^1 \succsim Q^0$$

- “ $Q_1$  과  $Q_0$  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 $Q_1$  을 선택했다는 것은  $Q_0$  에 대해서  $Q_1$ 을 직접적으로 현시선흐 했음을 의미한다”

$Q^1$  is directly revealed preferred to a bundle  $Q^0$

$$(Q^1 \succsim Q^0) \text{ if } P^1 Q^1 \geq P^1 Q^0$$

# 관측된 두 시기의 선택

- 기준년도 (base year)
  - 첨자  $b$  를 부여
- 비교년도 (comparison year)
  - 첨자  $c$  를 부여
- 두 시점의 선호체계는 불변 가정, 따라서  $X^b \neq X^c$

$$P^b = (p_1^b, p_2^b), \quad X^b = (x_1^b, x_2^b), \quad m_b = P^b \bullet X^b$$

$$P^c = (p_1^c, p_2^c), \quad X^c = (x_1^c, x_2^c), \quad m_c = P^c \bullet X^c$$

# 수량지수

# Quantity Index

- 수량을 지수화
  - 지수 (index): 여러 숫자를 하나의 대표 수로 표시하는 것
  - 수량 ( $X$ )를 지수화하기 위해  $P$ 를 가중치로 사용
- 두 가지 수량지수
  - 라스파이에스 (Laspeyres) 수량지수:  $P^b$ 를 가중치로 사용
  - 파쉐 (Paasche) 수량지수:  $P^c$ 를 가중치로 사용

$$Q^L := \frac{P^b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$$

$$Q^P := \frac{P^c \bullet X^c}{P^c \bullet X^b}$$

# 가격지수

## Price Index

- 가격을 지수화하기 위해 소비량을 가중치로 사용
- 두 가지 가격지수
  - 라스파이에스 (Laspeyres) 가격지수:  $X^b$ 를 가중치로 사용
  - 파쉐 (Paasche) 가격지수:  $X^c$ 를 가중치로 사용
    -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GDP deflator는 파쉐 가격지수임

$$P^L := \frac{P^c \bullet X^b}{P^b \bullet X^b}$$

$$P^P := \frac{P^c \bullet X^c}{P^b \bullet X^c}$$

# 소득지수

# Income Index

$$M := \frac{m_c}{m_b} = \frac{P^c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$$

# 종합

- 동시점에서의 선택에서 현시 선호는 명백
  - 선택한 소비묶음이 더 선호됨
- 문제는 시점이 달라진 (그래서 가격 체계가 달라진) 상태에서의 두 선택을 관찰했을 때 어떤 상품 묶음이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
  - 가격지수를 통해 제한적으로 판별 가능

$$Q^L := \frac{P^b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$$

$$Q^P := \frac{P^c \bullet X^c}{P^c \bullet X^b}$$

$$P^L := \frac{P^c \bullet X^b}{P^b \bullet X^b}$$

$$P^P := \frac{P^c \bullet X^c}{P^b \bullet X^c}$$

$$M := \frac{m_c}{m_b} = \frac{P^c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$$

# 라스파이에 수량지수

- $b$  (기준년도)가  $c$  (비교년도) 보다 과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
- $X[c]$ 는 예산선 안쪽에 있으므로 기준년도에  $X[c]$ 는 선택될 수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것임. 따라서  $X[c]$ 보다  $X[b]$ 가 현시선판됨
  - $m[b]$ : 기준년도의 예산
- 부등호가 반대일 경우  $X[c]$ 는 예산선 밖에 있으므로 소비불가능했었음  $\Rightarrow$  현시선판를 논할 수 없음

$$Q^L := \frac{P^b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 \leq 1$$

$$P^b \bullet X^c \leq P^b \bullet X^b = m_b \\ \Rightarrow X^c \lesssim X^b$$

# 파세 수량지수

- 마찬가지 논리로 파세 수량  
지수도 한 방향의 선호관계  
만 파악 가능

$$Q^P := \frac{P^c \bullet X^c}{P^c \bullet X^b} \geq 1$$

$$\begin{aligned} P^c \bullet X^c &= m_c \geq P^c \bullet X^b \\ \Rightarrow X^c &\succsim X^b \end{aligned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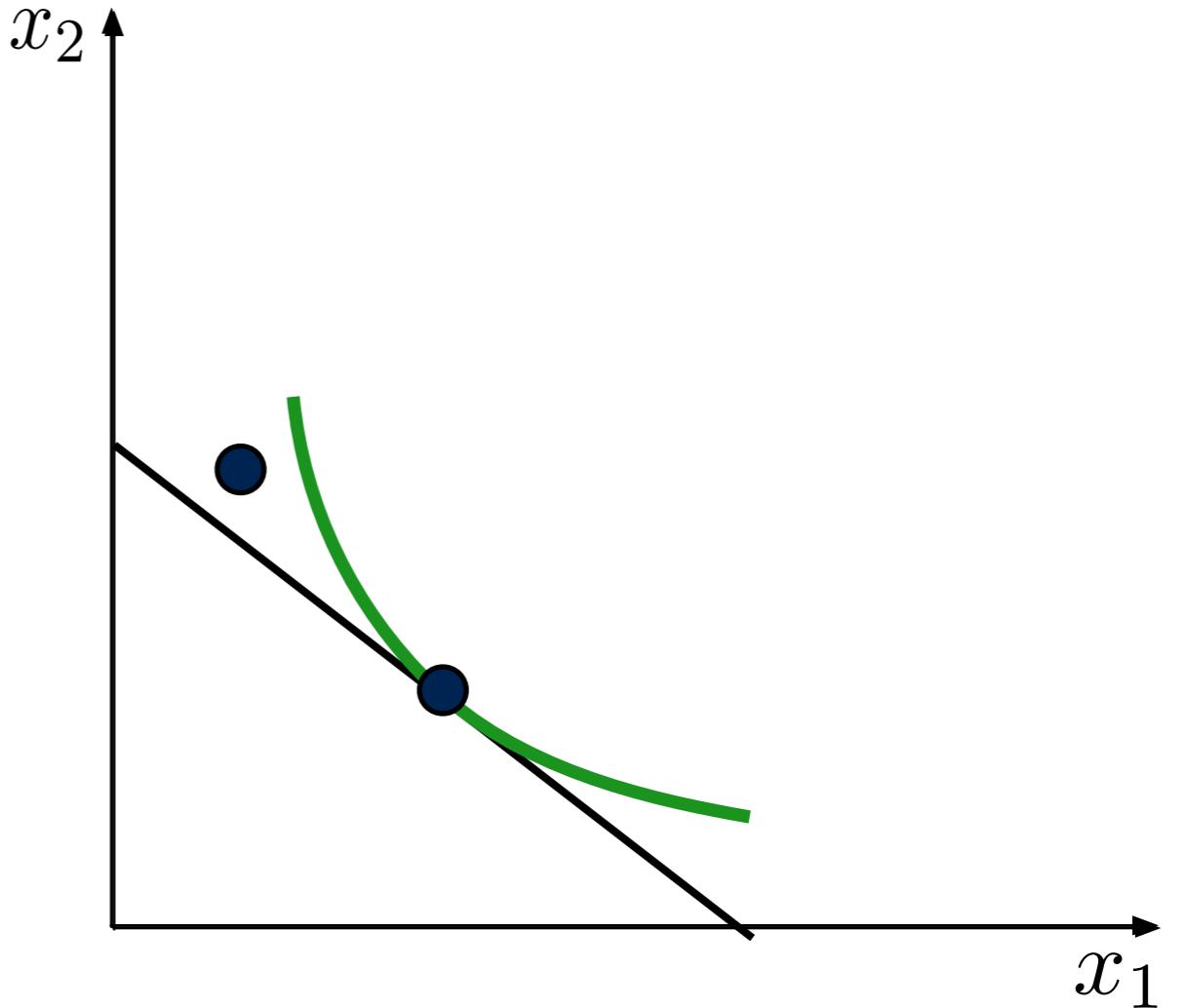
# All Cases

- $Q[L] \geq 1$ , 혹은  $Q[P] \leq 1$ 인 경우에는 효용 비교가 불가능해짐

	$\leq 1$	$\geq 1$
$Q^L$	$X^c \lesssim X^b$	?
$Q^P$	?	$X^c \succsim X^b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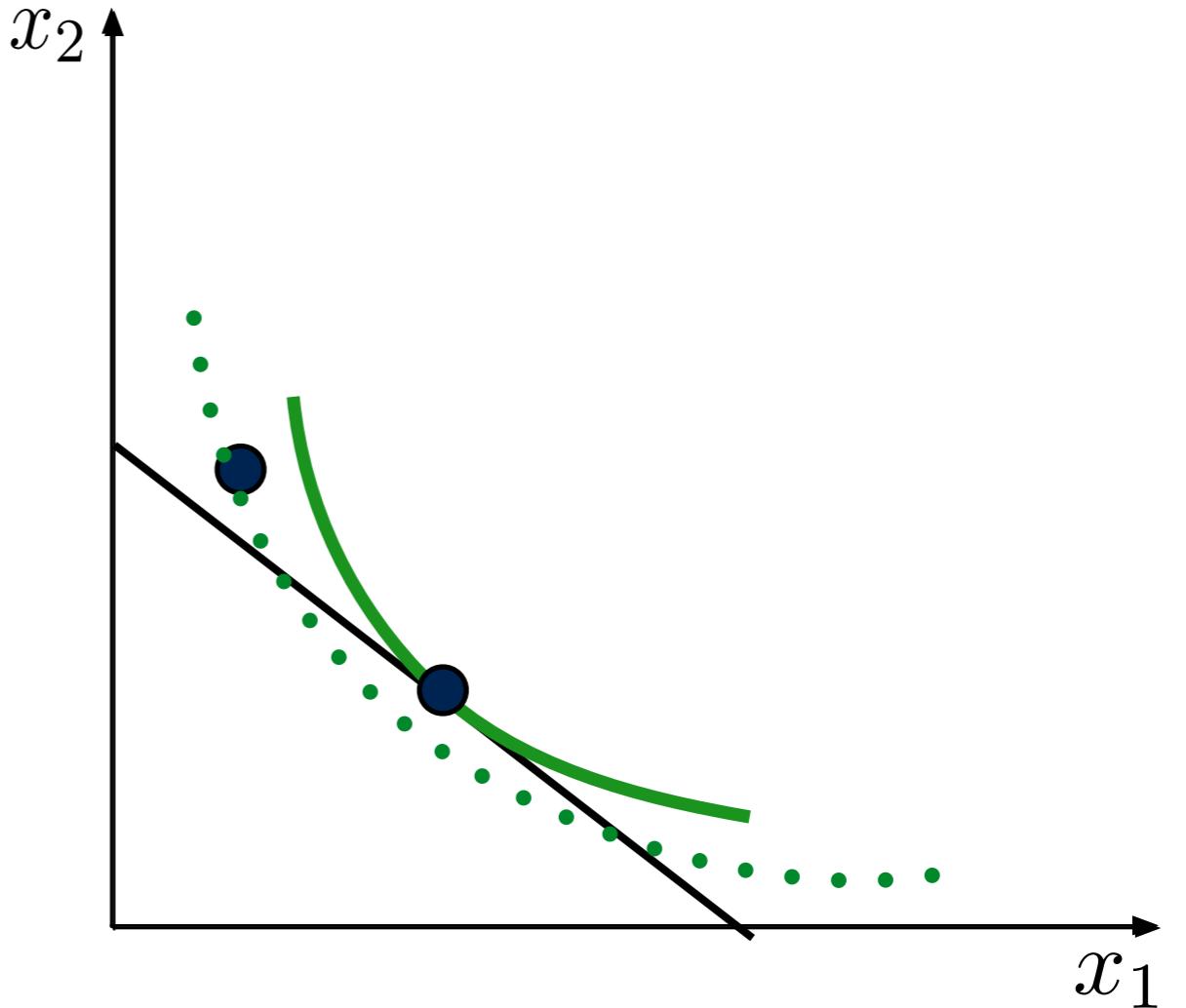
# 비교 불가능한 이유

- 예산선 밖의 소비집합이지만 효용이 낮은 경우가 존재 가능하기 때문



# 비교 불가능한 이유

- 예산선 밖의 소비집합이지만 효용이 낮은 경우가 존재 가능하기 때문



# 가격지수, 소득지수

-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격지수로 판별 가능

$$P^L := \frac{P^c \bullet X^b}{P^b \bullet X^b} \leq M := \frac{P^c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$$

$$P^c \bullet X^b \leq P^c \bullet X^c = m_c \Rightarrow X^b \lesssim X^c$$

	$\leq M$	$\geq M$
$P^L$	$X^c \succsim X^b$	?
$P^P$	?	$X^c \lesssim X^b$

# 가격지수의 함의

$$P^L := \frac{P^c \bullet X^b}{P^b \bullet X^b} = M := \frac{P^c \bullet X^c}{P^b \bullet X^b}$$

$$P^c \bullet X^b = P^c \bullet X^c = m_c$$

- 라스파이에 가격지수는 물가"상승"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
  - 좋은 가격지수는 물가"상승"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어야 함
  - 가격지수 = M 으로 두면 비교년도에  $X[b]$  대신  $X[c]$ 를 선호  $\Rightarrow X[c]$ 는  $X[b]$ 보다 더 높은 효용을 줌
    - 물가상승  $\Rightarrow P[L]$ 로 소득 보정시 정상보다 높은 효용  $\Rightarrow$  과대평가!
    - ex) CPI
- 파세 가격지수는 과소평가
  - GDP deflator

# 보충설명

- 가격지수는 물가의 순수한 상승률을 구하기 위해 정의됨
  - 가중치 일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년도나 비교년도의 수량 중 한 가지를 사용
- 소득지수는 해당 경제의 명목 증가량을 표현하는 정의식
- 사고실험: 이상적인 가격지수는 소득지수와 일치할 때 실질 경제성장률이 1이어야 할 것임 ( $\because$  실질적 상태변화가 없음)
  - 물가만 상승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경제를 가정
  - 그런데,  $P[L]=M$ 인 상황에서는 실질 변화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비교년도가 현시선호됨
    - 즉,  $P[L]$ 이라는 가격지수는 비교년도를 더 선호되게 만드는 “경향”이 있다는 의미 (파세는 반대)
- 하지만 이상적인 가격지수는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함

# 숫자로 들어본 사례

	가격		수량	
	2015	2018	2015	2018
상품1	1000	1500	10	10
상품2	2000	2100	20	30

	Index	실질소득증가
M	1.56	← 명목소득증가
$P^L$	1.140	1.368
$P^P$	1.114	1.400
$Q^L$	1.400	
$Q^P$	1.368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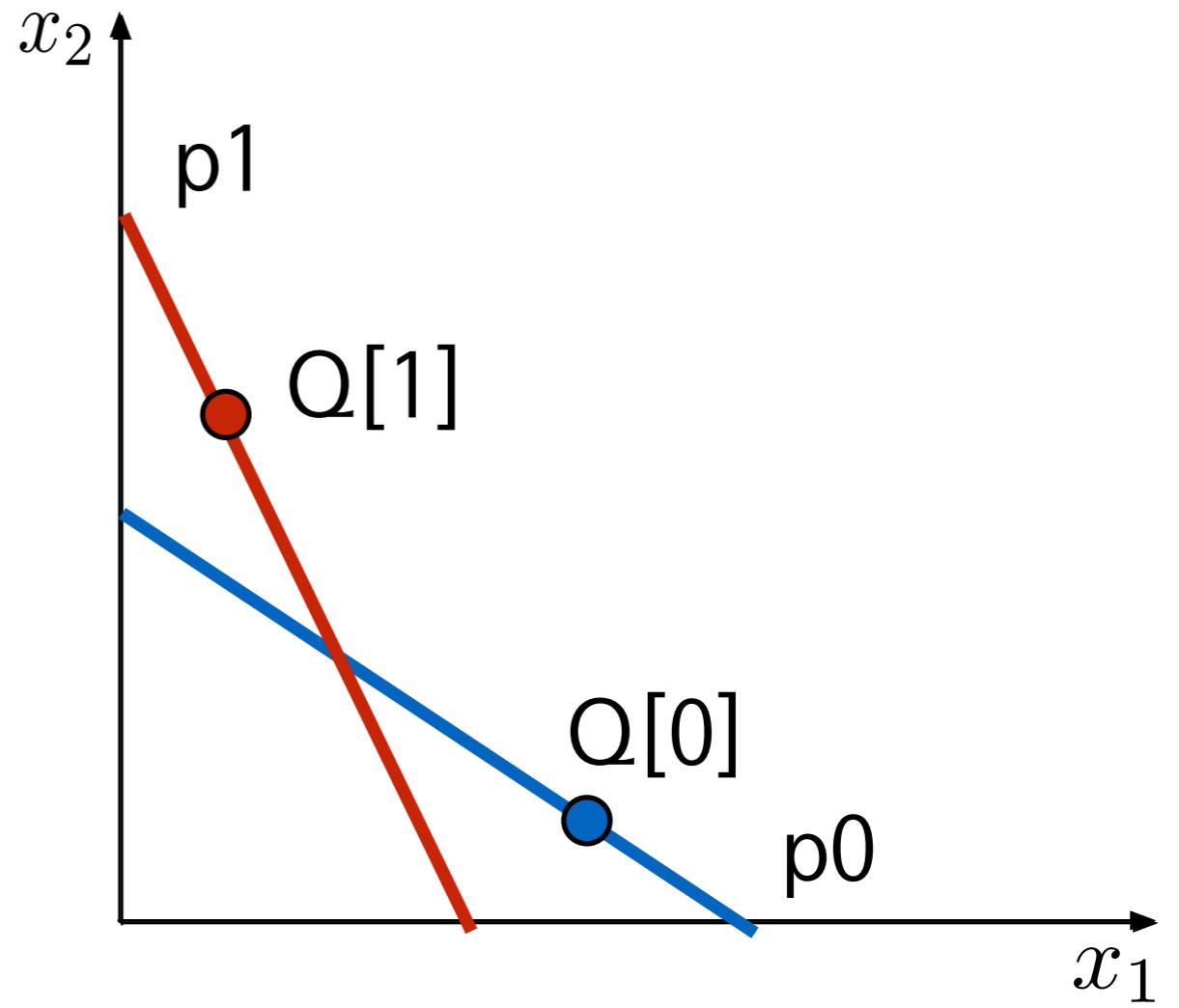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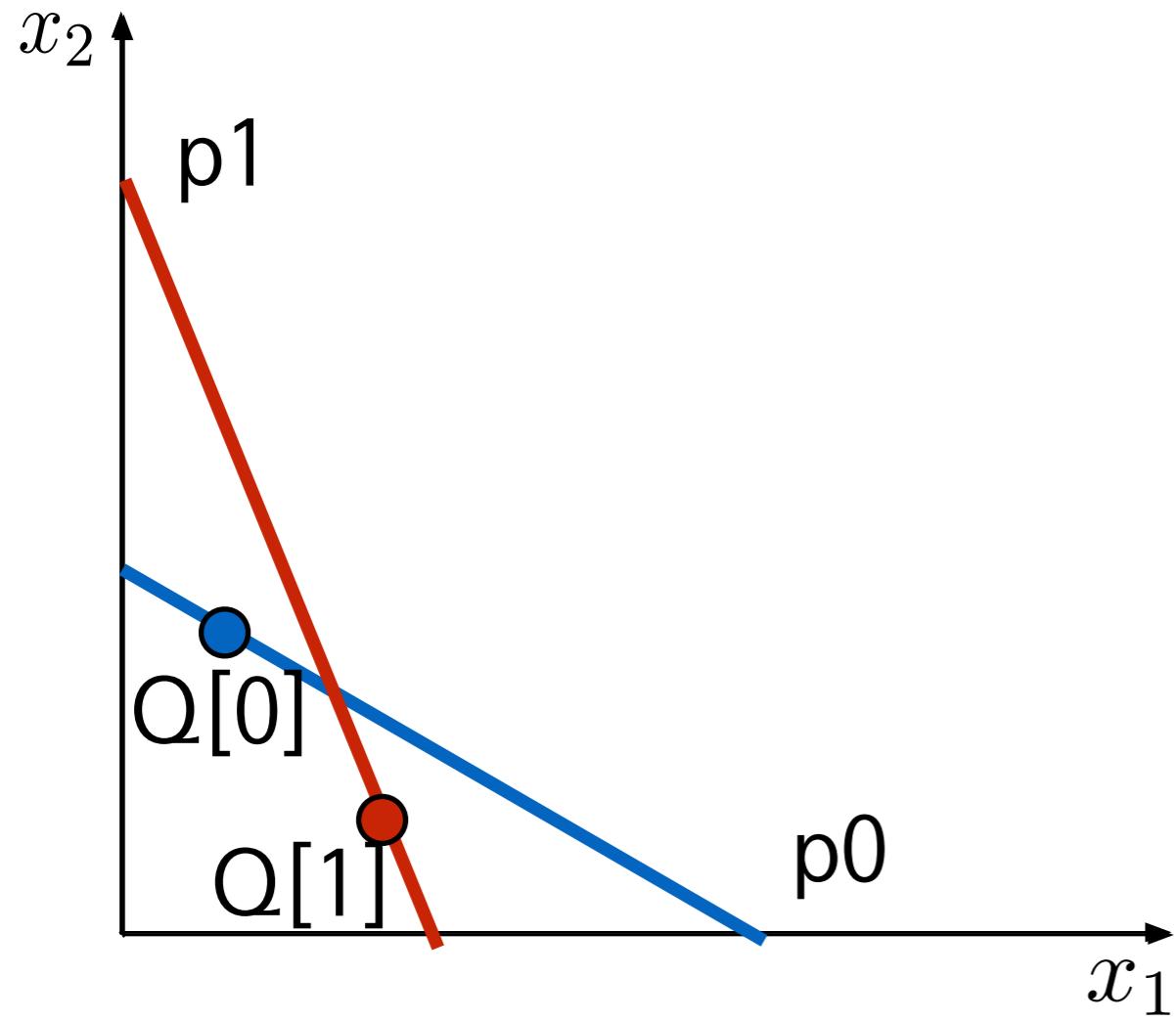
# 현시선후의 약공리 Weak Axiom of Revealed Preference (WARP)

- “ $Q[0]$  이  $Q[1]$ 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시선후되면,  
 $Q[1]$ 은  $Q[0]$ 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시선후되면 안 된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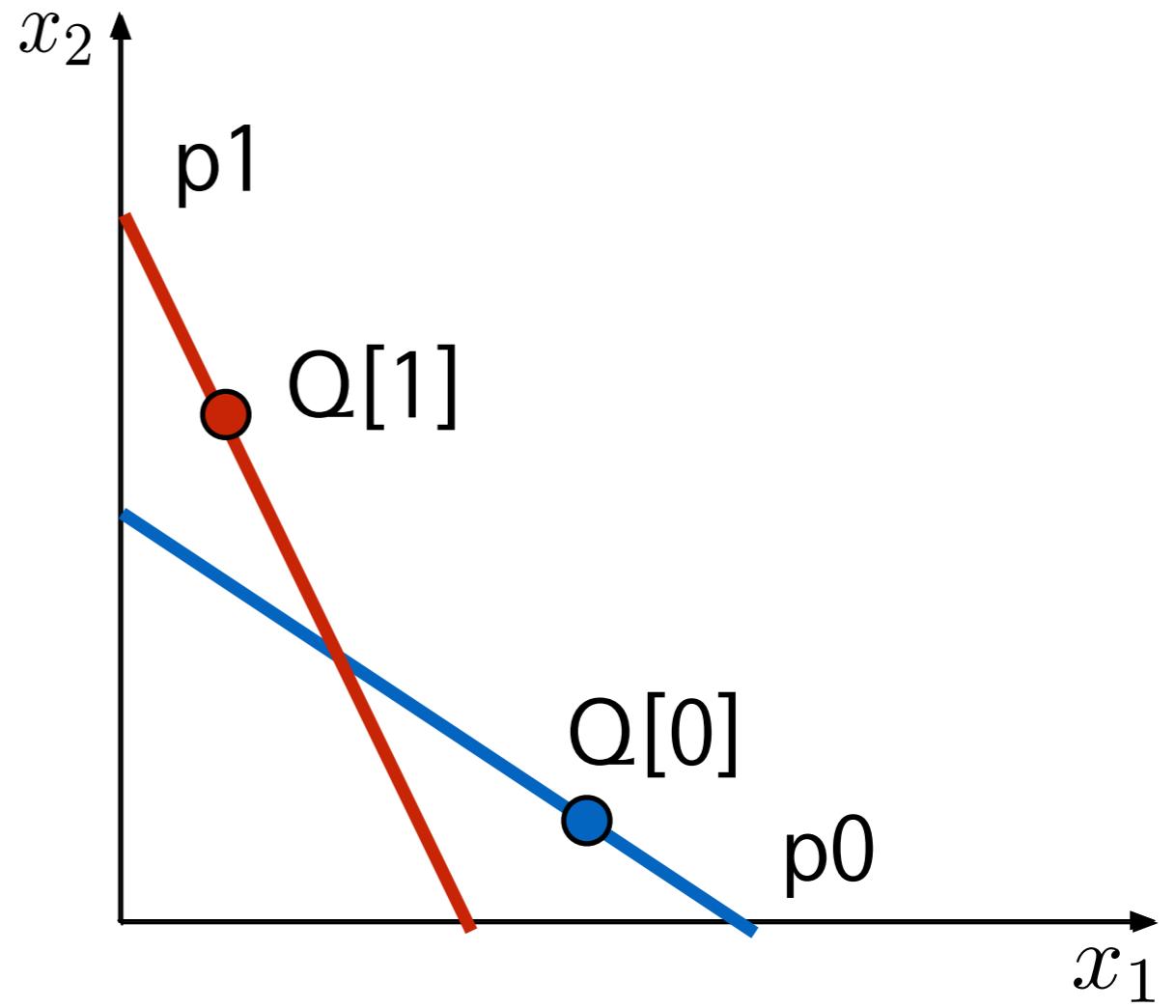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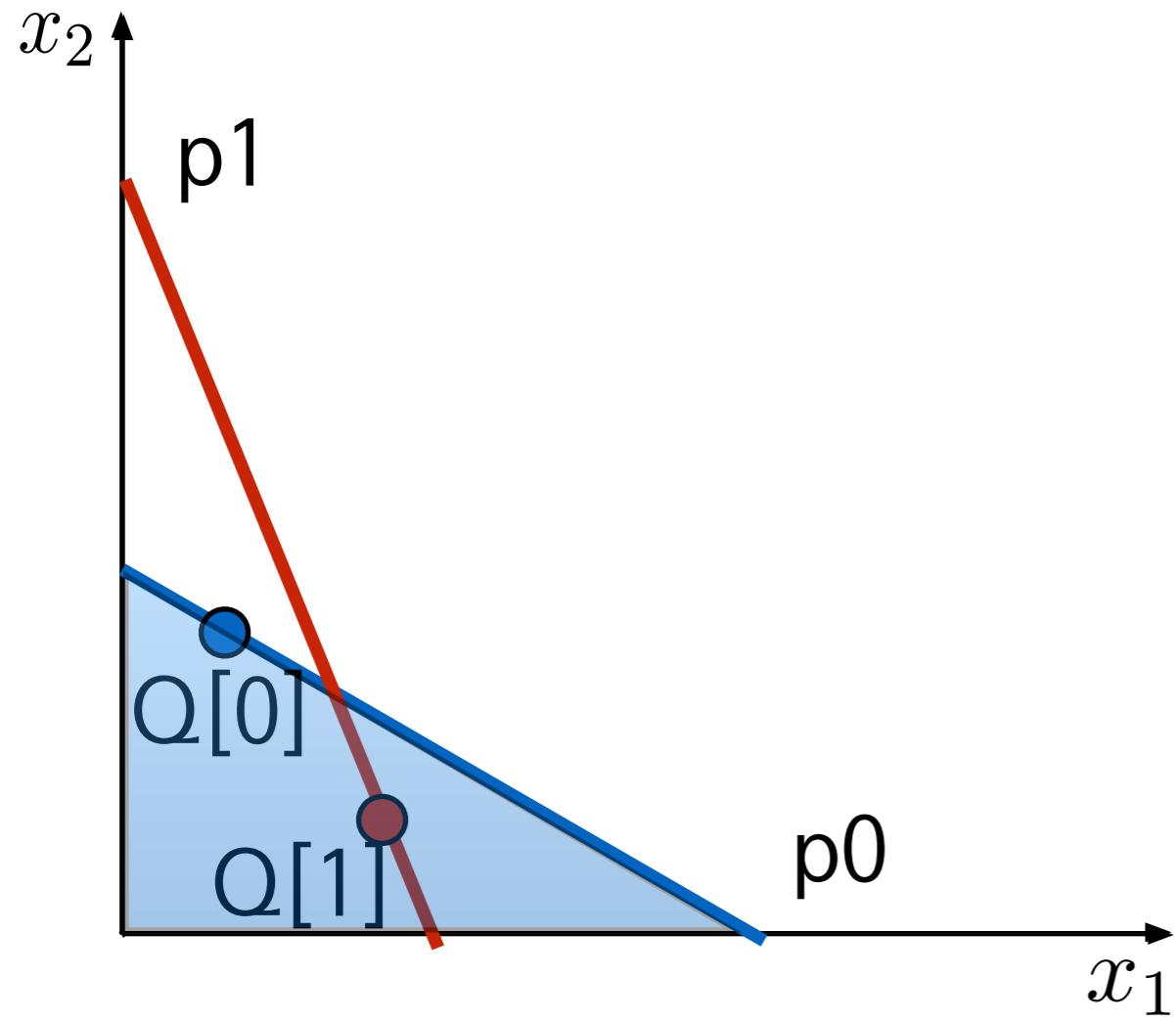
$$Q^0 \succsim Q^1 \quad \Rightarrow \quad \text{there is no case that } Q^0 \lesssim Q^1$$

$$P^1 Q^1 \geq P^1 Q^0 \quad \Rightarrow \quad P^0 Q^0 < P^0 Q^1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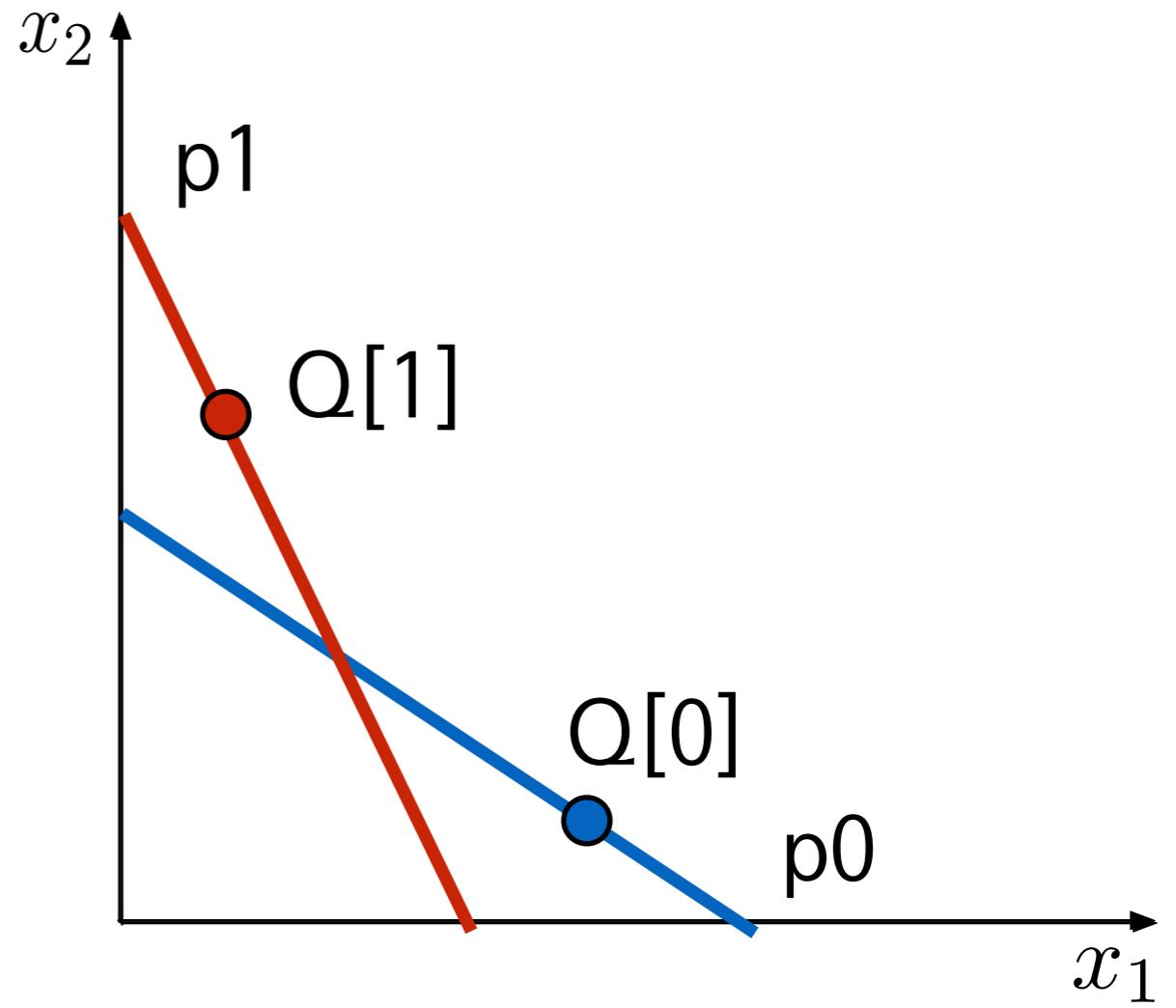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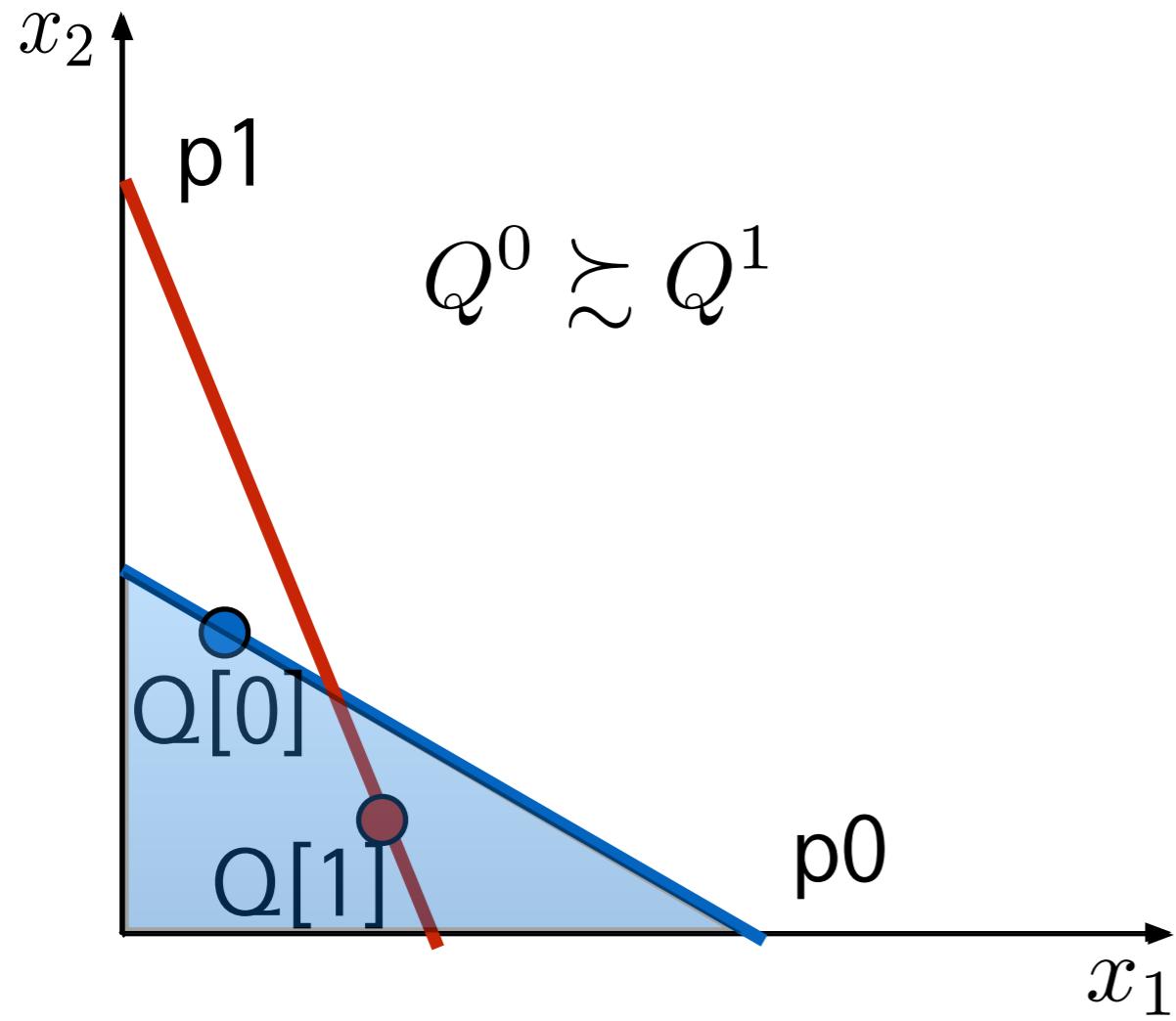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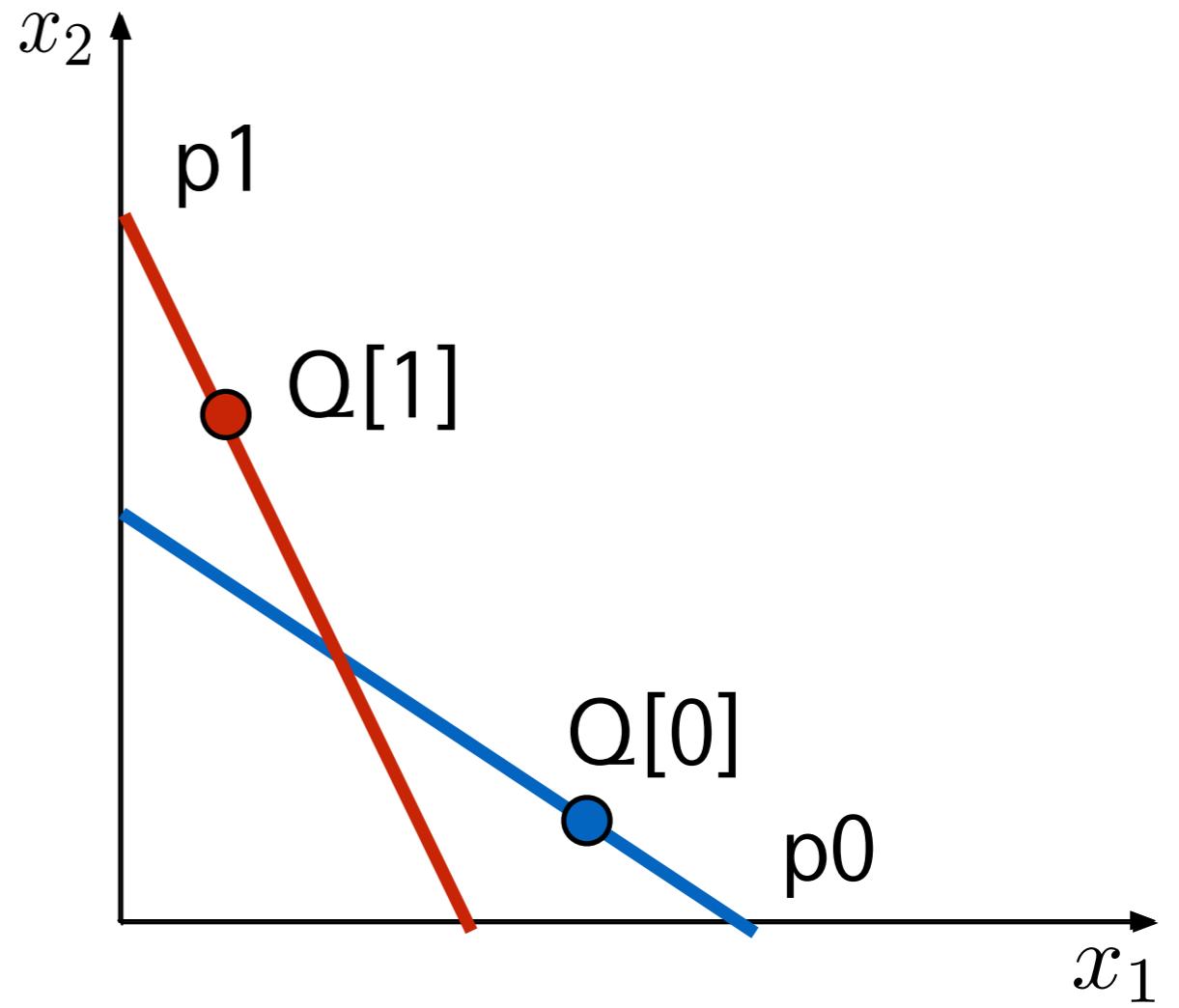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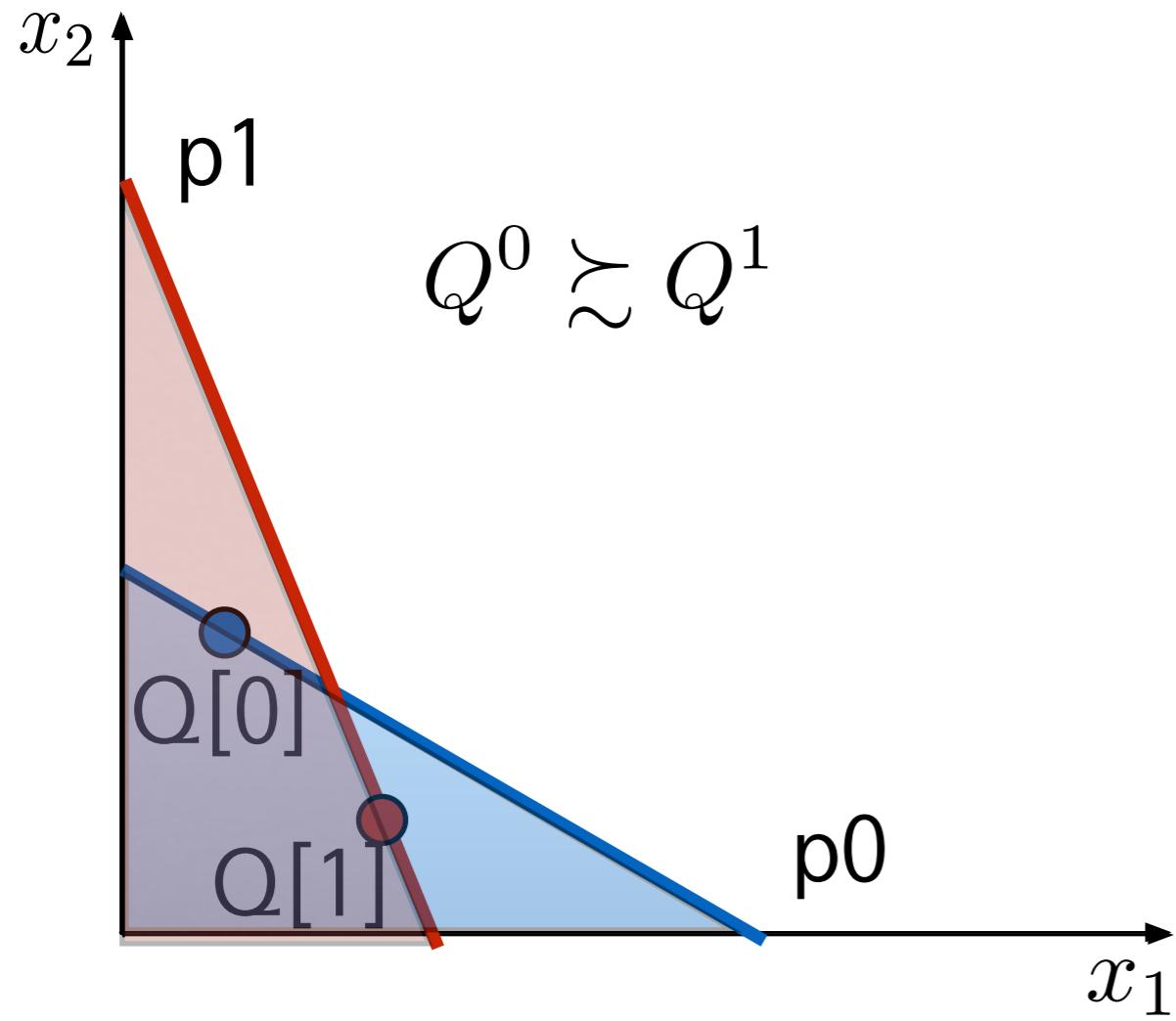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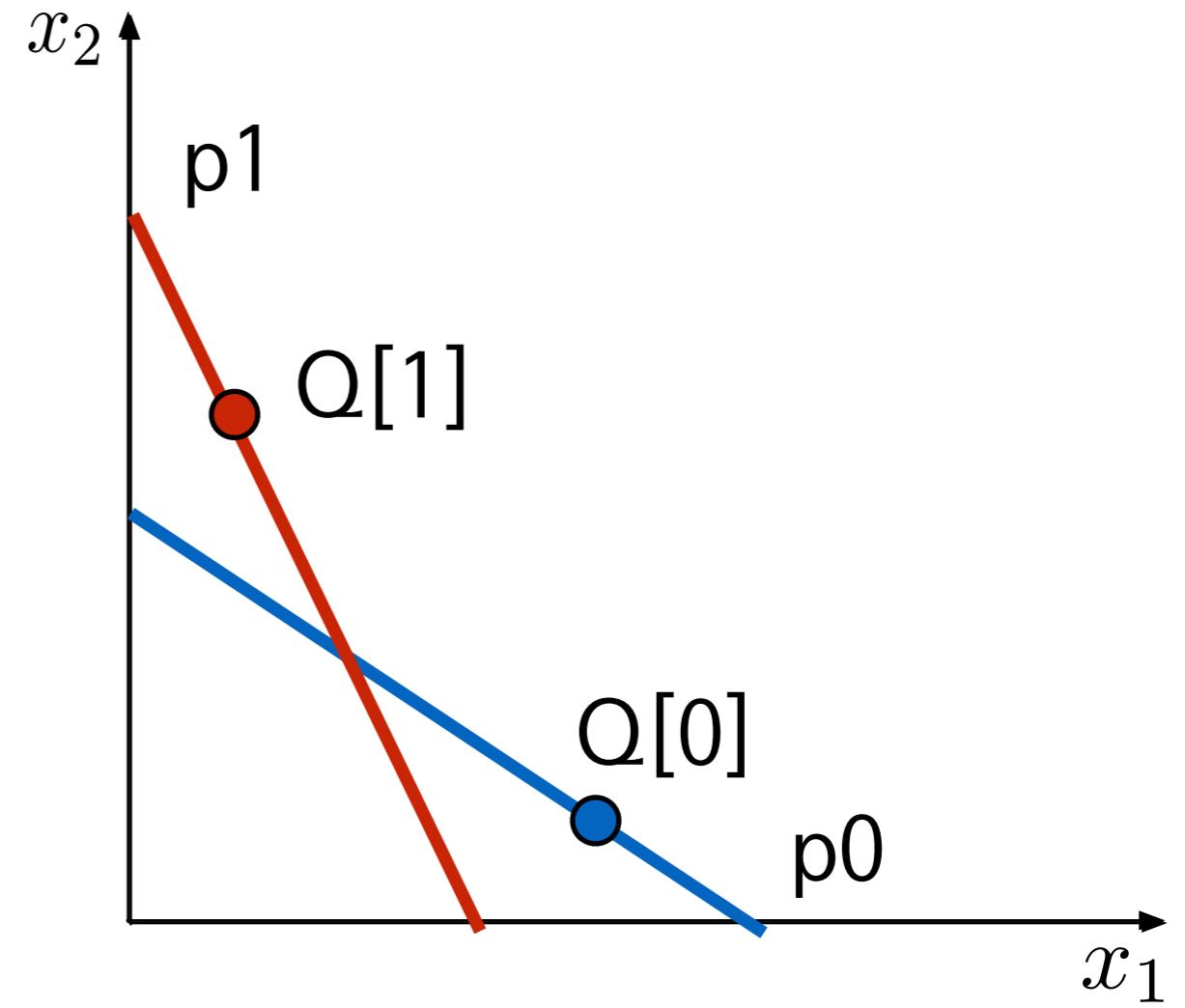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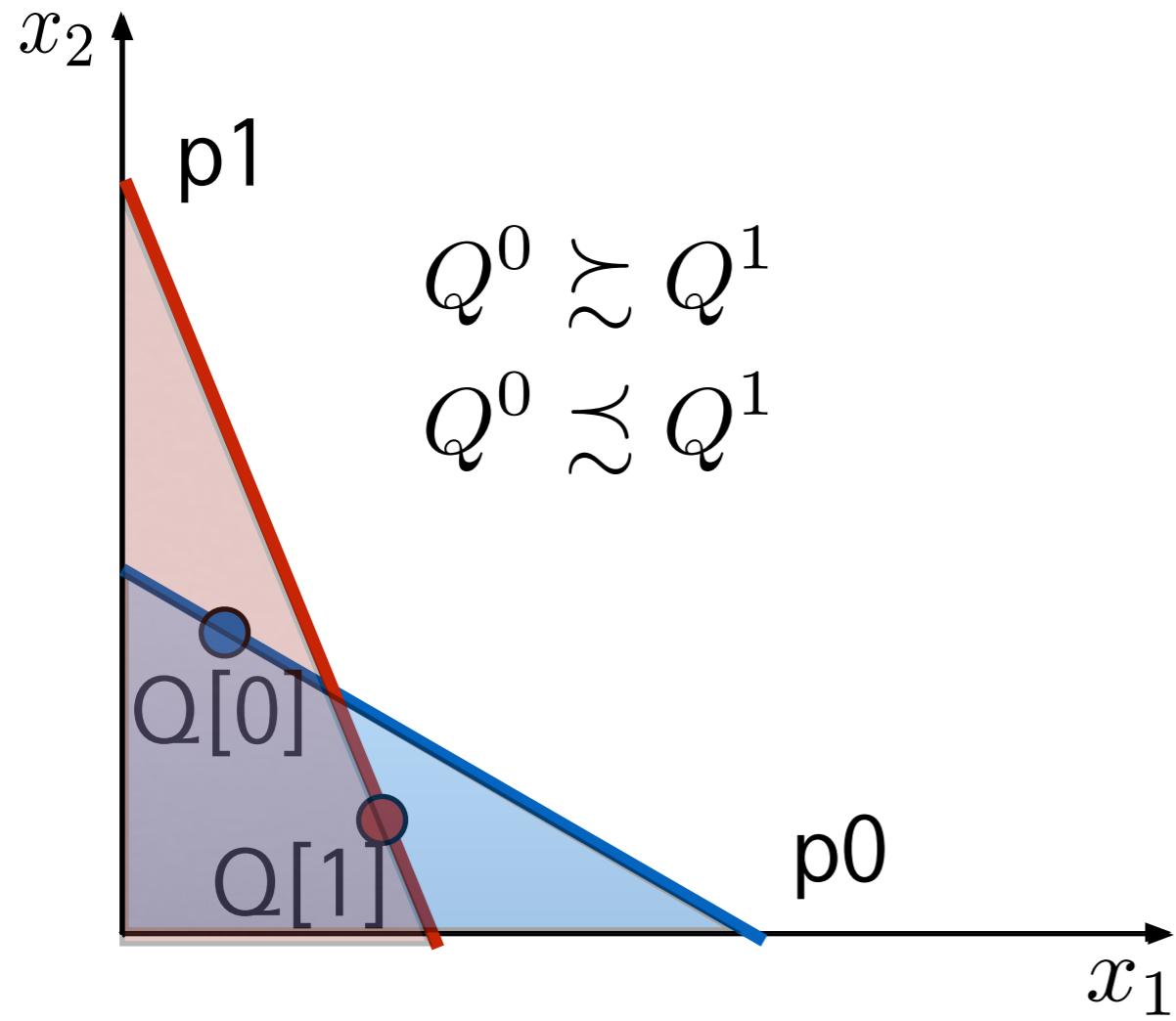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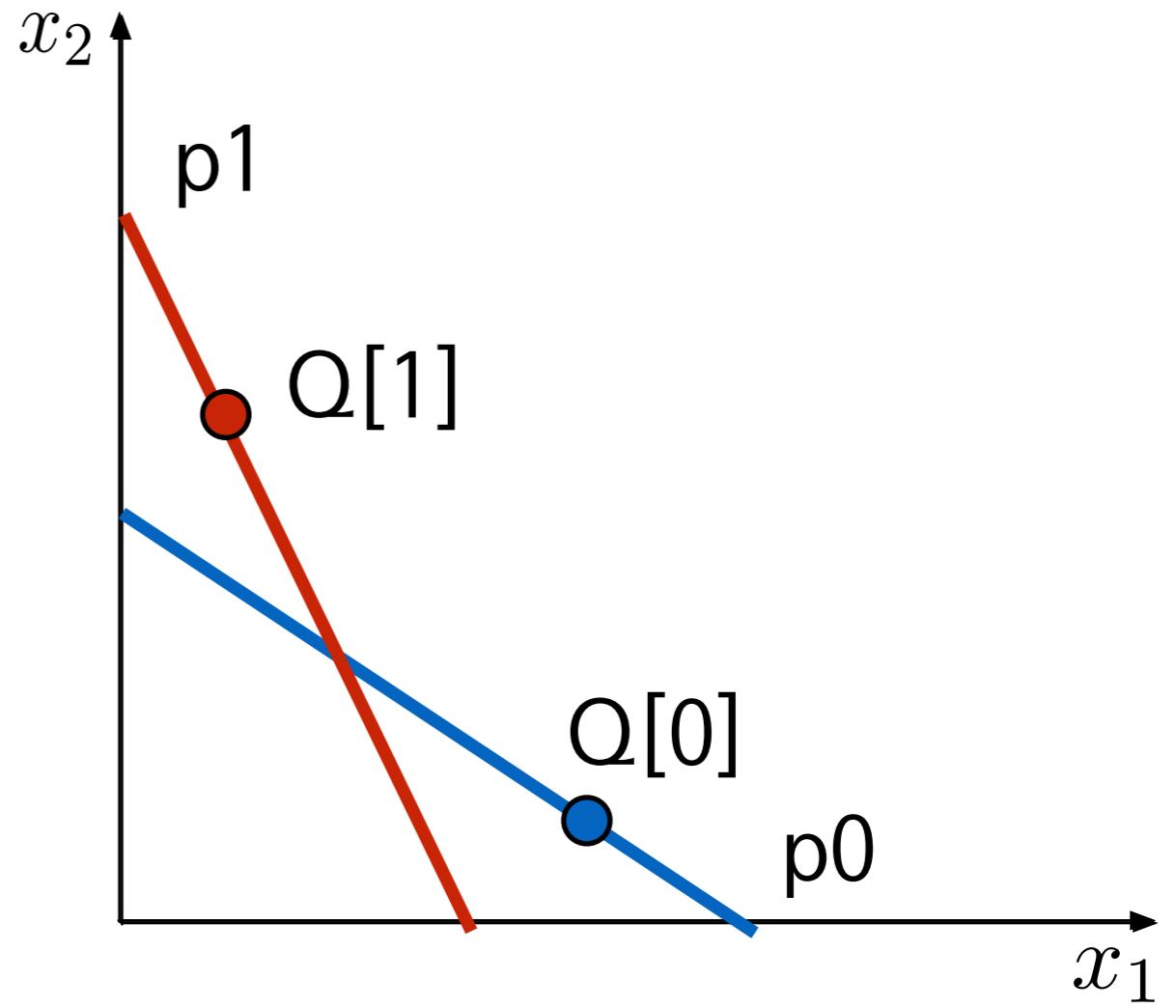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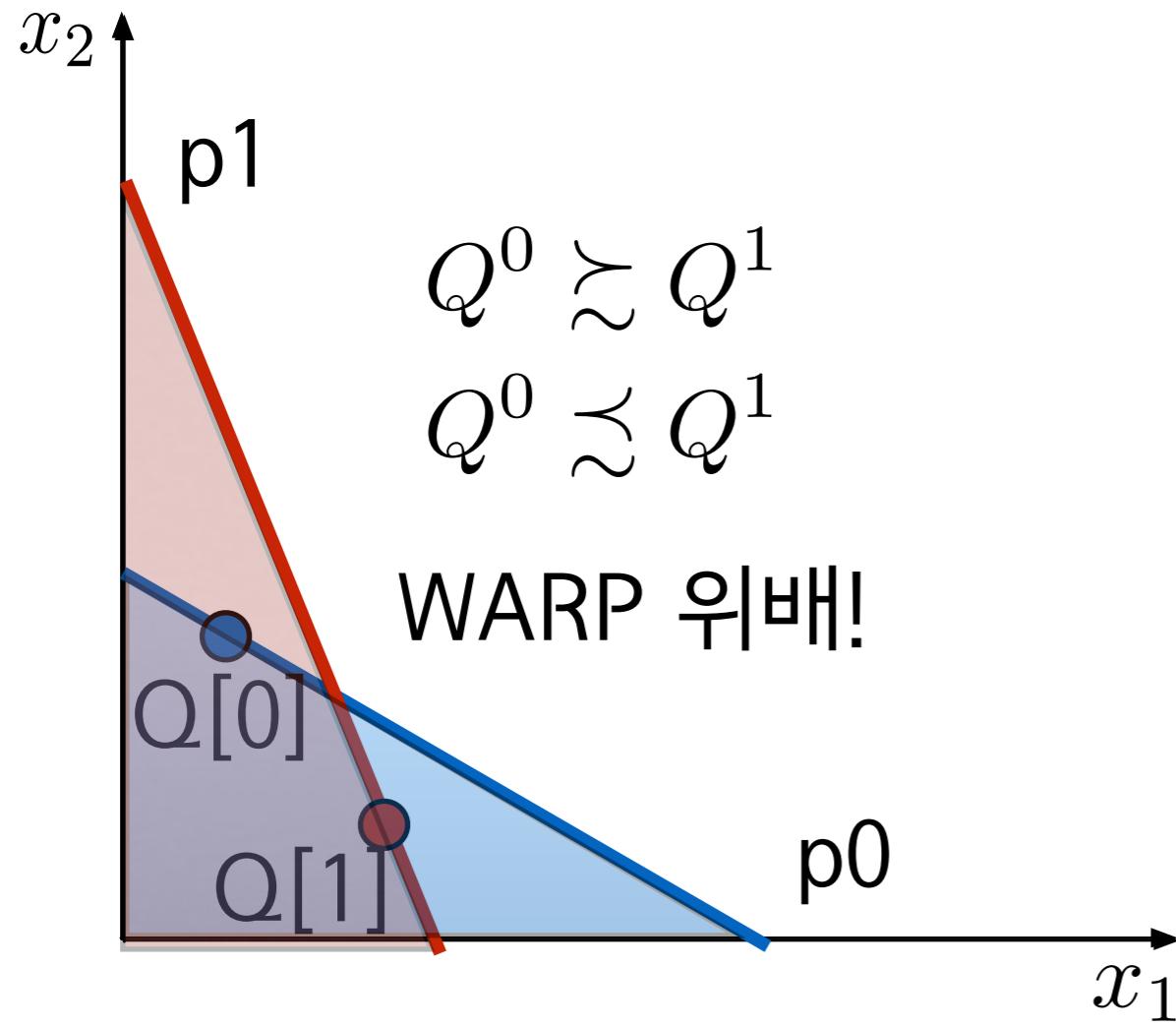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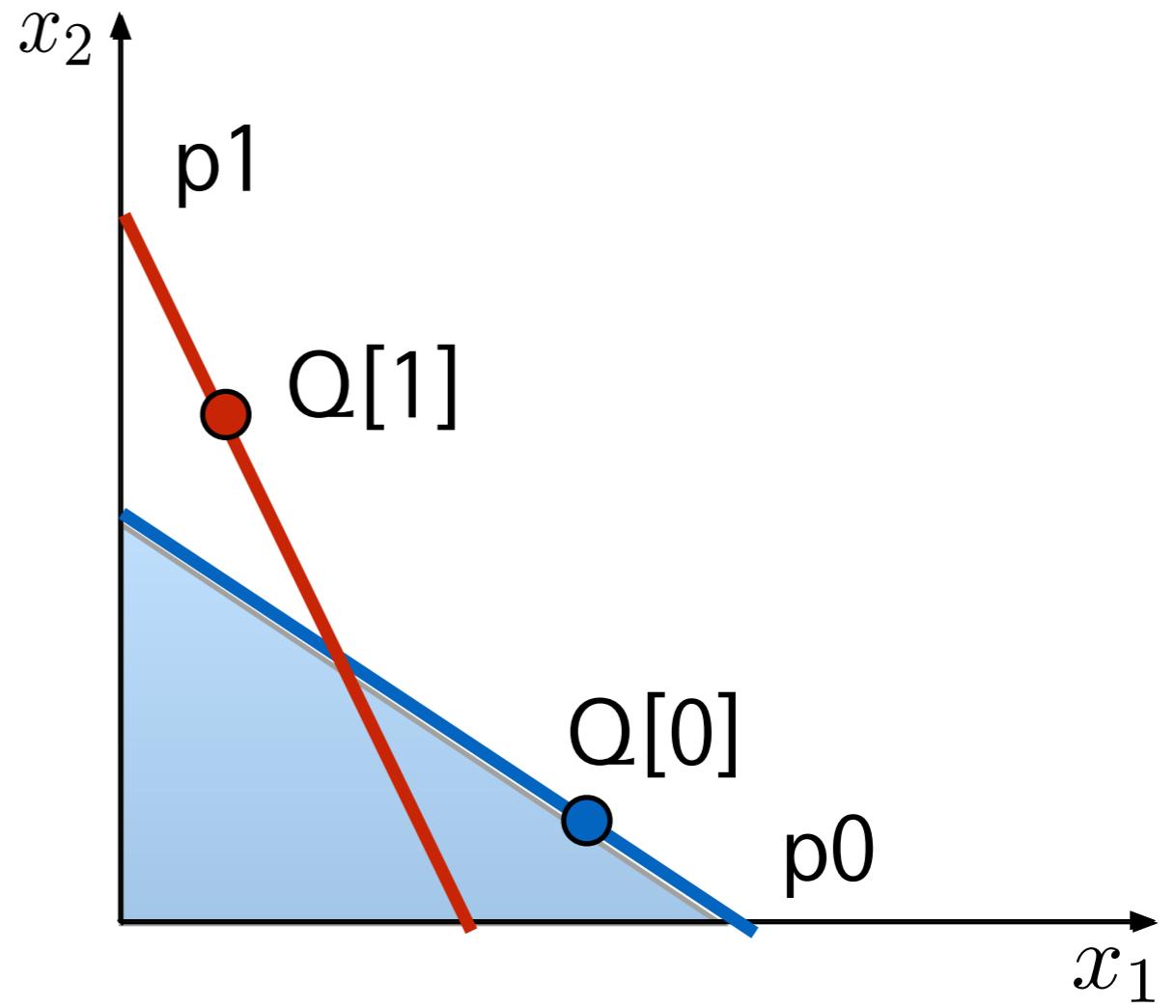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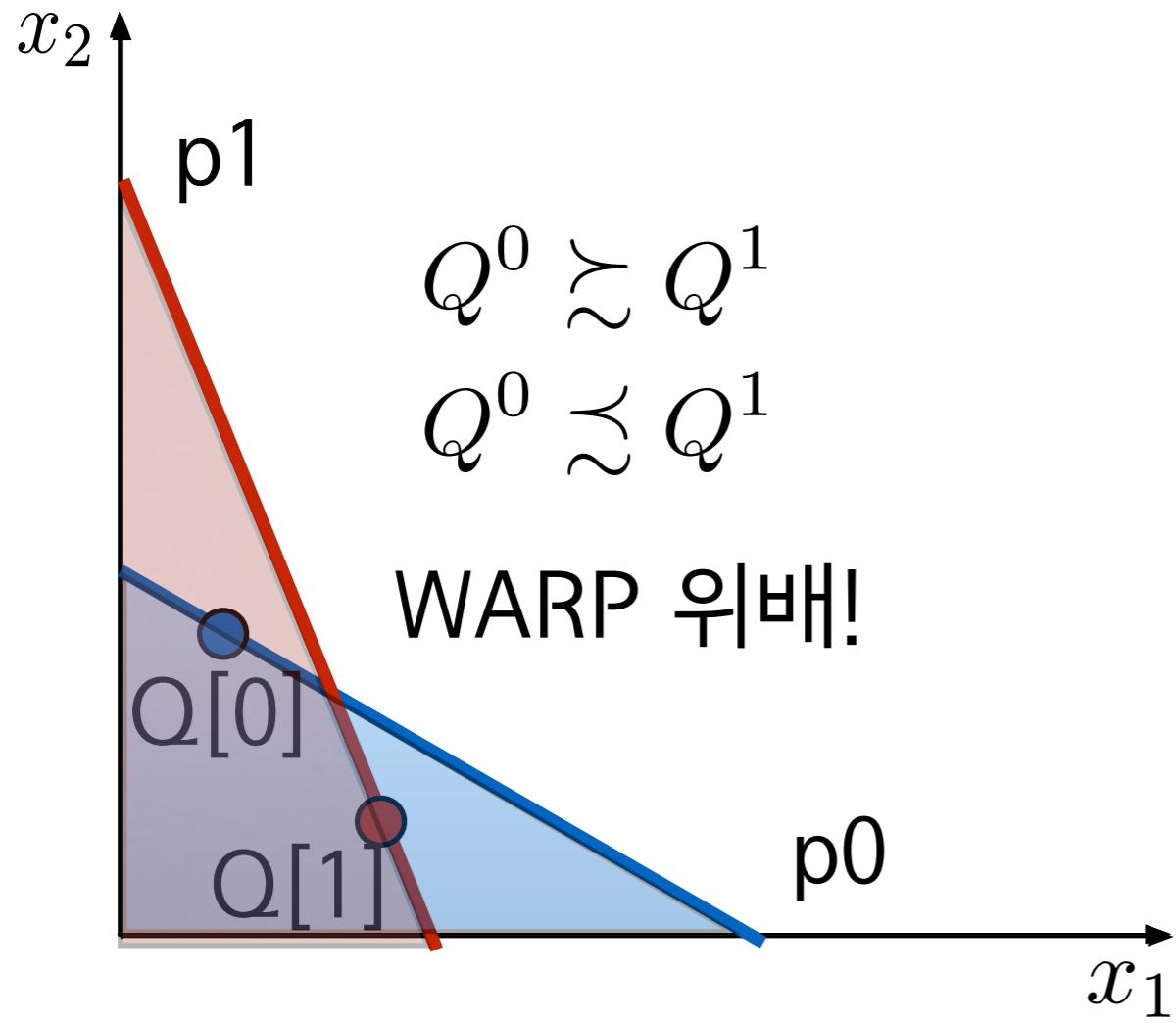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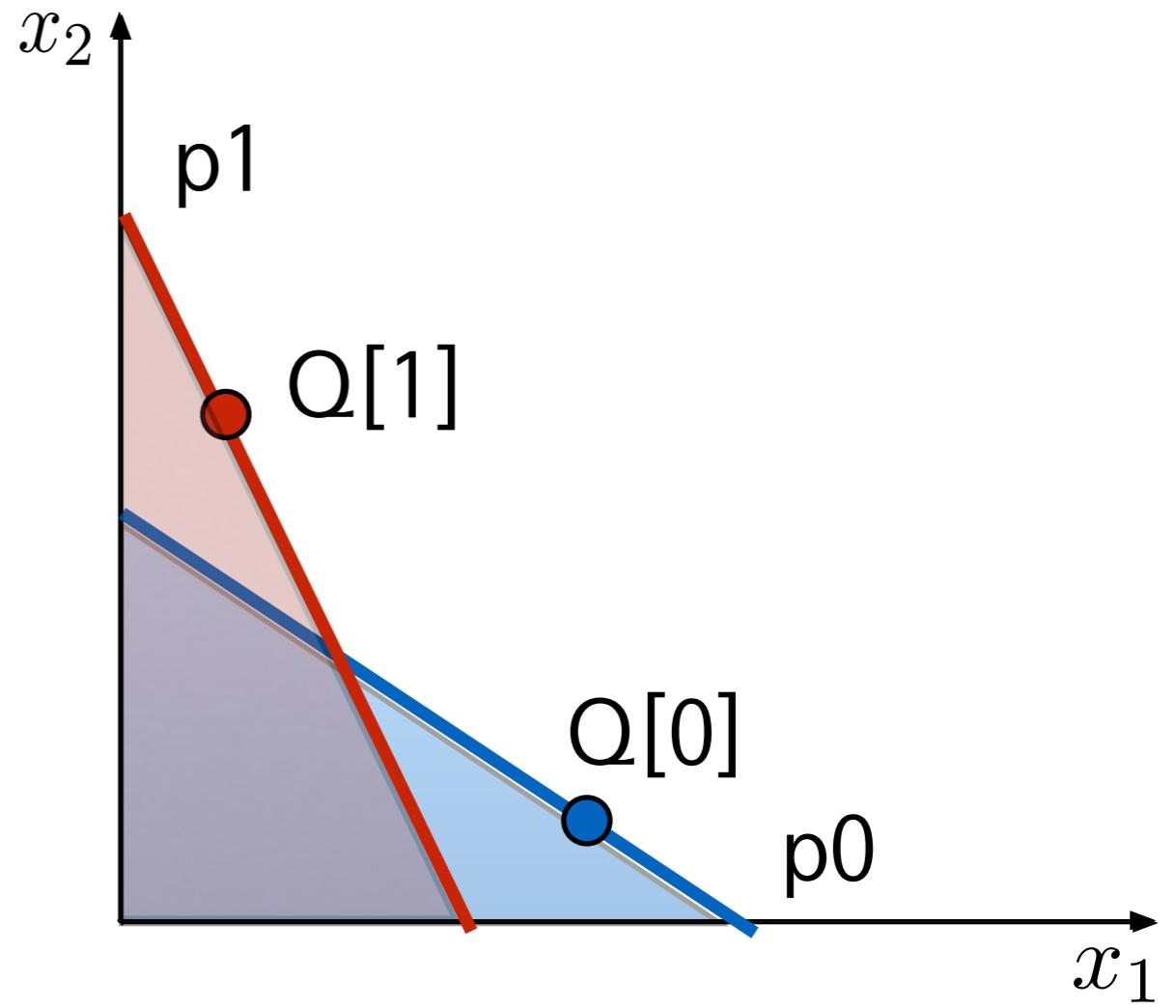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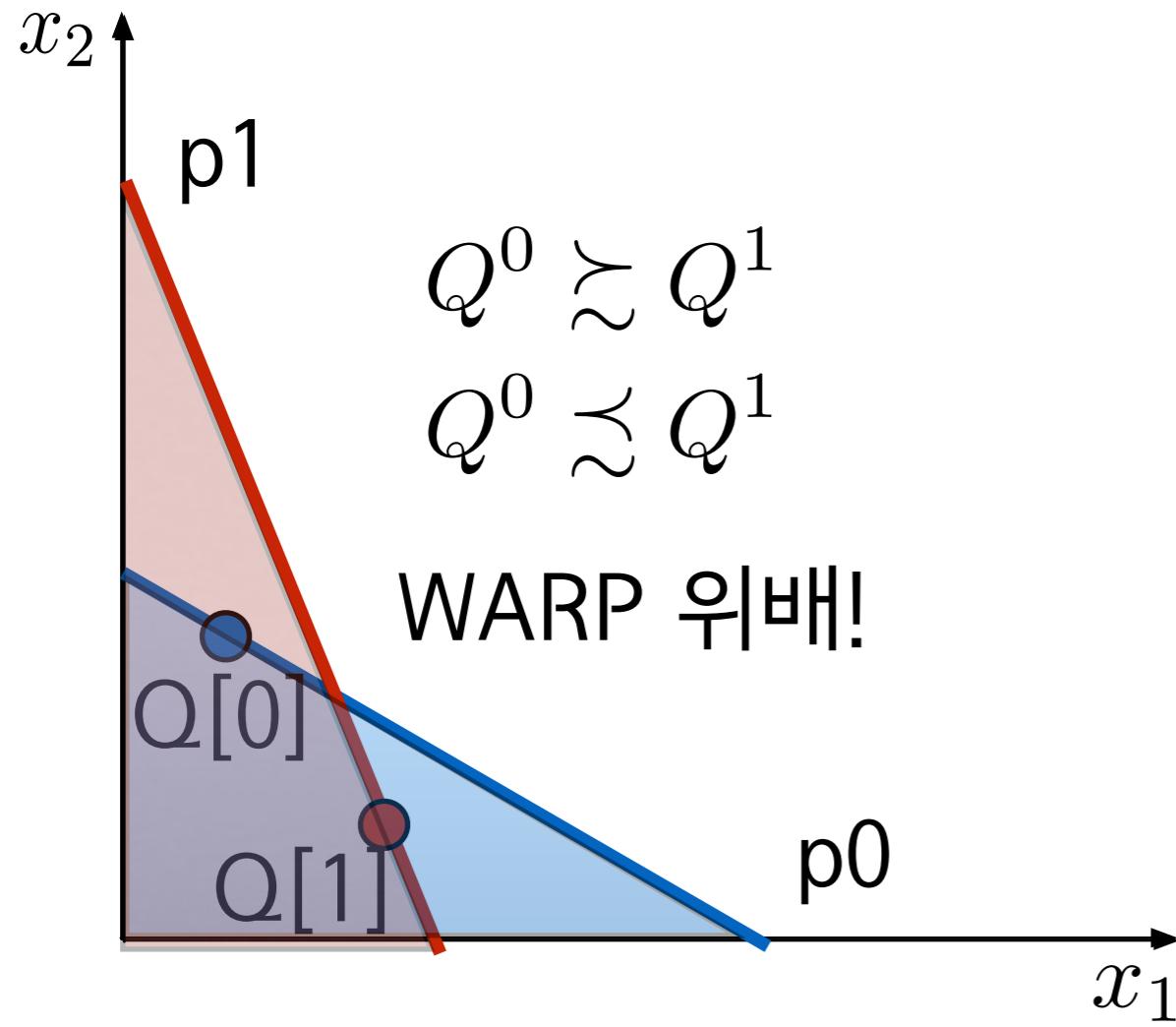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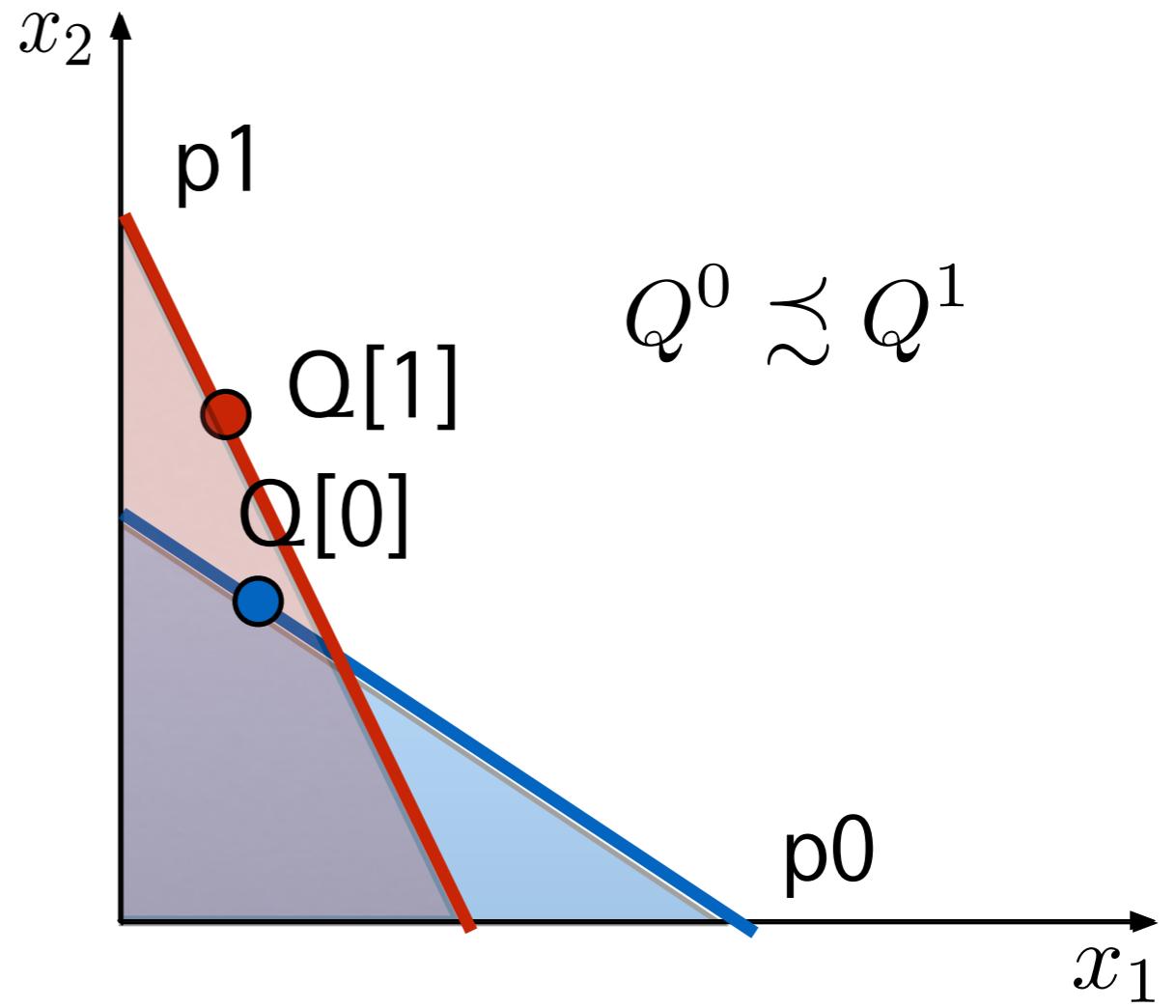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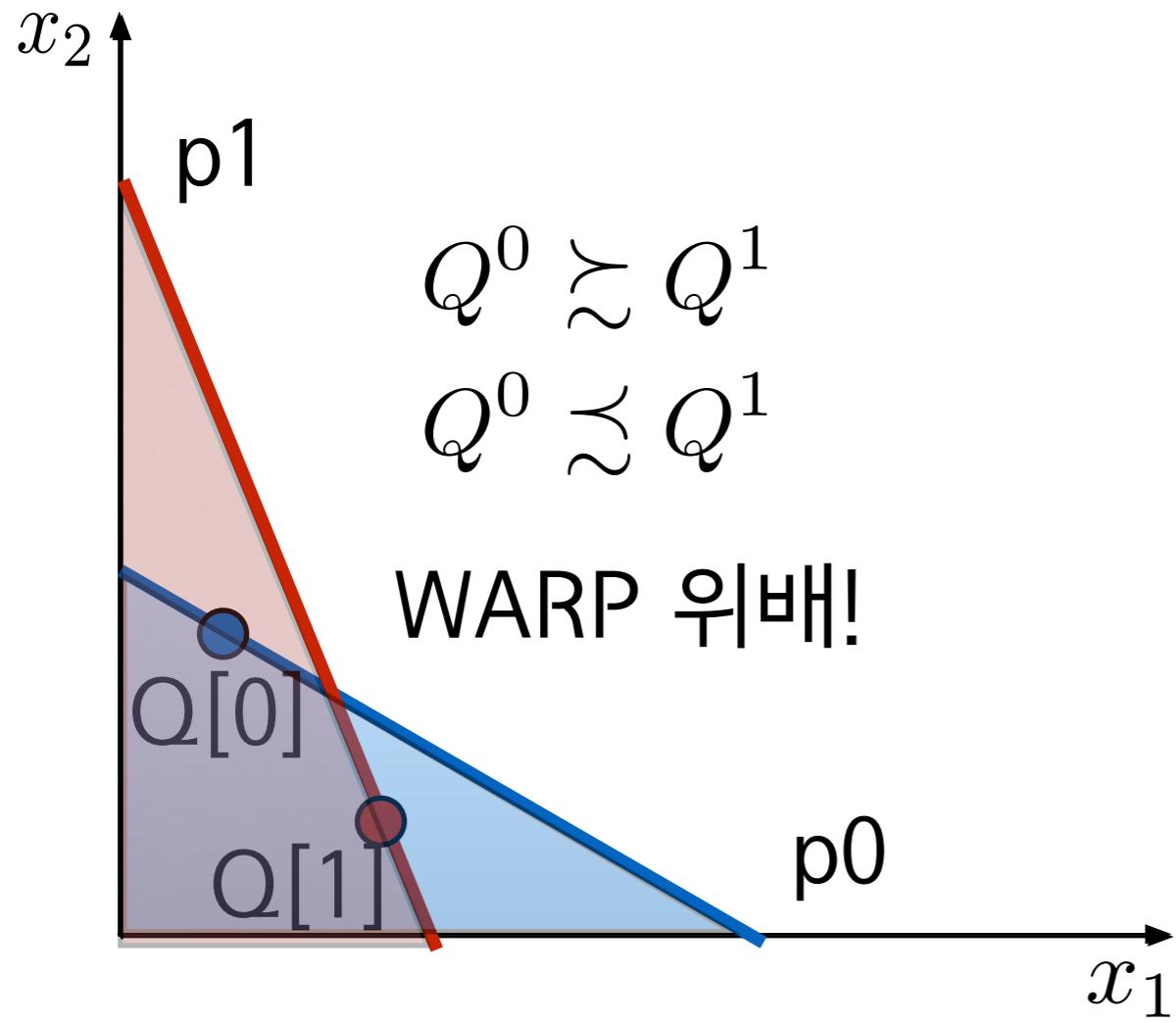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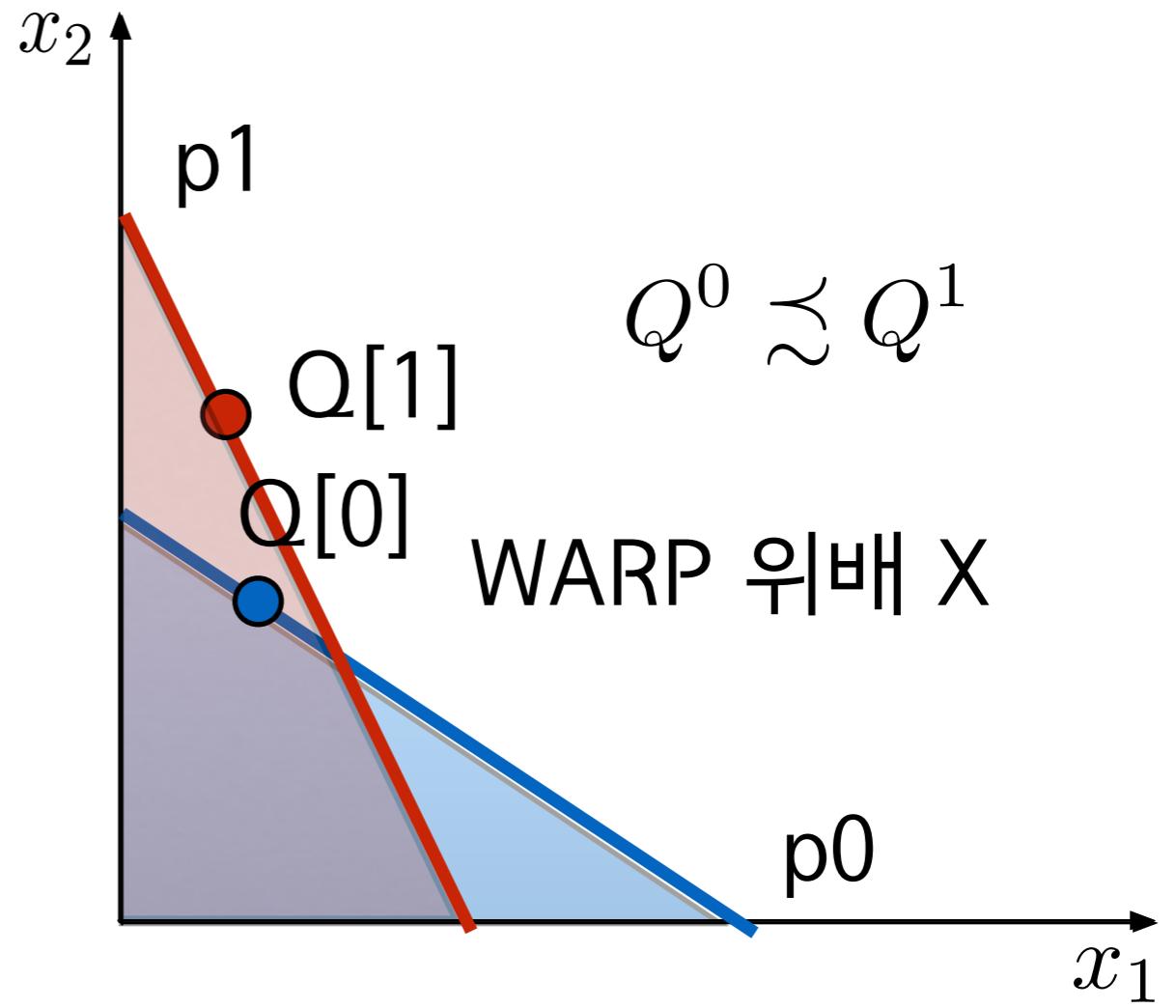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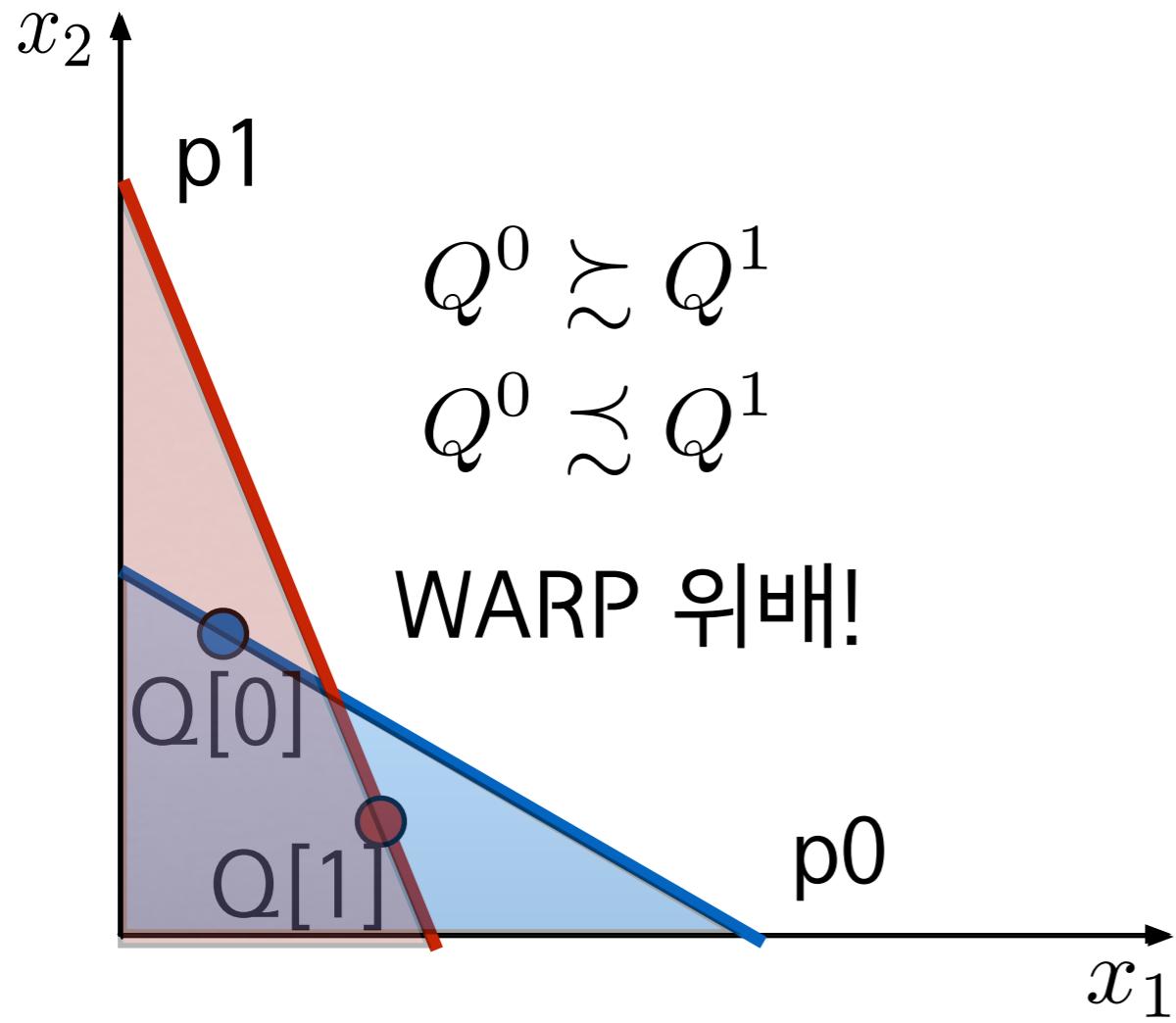
# Three Cases



# Three Cases



# Three Cases



# 현시선호이론 정리 1

- “재화가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가 WARP를 충족하면 (즉 주어진 가격, 수량 데이터가 WARP를 충족하면) 그 효용체계를 충족하는 효용함수를 찾을 수 있으며, 그 데이터는 이 효용함수의 효용극 대화 결과이다.”
- 증명은 상급과목에서!

# 재화가 3종 이상인 경우

- WARP는 위배하지 않지만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 케이스 존재
- $P_0Q_0 = P_0Q_1 = 12$ 
  - $Q_0 > Q_1$
- $P_1Q_1 = P_1Q_2 = 10$ 
  - $Q_1 > Q_2$
- $P_2Q_2 = P_2Q_0 = 17$ 
  - $Q_2 > Q_0$
- $P_0Q_2 > Q_0Q_0 \Rightarrow$  WARP 위배 X

period	$P_i$	$Q_i$	$M_i$
0	2,2,2	2,2,2	12
1	1,3,2	3,1,2	10
2	2,1,5,5	4,1,1,5	17

# 간접 현시선호

# Indirect Revealed Preference

$$Q^0 \succsim_I Q^k$$

- 간접적 현시선호: 이행적 선호체계를 강제

$Q^0$  is indirectly preferred to  $Q^k$  i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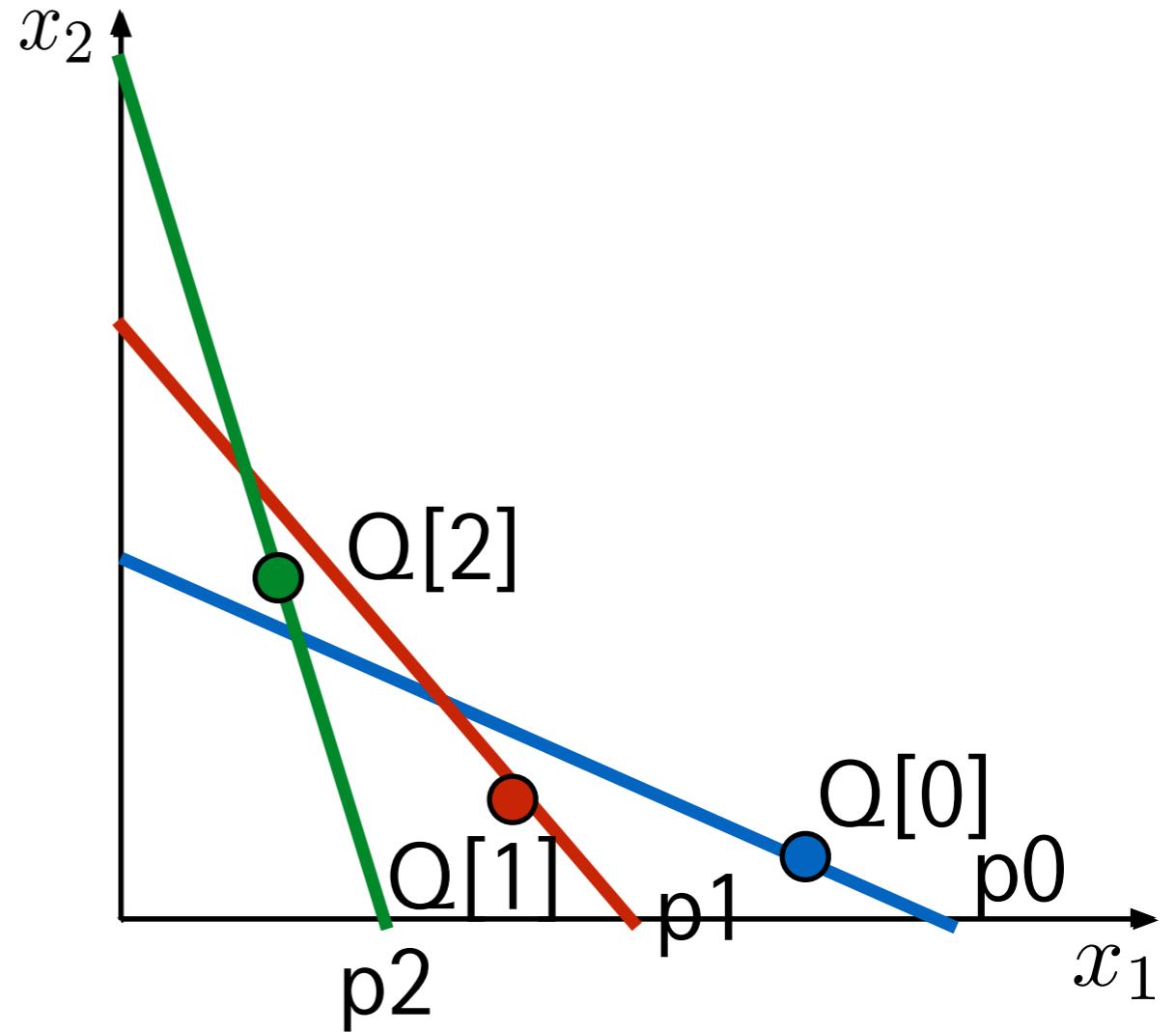
$$\forall j = 1, \dots, k-1, \quad P^j Q^j \geq P^j Q^{j+1}$$

$$Q^0 \succsim Q^1 \succsim \dots \succsim Q^{k-1} \succsim Q^k$$

# 기하학적 설명

- $Q[0]$ 은  $Q[2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되지는 않음
- $Q[0]$ 은  $Q[1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됨
- $Q[1]$ 은  $Q[2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됨
  - 따라서  $Q[0]$ 은  $Q[2]$ 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시선호됨

$$Q^0 \succsim_I Q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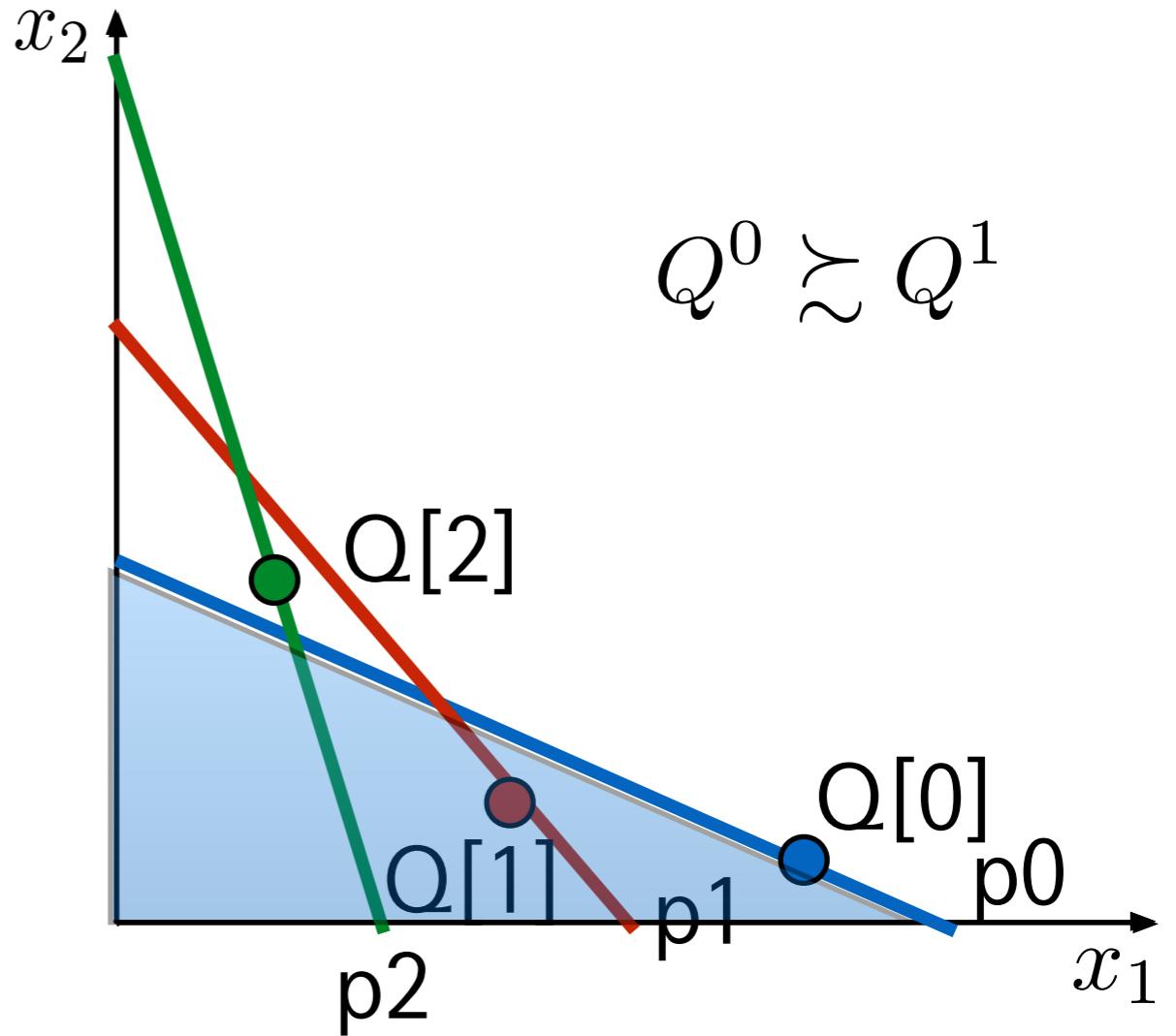


# 기하학적 설명

- $Q[0]$ 은  $Q[2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되지는 않음
- $Q[0]$ 은  $Q[1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됨
- $Q[1]$ 은  $Q[2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됨
  - 따라서  $Q[0]$ 은  $Q[2]$ 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시선호됨

$$Q^0 \succsim_I Q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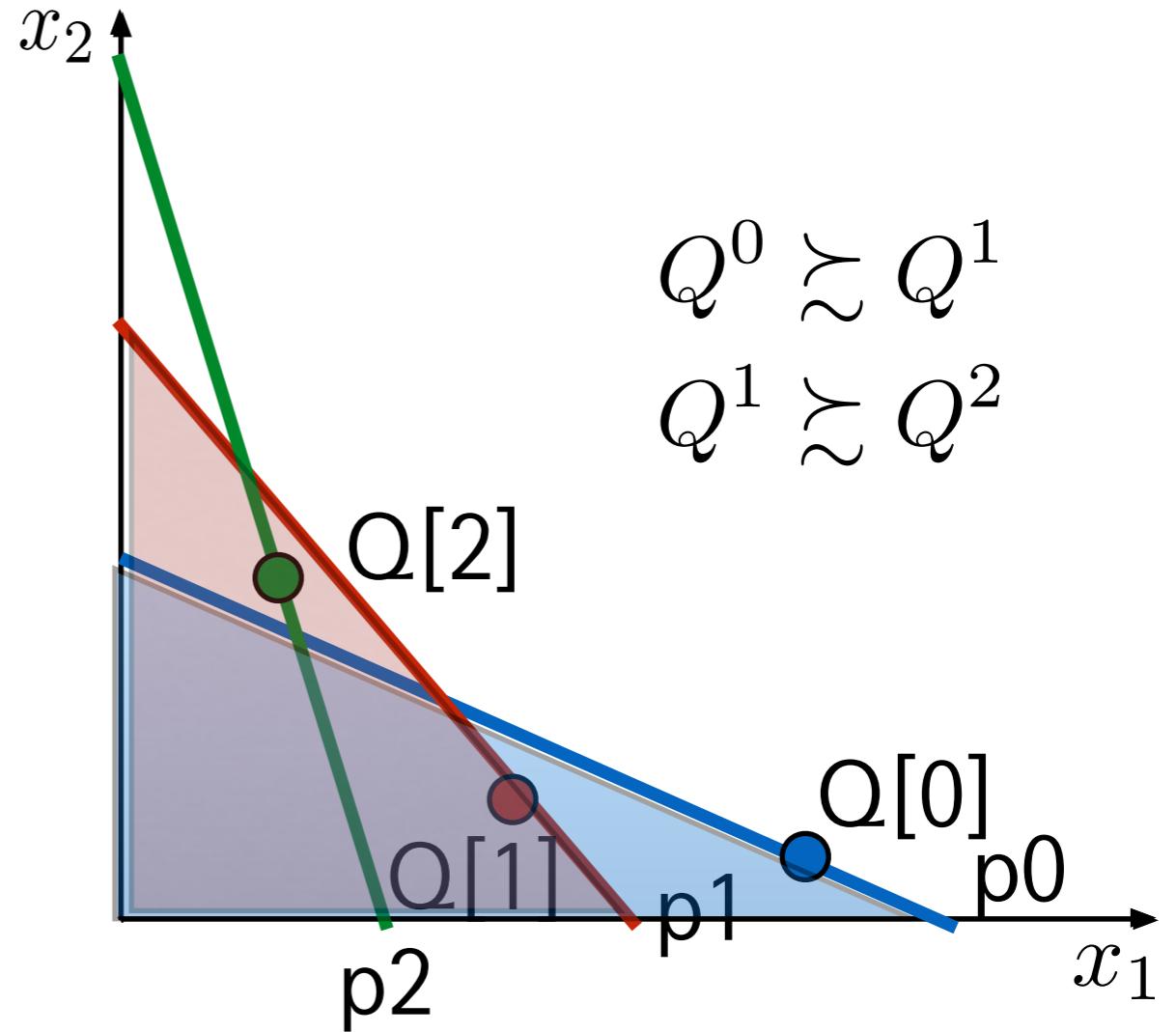
$$Q^0 \succsim Q^1$$



# 기하학적 설명

- $Q[0]$ 은  $Q[2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되지는 않음
- $Q[0]$ 은  $Q[1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됨
- $Q[1]$ 은  $Q[2]$ 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됨
  - 따라서  $Q[0]$ 은  $Q[2]$ 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시선호됨

$$Q^0 \succsim_I Q^2$$



$$\begin{aligned} Q^0 &\succsim Q^1 \\ Q^1 &\succsim Q^2 \end{aligned}$$

# 현시선후의 강공리 Strong Axiom of Revealed Preference (SAR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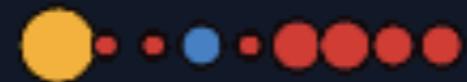
$Q^0 \succsim_I Q^1 \quad \Rightarrow \quad$  there is no case that  $Q^0 \precsim_I Q^1$

# 현시선호이론 정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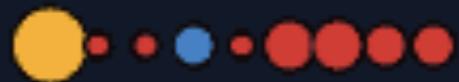
- 재화가 세 가지 이상일 경우 주어진 가격, 수량 데  
이터가 SARP를 충족하면 그 데이터는 효용 극대화  
의 결과이다

# Break!

Heliocentrism



Geocentris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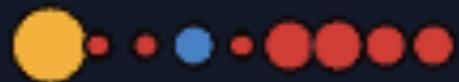


# Break!

Heliocentrism



Geocentrism



# 불확실성과 소비자선택

# 리스크와 불확실성

# Risk and Uncertainty

- 확률분포를 알고 있는 불확실성: Risk
- 확률분포도 알기 어려운 불확실성: Ambiguity
  - uncertainty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
- 여기에서는 주로 risk를 다룸
  - 확률은 알지만 결과는 알지 못하는 상황

# 확률변수 Random Variable

- 가질 수 있는 모든 값과 그 값의 확률을 규정한 변수
  -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는 한 값을 1의 확률로 가지는 확률변수로 해석 가능
  - 예: 결과를  $Z=\{1,2,3,4,5,6\}$  이라고 정의했을 경우,
    - 6면 주사위:  $L_d = (1/6, 1/6, 1/6, 1/6, 1/6, 1/6)$
    - 동전 던지기:  $L_c = (1/2, 1/2, 0, 0, 0, 0)$ 
      - 앞면을 1, 뒷면을 2로 사전에 규정
    - 결과(outcome)는 숫자여야 할 필요는 없음
  - 중요한 것은 확률벡터의 원소 합은 1이며,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

# 불확실성의 표현

- $n$  개의 경품 가운데 하나를 주는 이론적 복권
  - $i$  상황에 당첨될 확률  $p_i$
  - 모든 경품의 당첨확률을 나타내는 확률분포
$$L = \{p_1, p_2, \dots, p_n\}, \quad \left( 0 \leq p_i \leq 1, \sum_1^n p_i = 1 \right)$$
  - 경품  $z_i$  :  $i$  상황에서의 경품
  - 경품집합  $Z = \{z_1, z_2, \dots, z_n\}$
  -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소비 공간  $\Delta(Z)$

# 복권의 시각적 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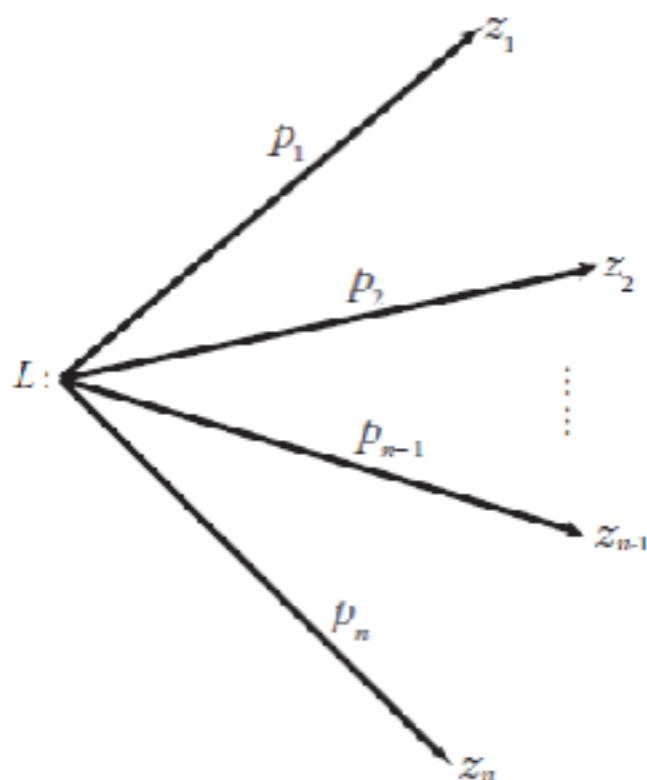


그림 9-1 복권의 시각적 표현

# 기대효용이론

# Expected Utility Theory

- $u: Z \rightarrow R$ 
  - 확정적 보상  $z_i$  를 받았을 때의 효용
  - 기수적 효용 (효용이 real number) X: 복권의 집합
- $L = (p_1, \dots, p_n)$  인 복권의 기대효용  $EU:X \rightarrow R$  는 다음과 같이 정의:
  - $EU(L) := \sum_i p_i u(z_i)$   $L, L' \in X$
  - $L \succsim L'$   $\iff^i EU(L) \geq EU(L')$

# 기대효용과 기대금액

## Expected Utility and Expected Value

- 기대효용: 복권의 “효용의” 기대값
  - $EU(L)$
  - 덧셈이 정의되어야 하므로 서수적 효용은 사용 불가능 (서수성의 유지는 오직 affine transform 만 허용)
- 기대금액: 복권의 “보상의” 기대값
  - $E(L)$

$$EU(L) := \sum_i^n p_i u(z_i) \quad E(L) := \sum_i^n p_i z_i$$

# Example: Binary Lottery

- 복권  $L$  : 경품  $a, b$ , 각각 당첨확률  $t, 1 - t$

- 기대효용

$$EU(L) = tu(a) + (1 - t)u(b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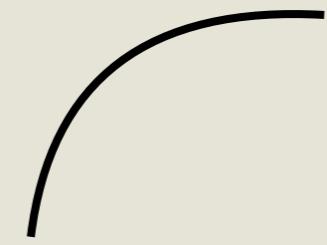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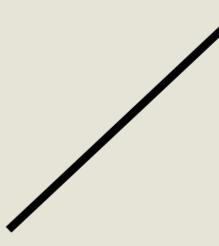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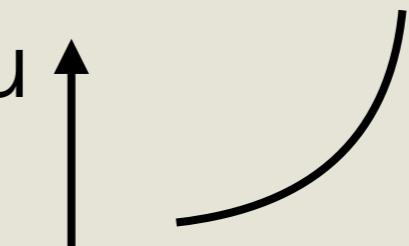
- 기대금액

$$E(L) = ta + (1 - t)b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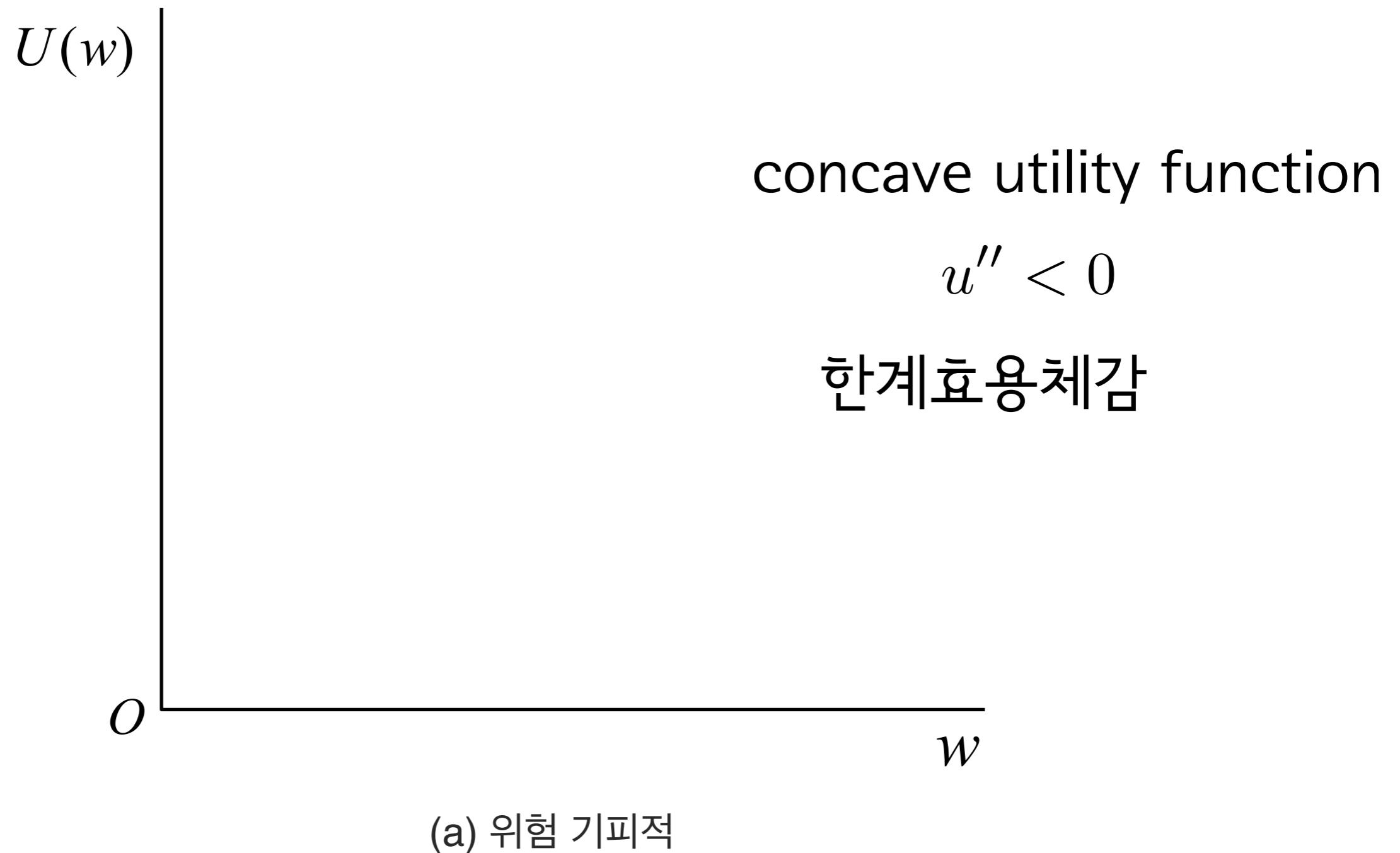
- 기대 금액의 효용

$$u(E(L)) = u(ta + (1 - t)b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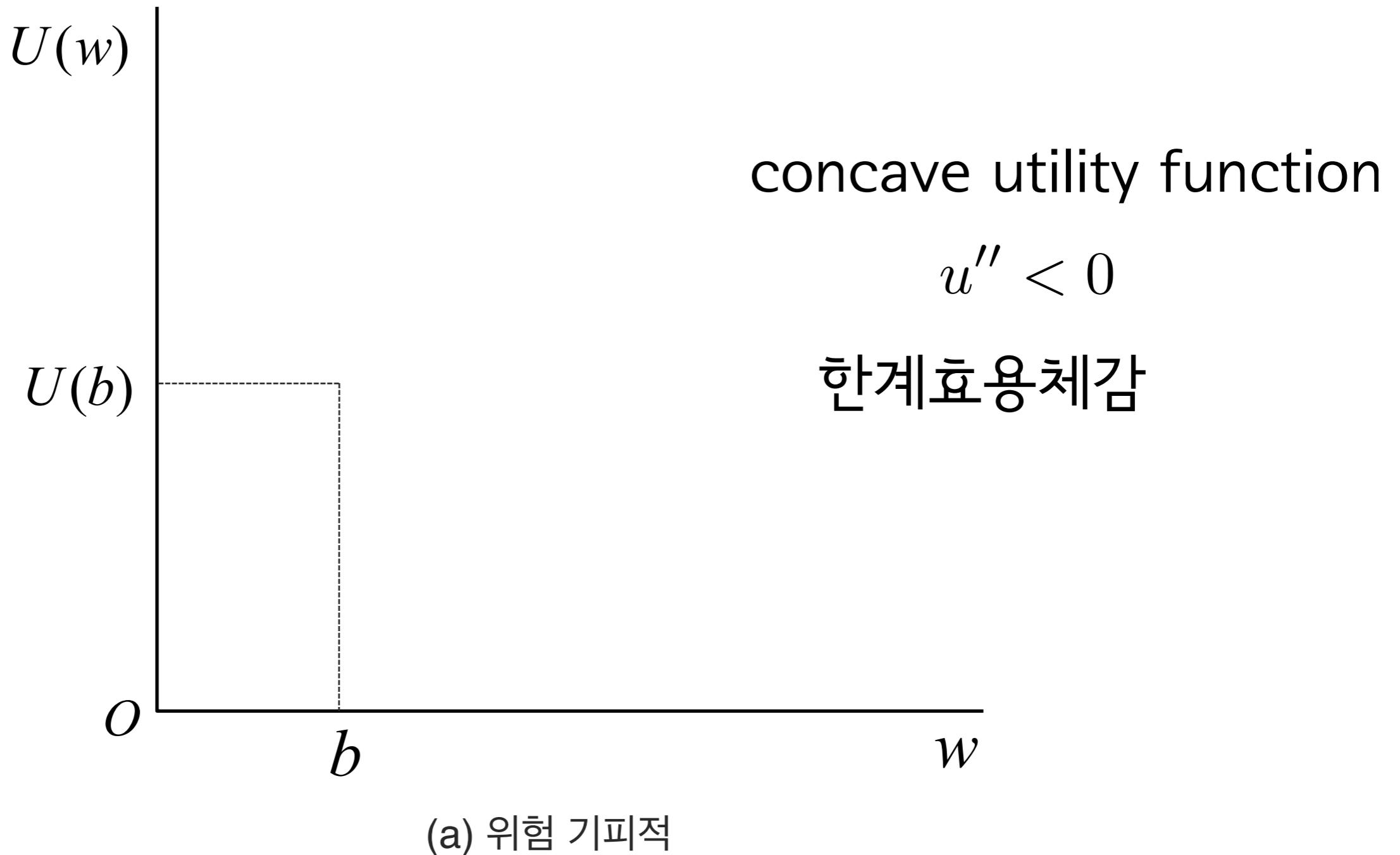
# 위험에 대한 태도

	정의	효용체계
위험 기피적 Risk Averse	$EU(L) < u(E(L))$	
위험 중립적 Risk Neutral	$EU(L) = u(E(L))$	
위험 선호적 Risk Loving	$EU(L) > u(E(L))$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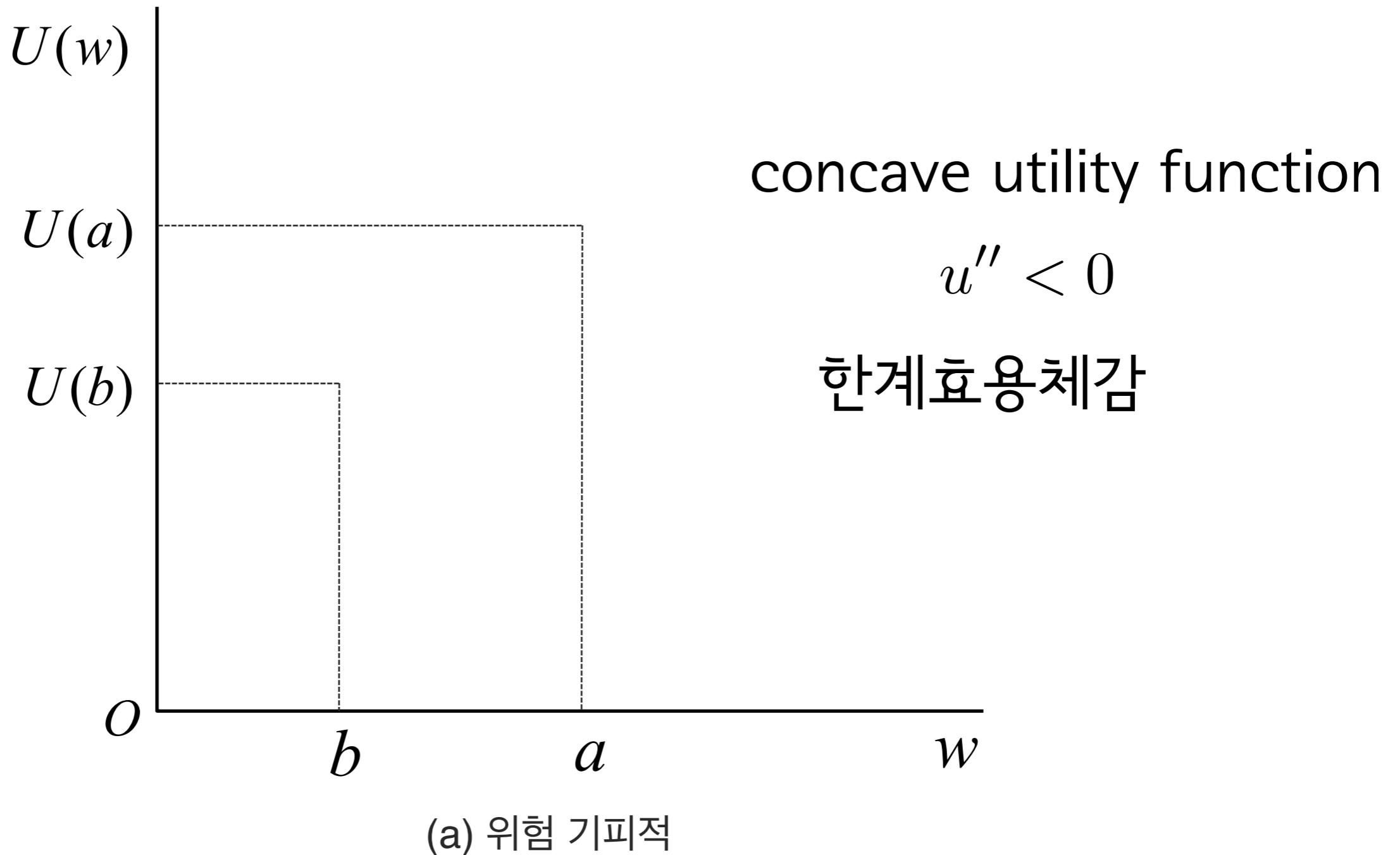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<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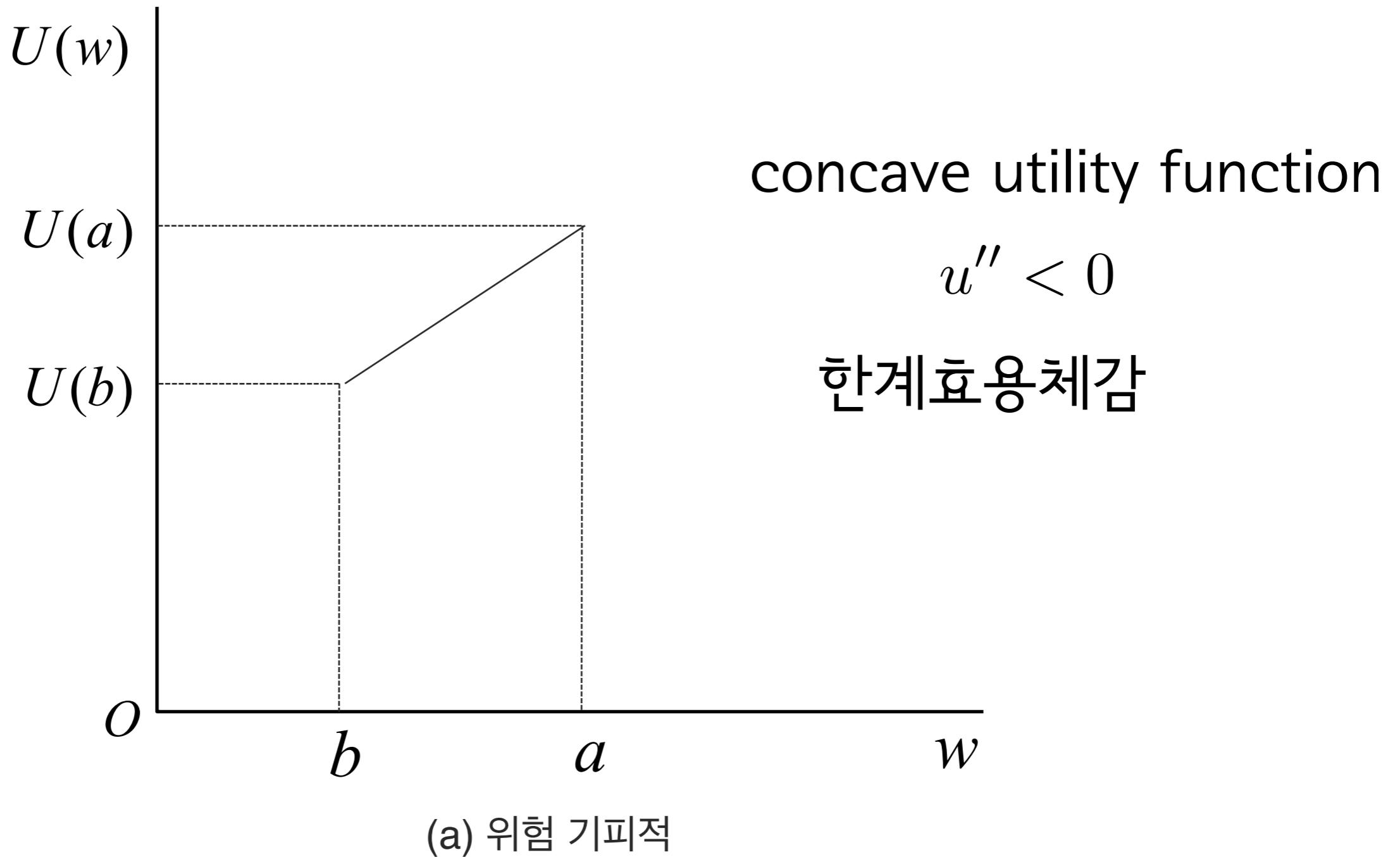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<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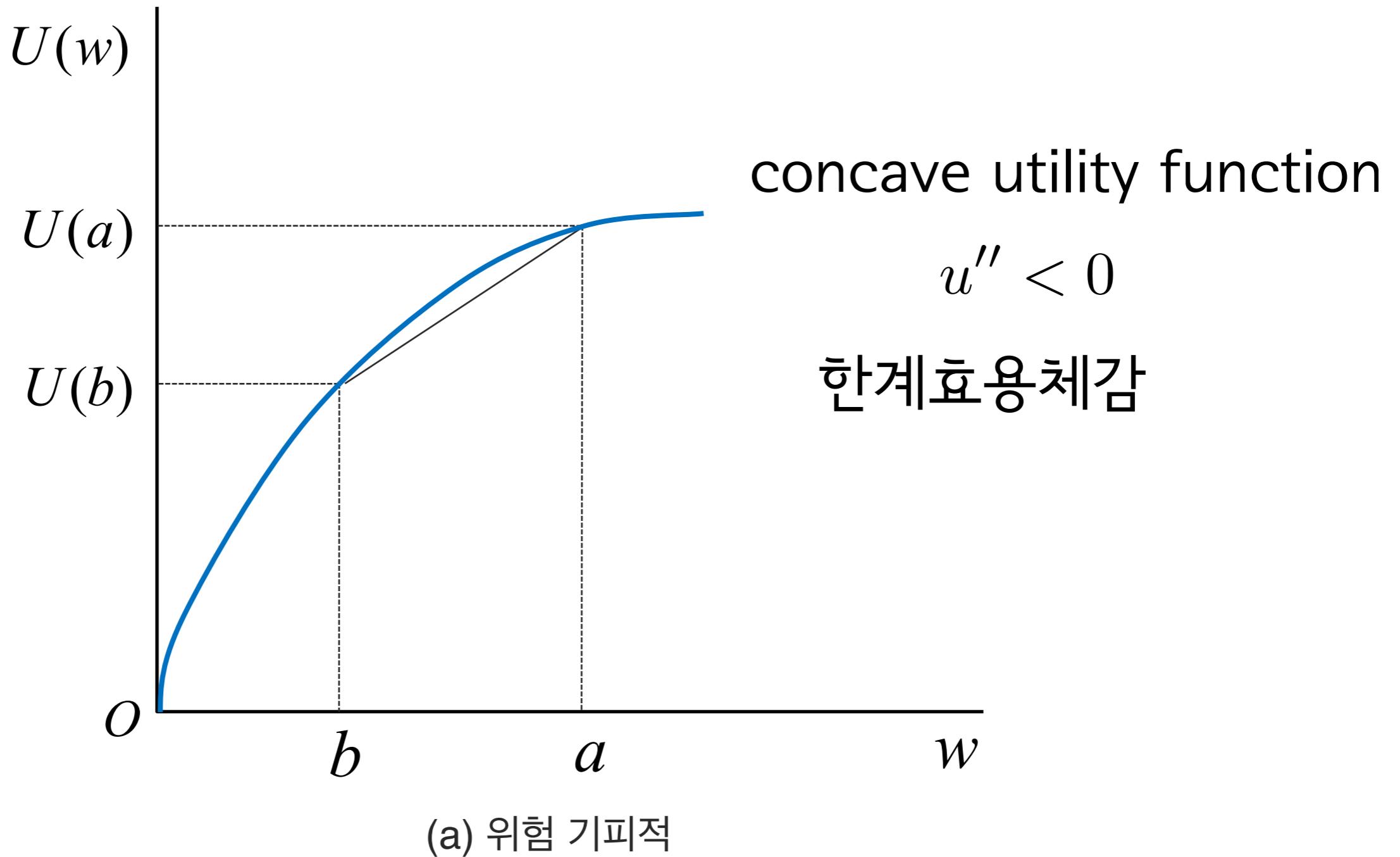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<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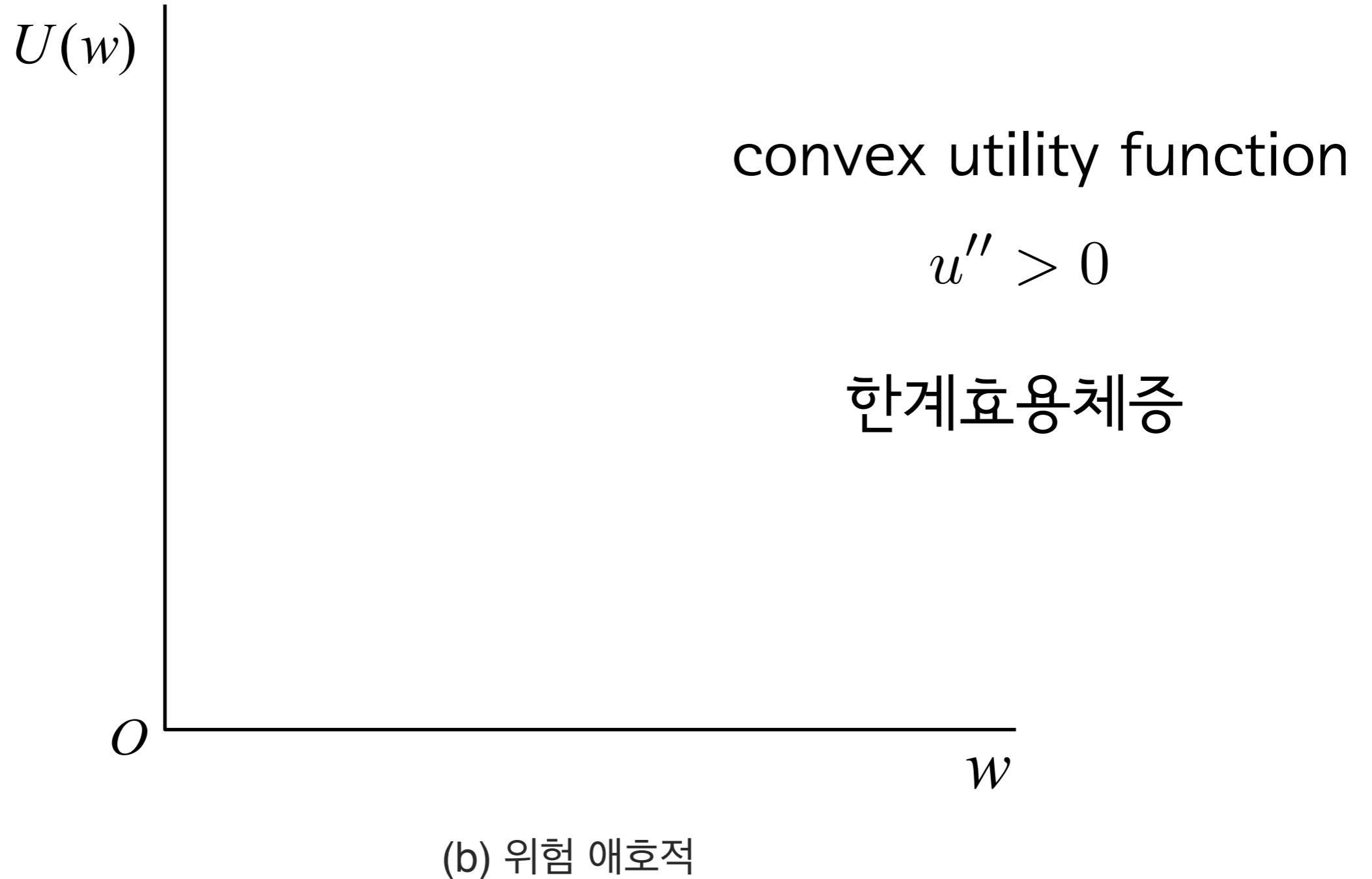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<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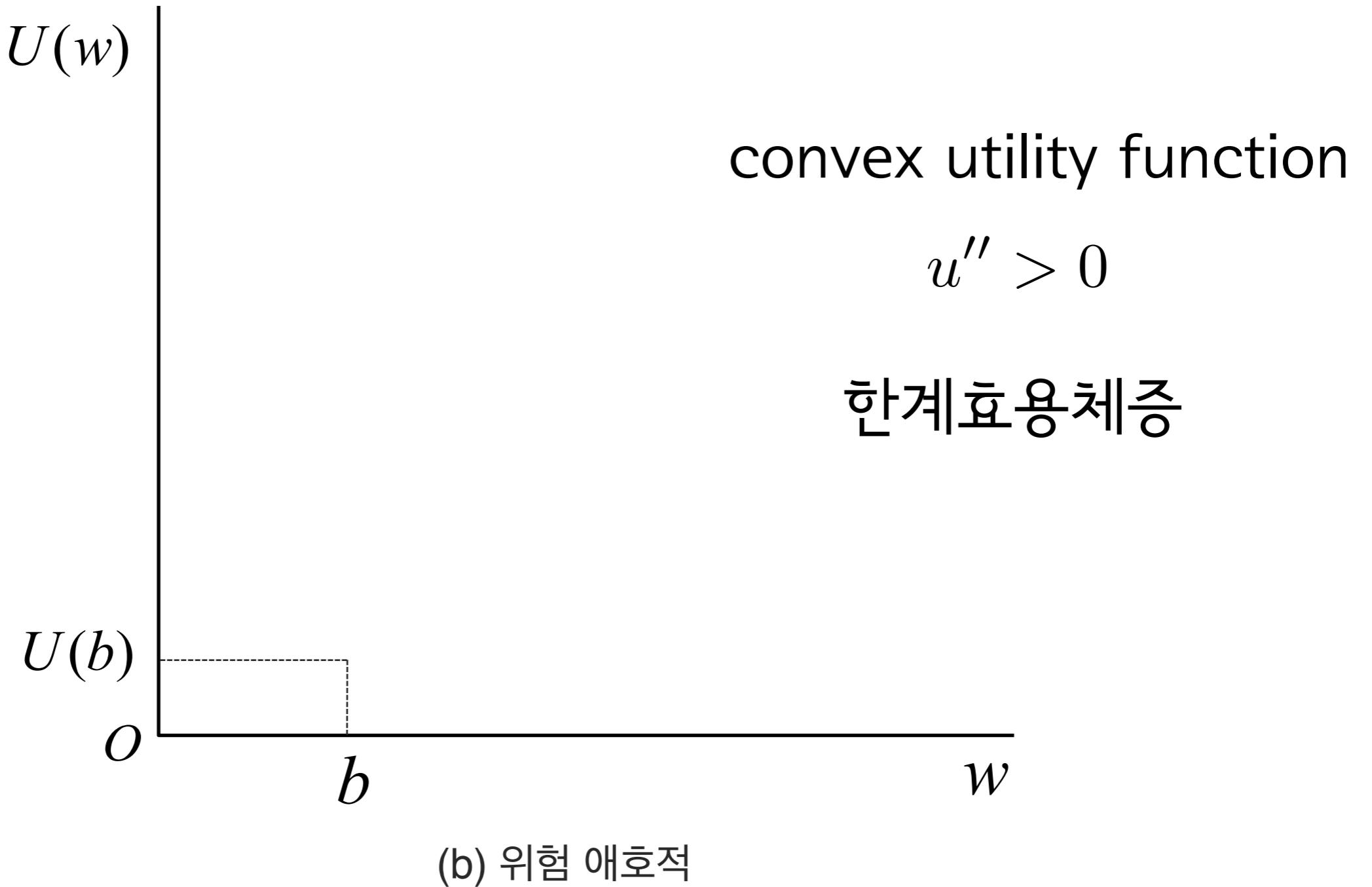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<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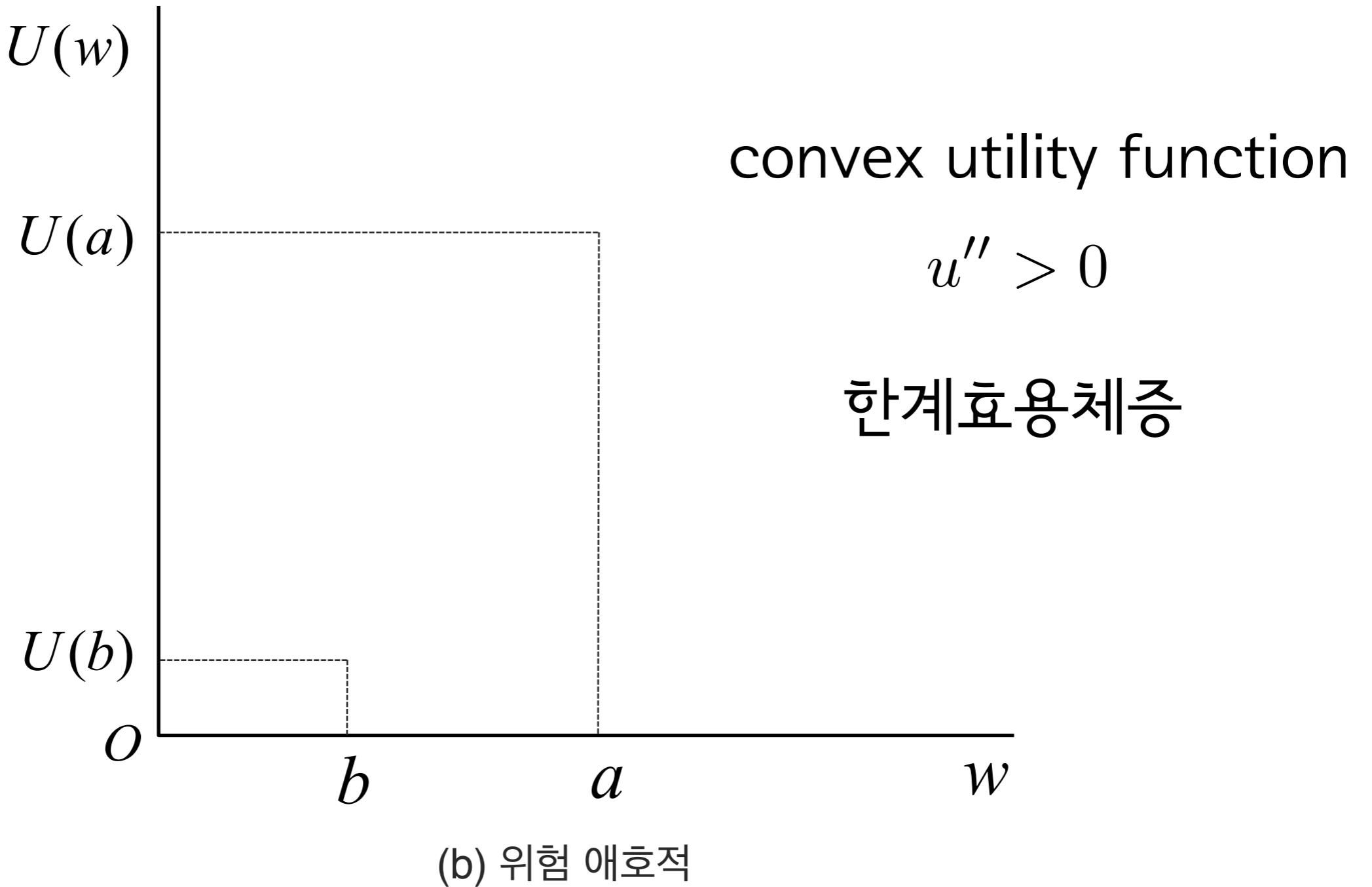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>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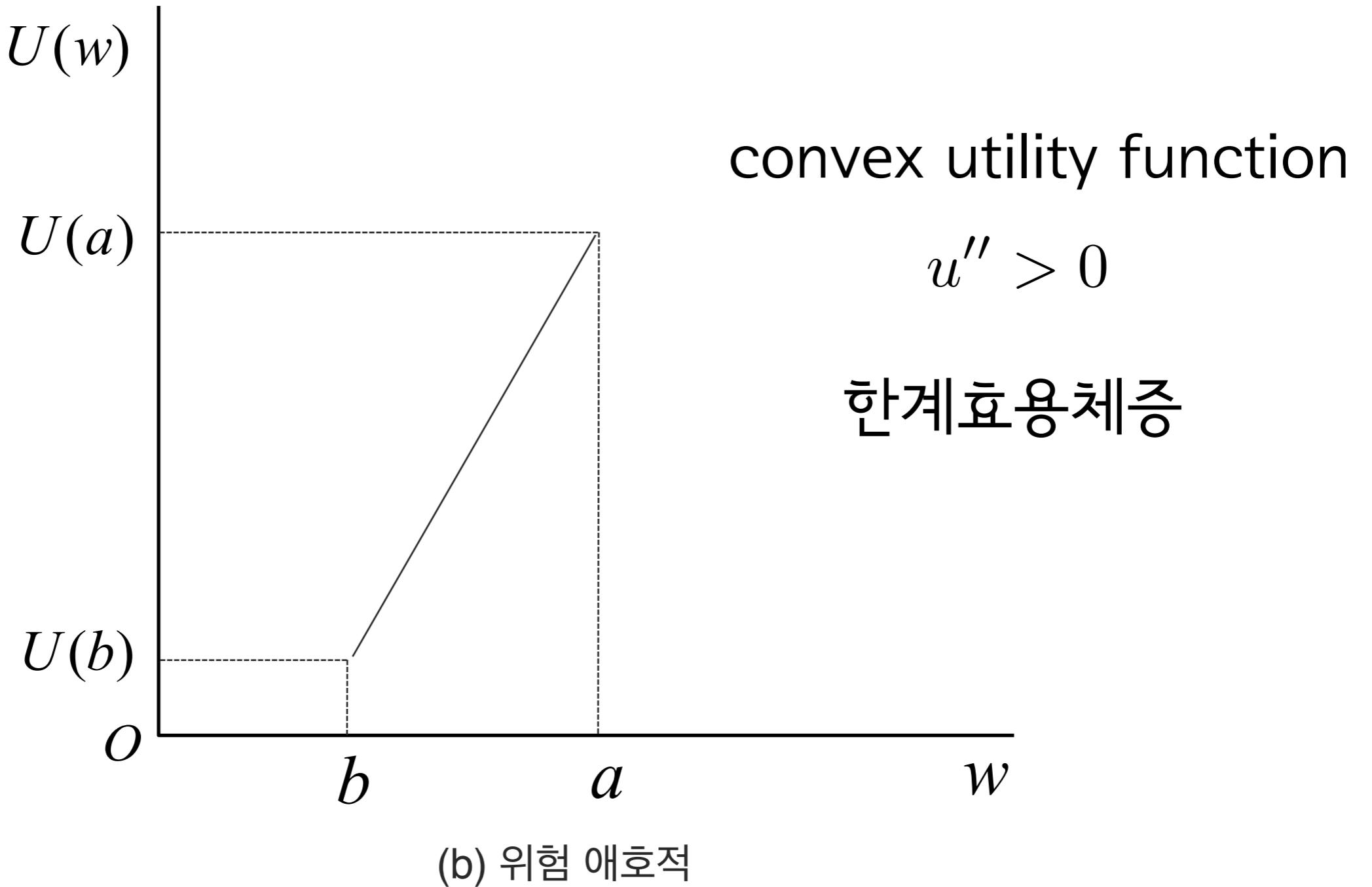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>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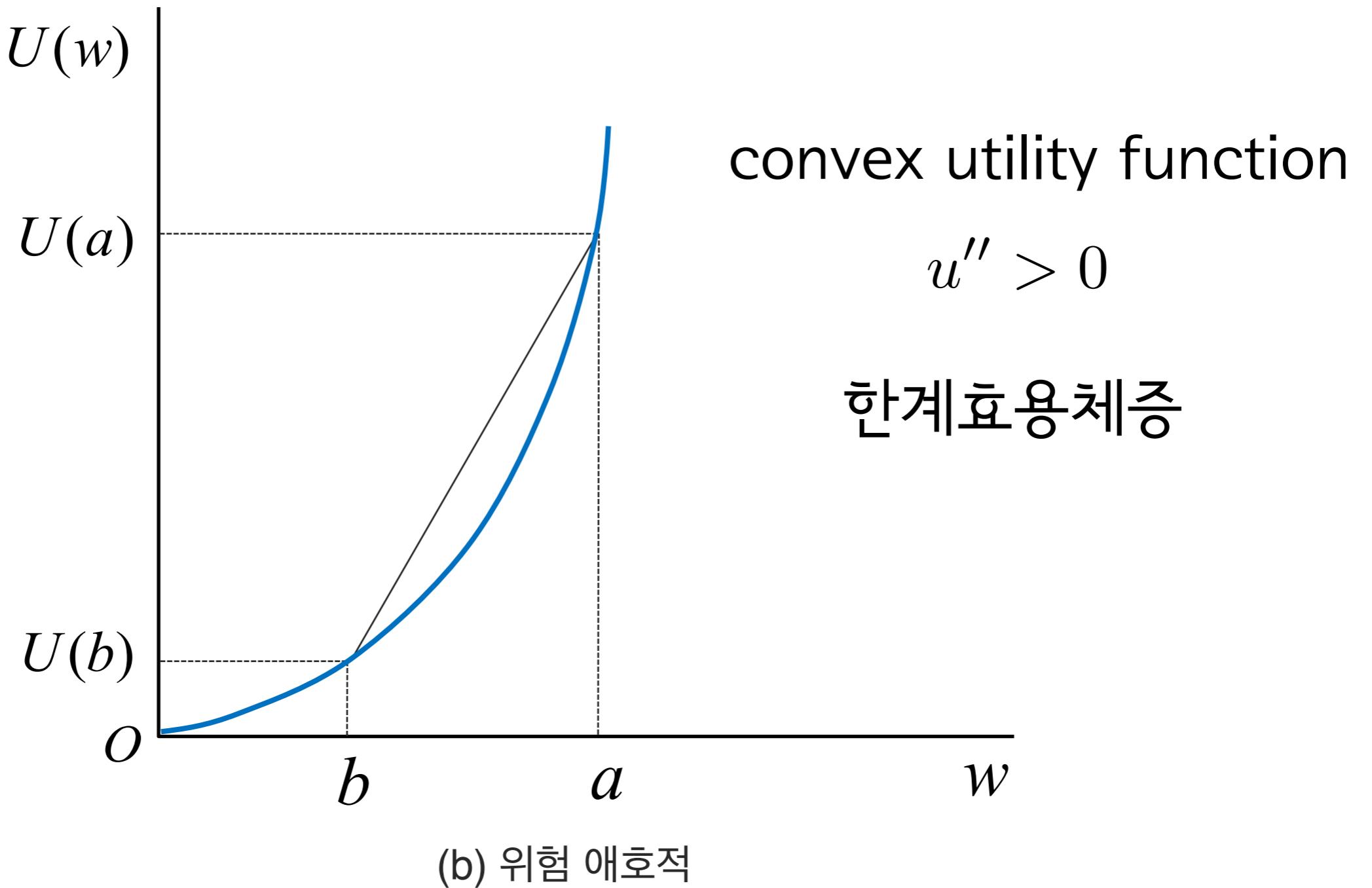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>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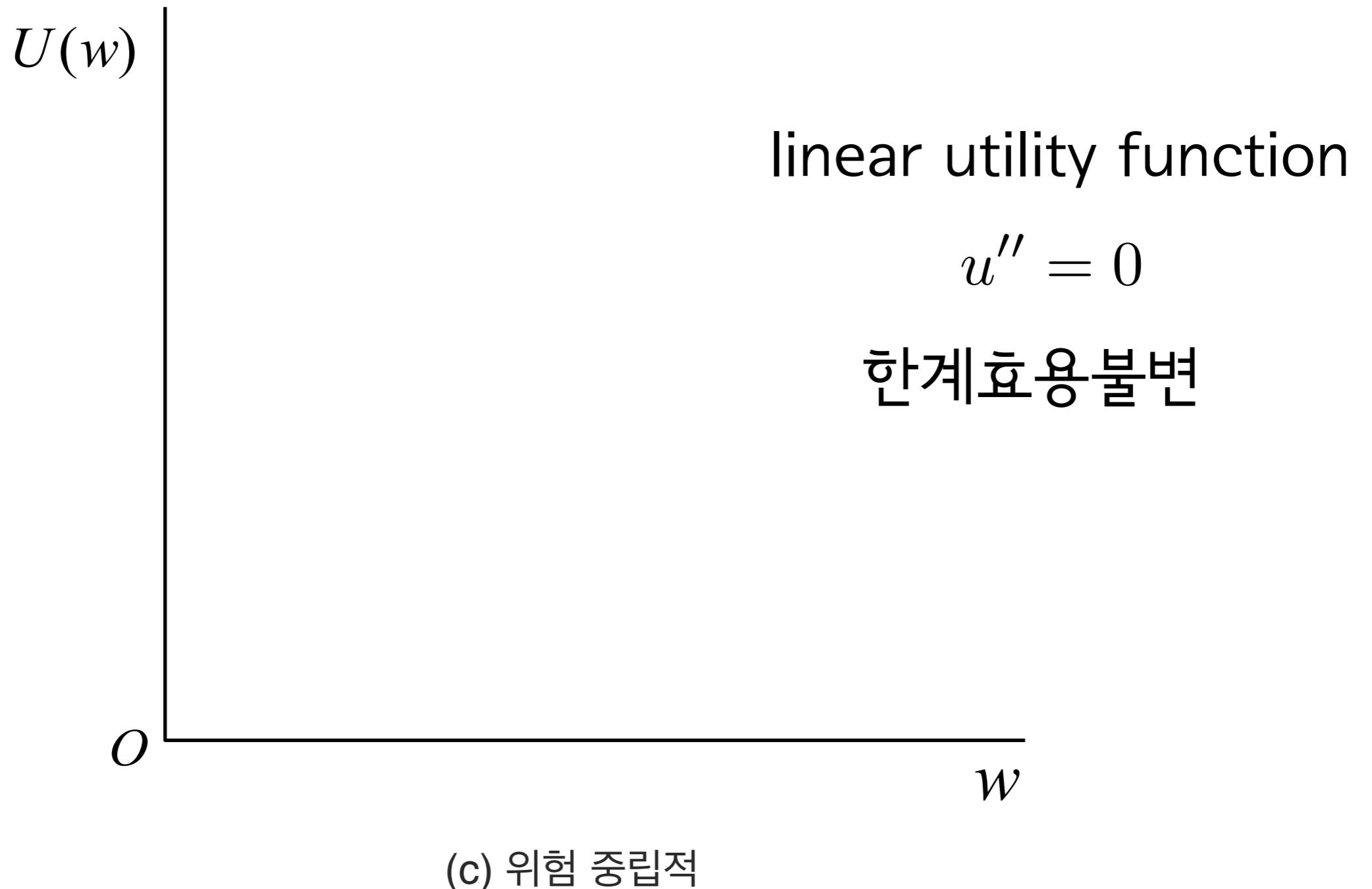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>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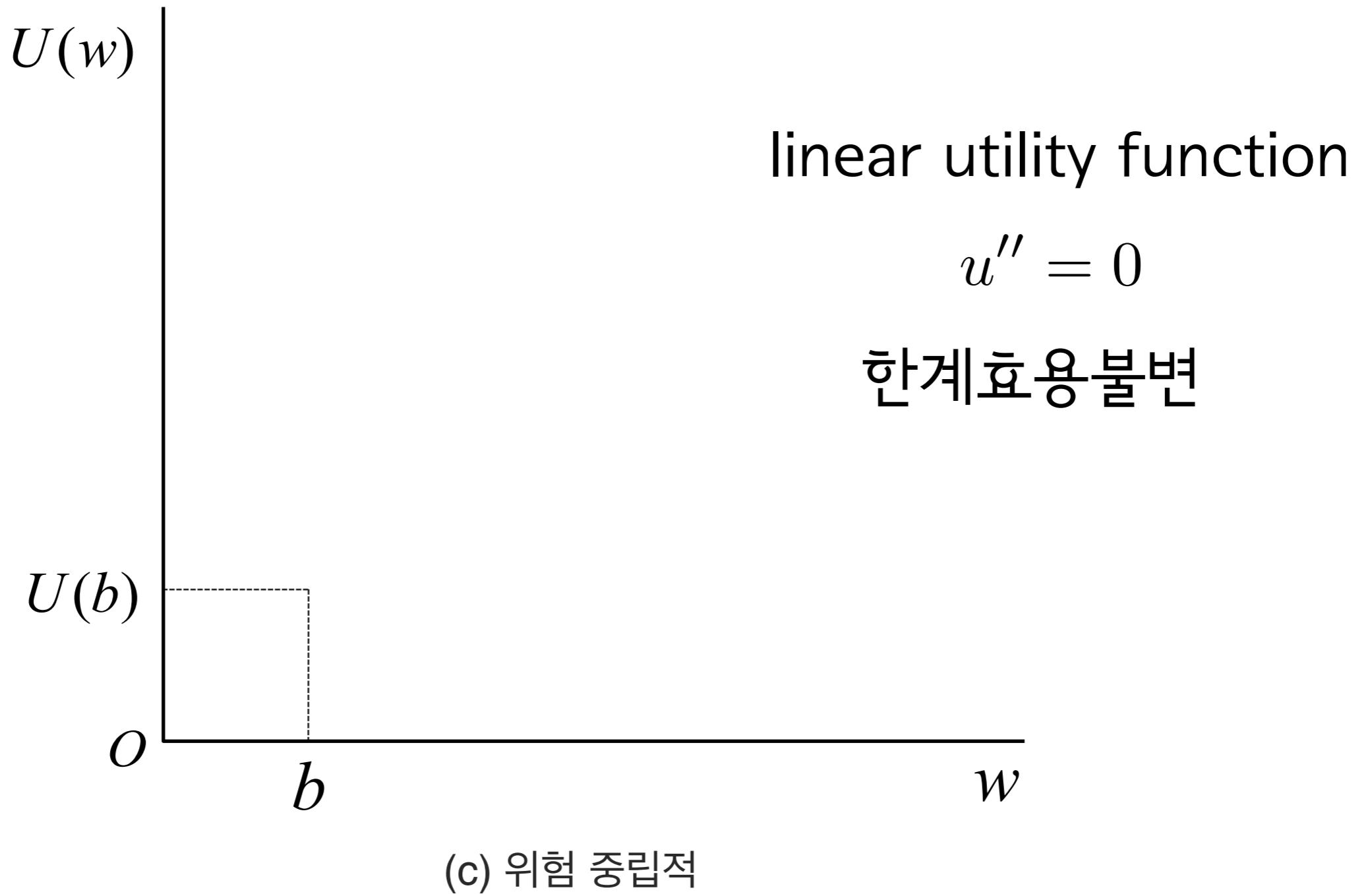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>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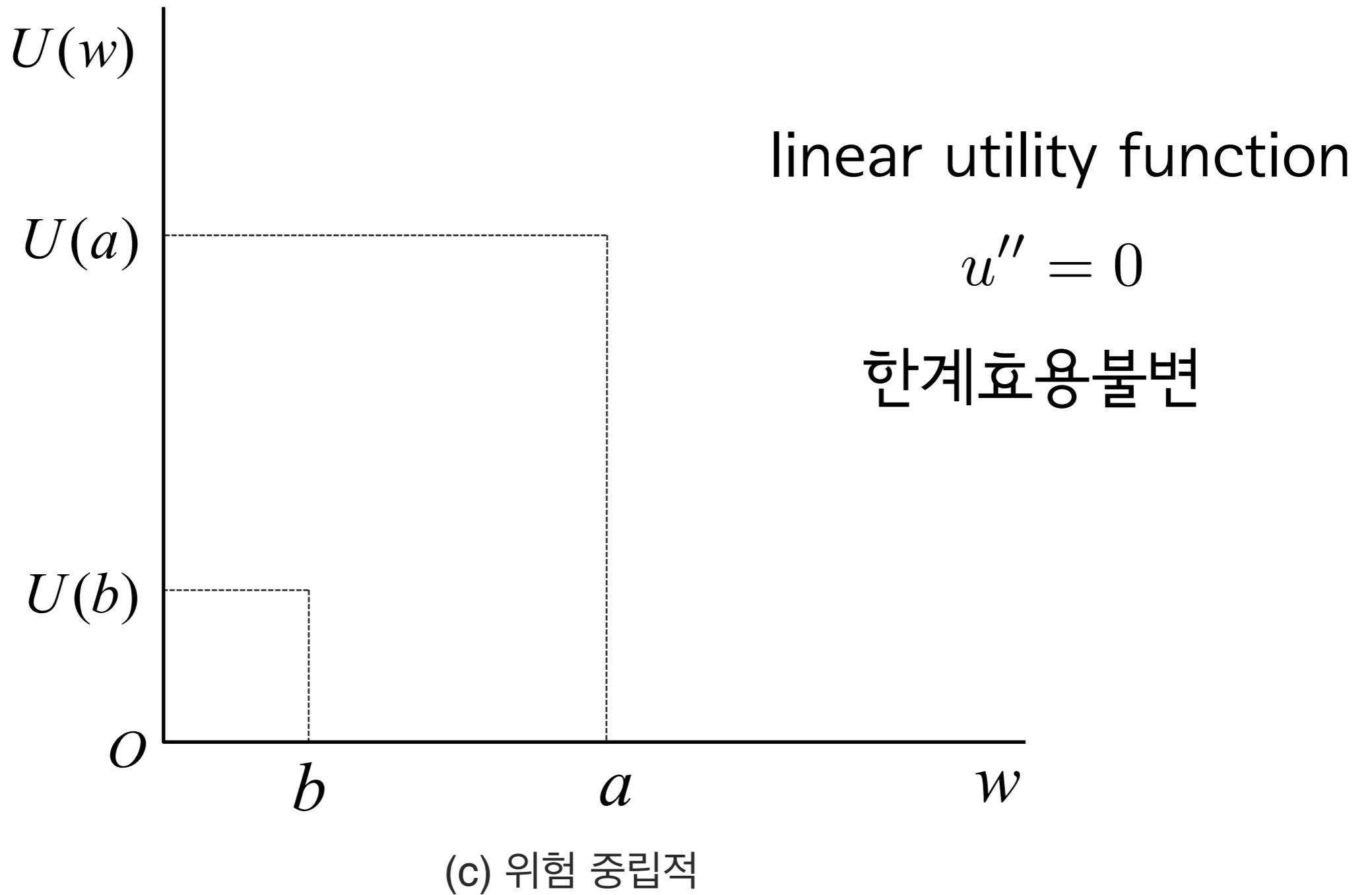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=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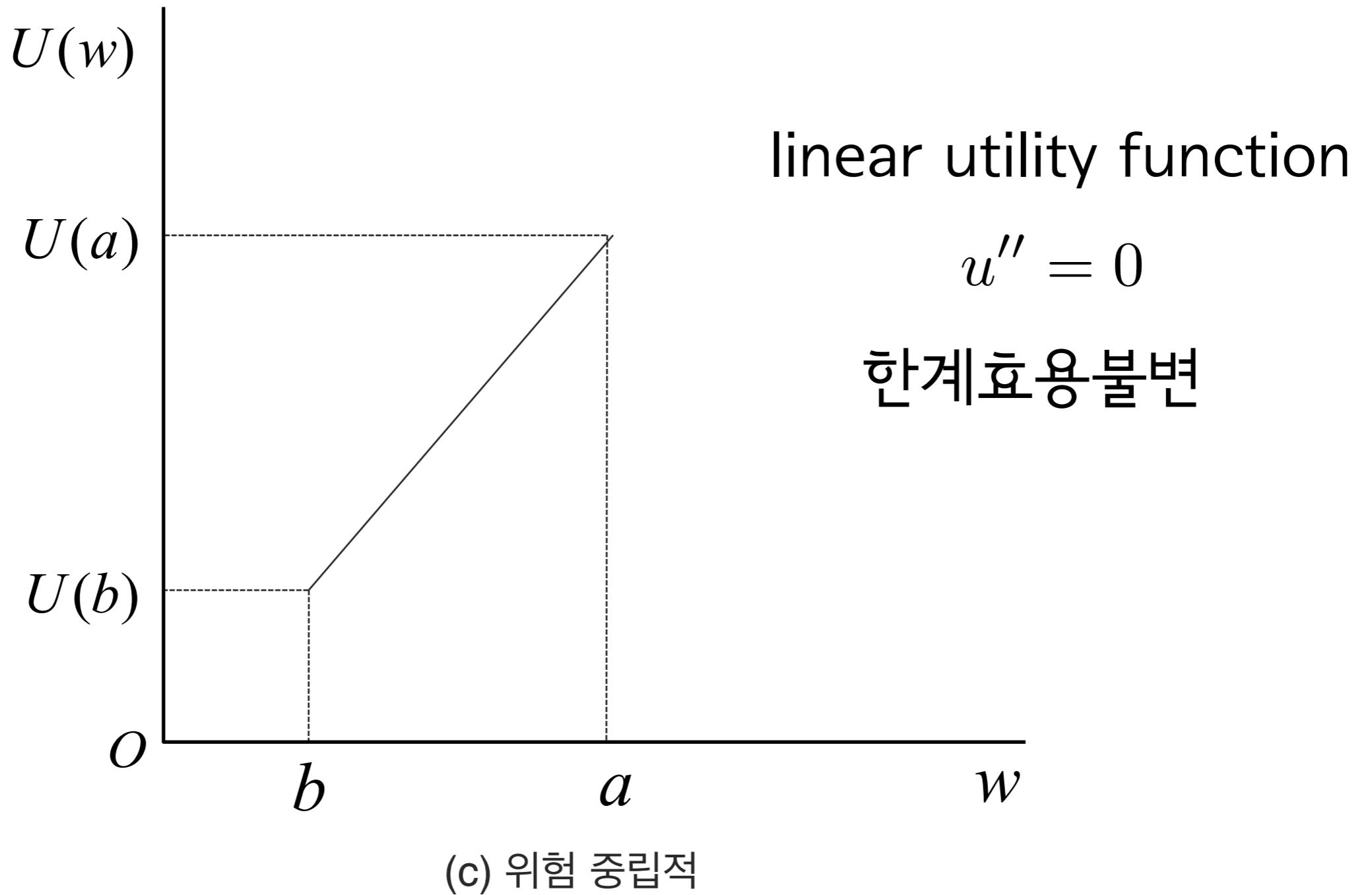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= u(ta + (1 - t)b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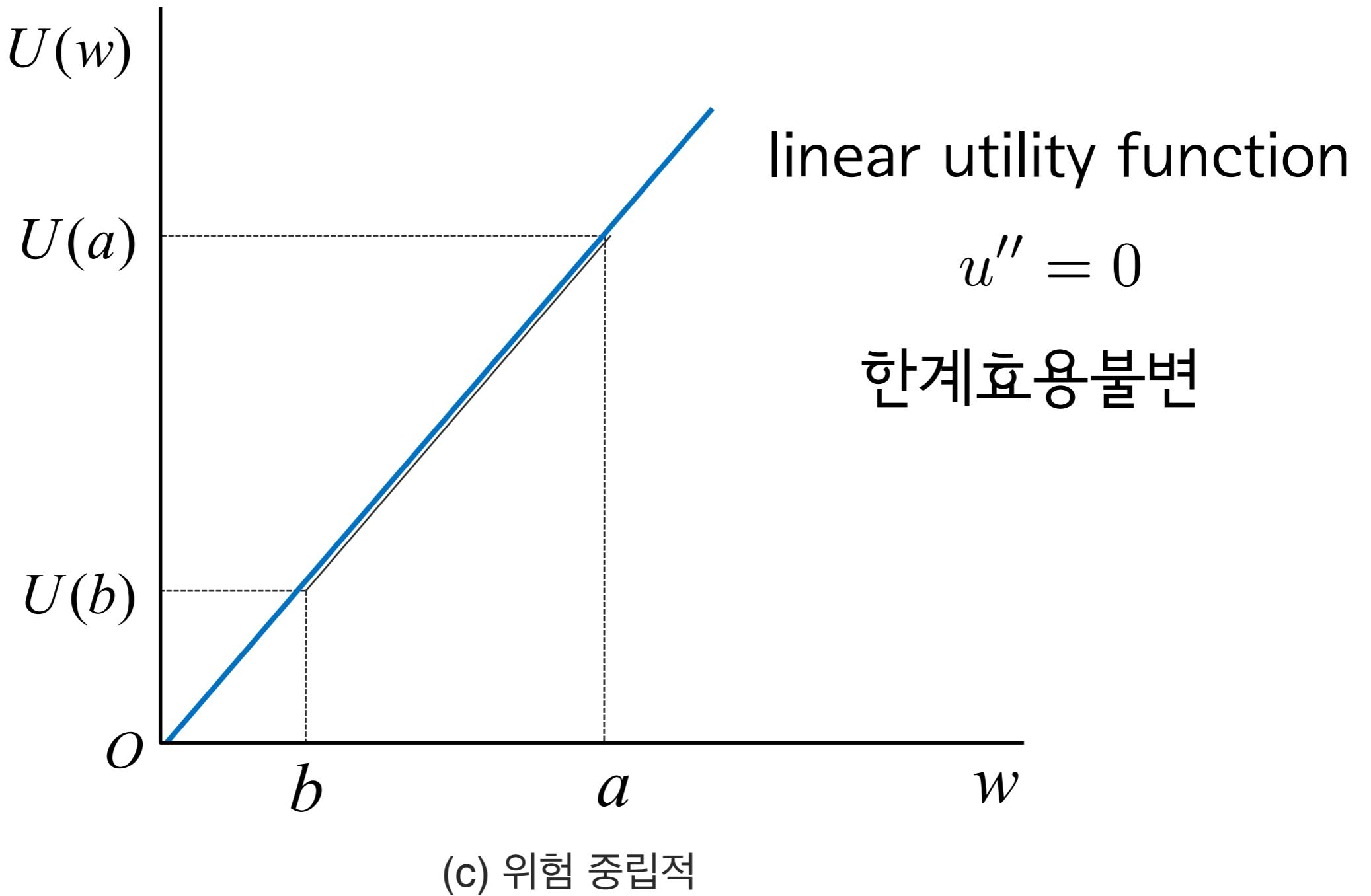
$$tu(a) + (1 - t)u(b) = u(ta + (1 - t)b)$$



$$tu(a) + (1 - t)u(b) = u(ta + (1 - t)b)$$



$$tu(a) + (1 - t)u(b) = u(ta + (1 - t)b)$$



# 위험의 모델화: 보험의 예 Model for Risk: Insurance

- 어떤 가정의 화재 발생 확률: 10%
- 두 가지 상태 존재 가능
  - 화재 미발생(90%): 비용 0
  - 화재 발생(10%): 비용 1억원

# 기대값

- 화재로 인한 비용  $F$ : 확률변수
  - 가능상태: 화재경우(1):1억원, 아닌경우(2):0원
  - 확률분포: (1): 10%/년, (2): 90%/년
- $$E(F) = 0.1 * 100,000,000 + 0.9 * 0 = 10,000,000$$

# 화재위험 문제

- 연간 화재비용의 기대값: 연 1000만원
- 미리 1억을 준비해 두는 것부터 매년 1000만원 씩 저축하는 것 등 어떤 조합도 불확실한 화재 비용을 대비할 수 없음

# 화재보험 계약

# Contract of Fire Insurance

- 화재비용  $F$ 의 연간 기대값:  $E(F)=1000\text{만원}/\text{년}$
- 어떤 기업(보험사)이 매년 1000만원을 받는 대신 화재 발생시 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 제안
- 실제로는 보험료가  $E(F)$ 인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거래가 성립. Why?

# 기대소득, 기대효용

## Expected Income, Expected Utility

- 추가적 가정: 화재가 없을 경우의 소득: 연 1억원
  - 기대소득: 화재확률\*화재시소득+미화재확률\*미화재시소득  
 $E(\text{소득}) = 0.1*(10000-10000) + 0.9*10000 = 9000$
  - 효용:  $U(\text{소득})$ 
    - 소득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효용함수값
  - 기대소득효용:  $U(E(\text{소득}))$ 
    - **기대효용:  $E(U(\text{소득}))$ : 화재확률\*화재시소득의효용+미화재확률\*미화재시소득의효용**
    - $E(U(\text{소득}))$   
 $= 0.1*U(10000-10000) + 0.9*U(10000)$

# 일반적 효용체계

# 일반적 효용체계

소득(천만원)
0
1
2
3
4
5
6
7
8
9
10

# 일반적 효용체계

소득(천만원)	TU(util)
0	0
1	32
2	62
3	90
4	116
5	140
6	162
7	182
8	200
9	216
10	230

# 일반적 효용체계

소득(천만원)	TU(util)	MU(util/천만원)
0	0	32
1	32	30
2	62	28
3	90	26
4	116	24
5	140	22
6	162	20
7	182	18
8	200	16
9	216	14
10	230	12

# 일반적 효용체계

화재시

소득(천만원)	TU(util)	MU(util/천만원)
0	0	32
1	32	30
2	62	28
3	90	26
4	116	24
5	140	22
6	162	20
7	182	18
8	200	16
9	216	14
10	230	12

# 일반적 효용체계

화재시

소득(천만원)	TU(util)	MU(util/천만원)
0	0	32
1	32	30
2	62	28
3	90	26
4	116	24
5	140	22
6	162	20
7	182	18
8	200	16
9	216	14
10	230	12

평상시

# 일반적 효용체계

화재시

소득(천만원)	TU(util)	MU(util/천만원)
0	0	32
1	32	30
2	62	28
3	90	26
4	116	24
5	140	22
6	162	20
7	182	18
8	200	16
9	216	14
10	230	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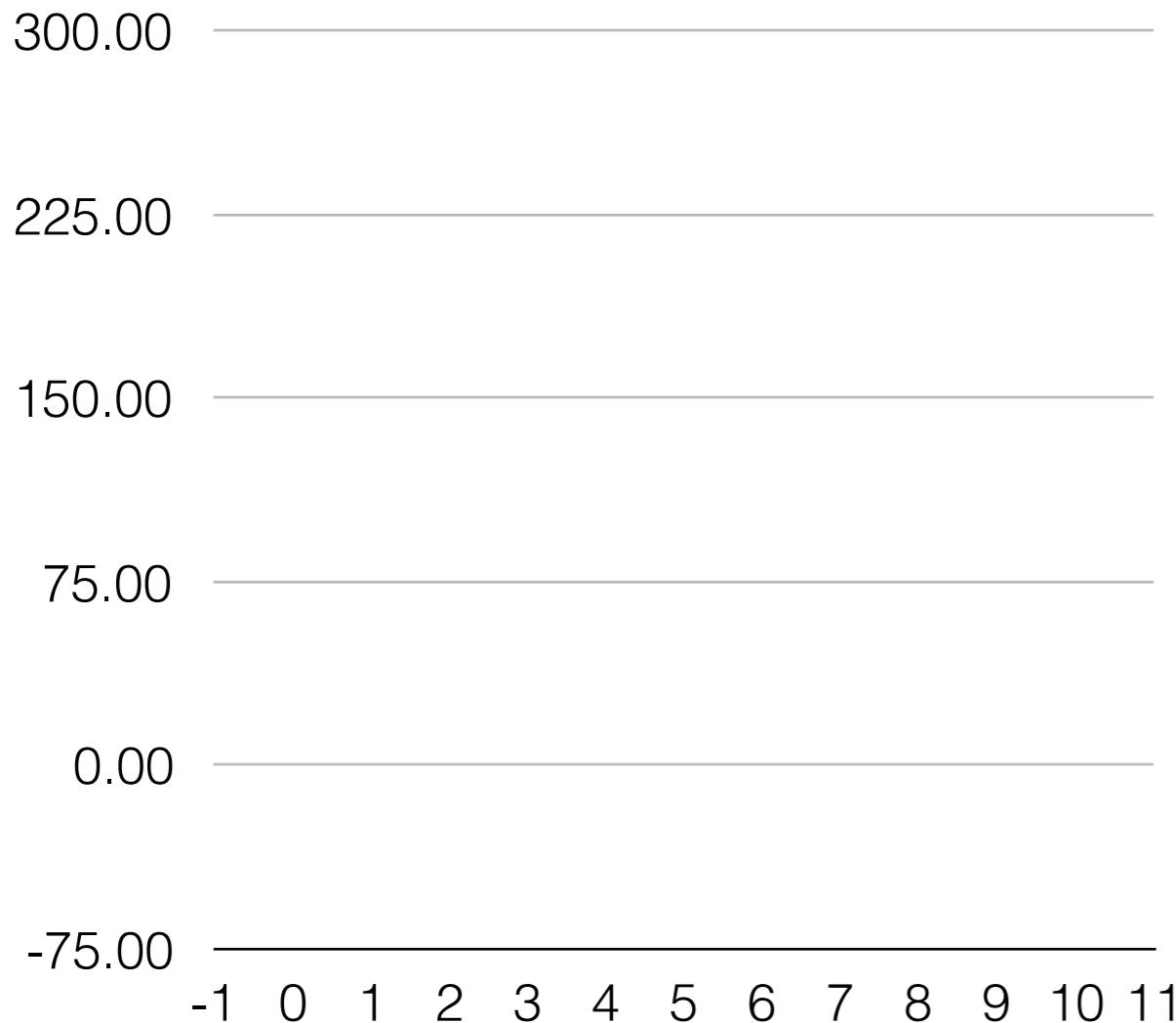
평상시

특징:  
한계효용  
(MU) 체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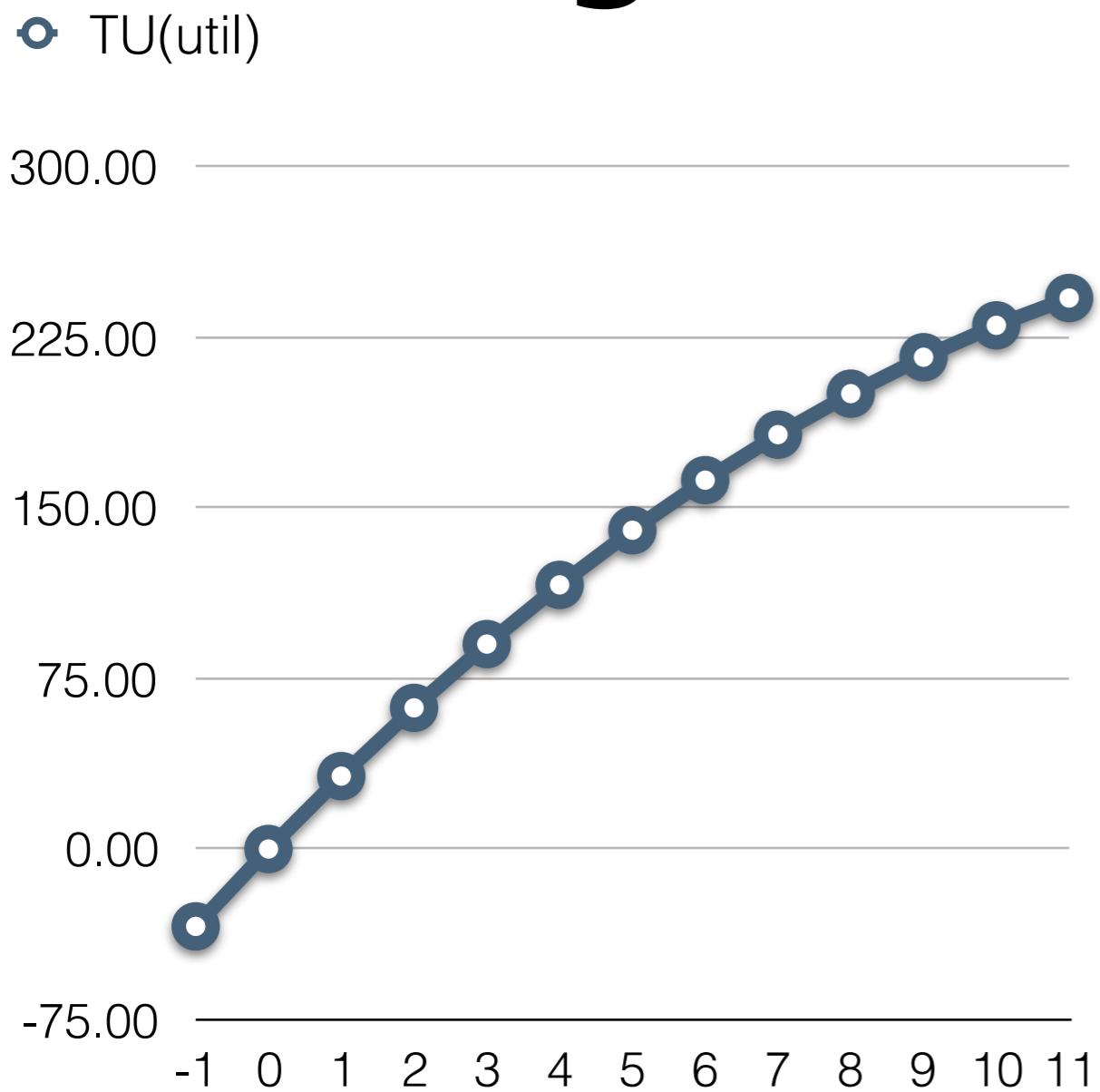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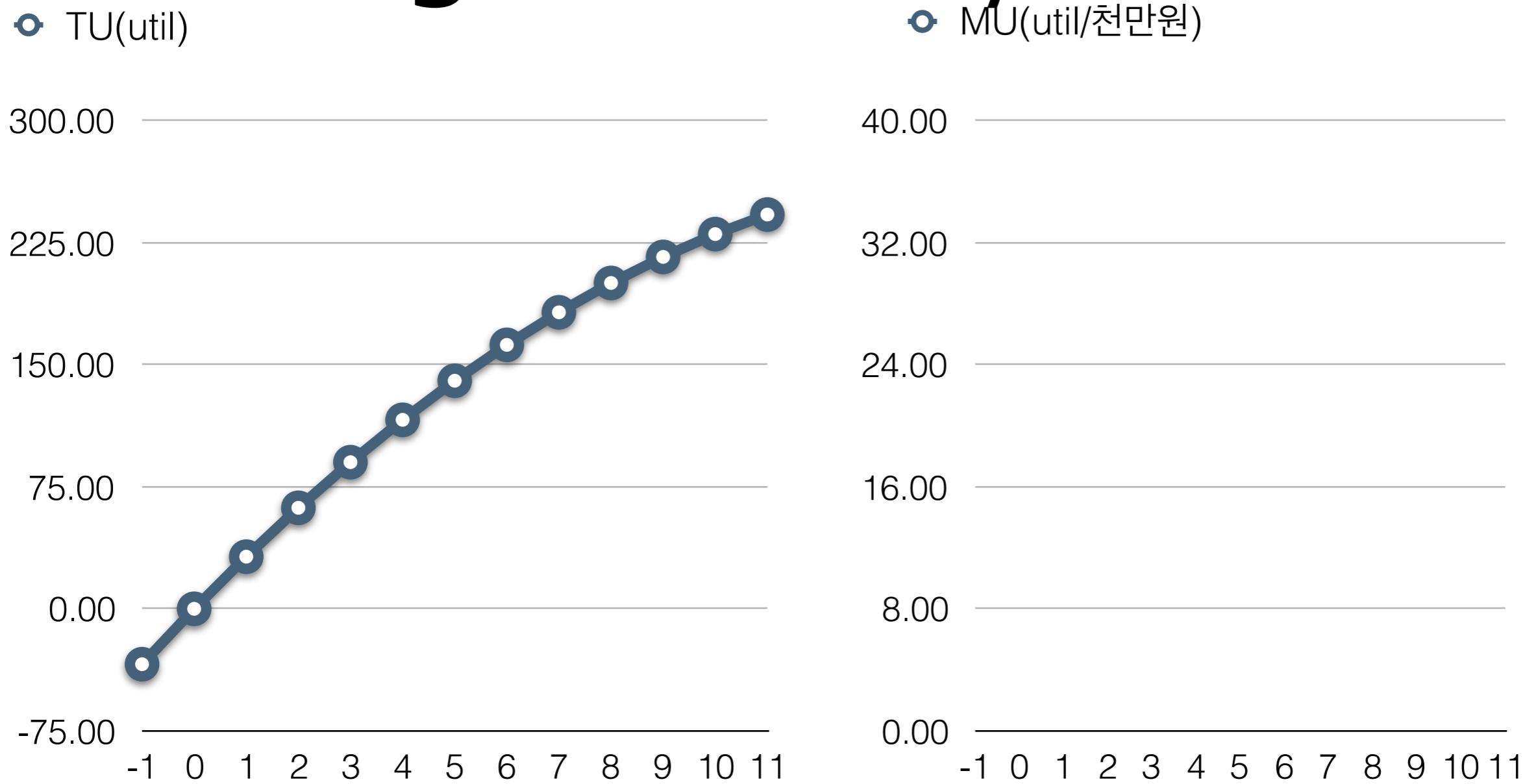
- TU(util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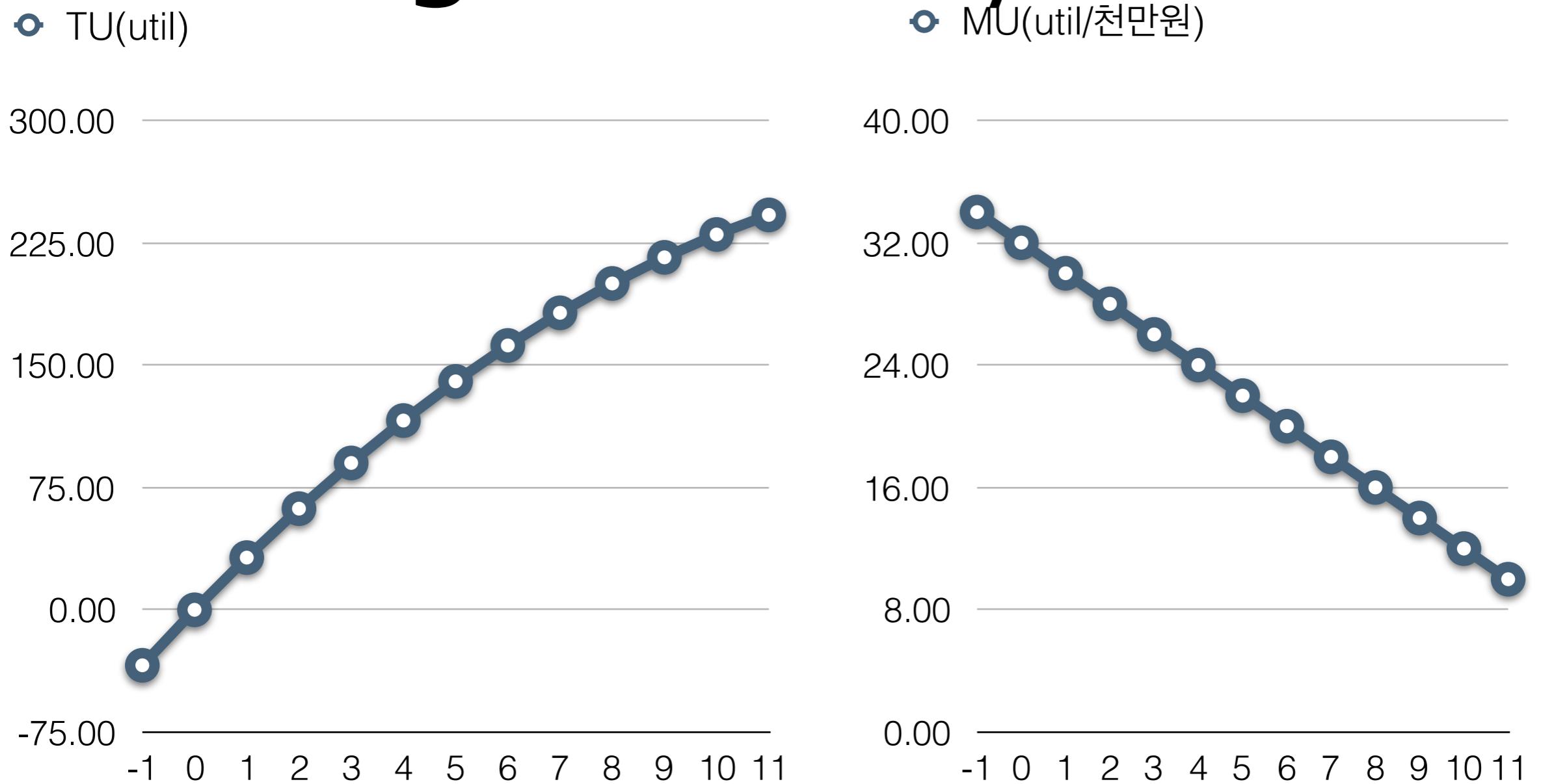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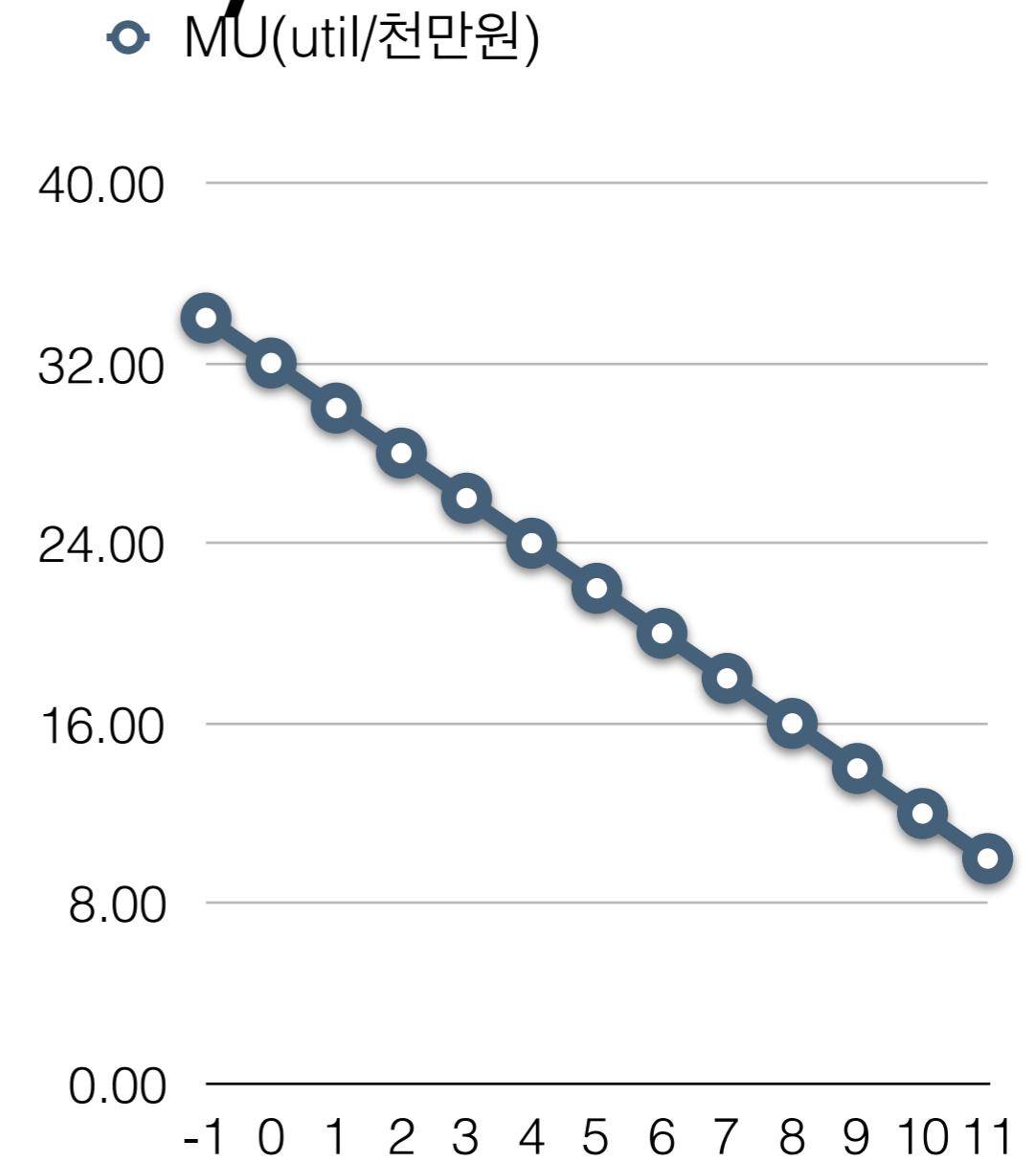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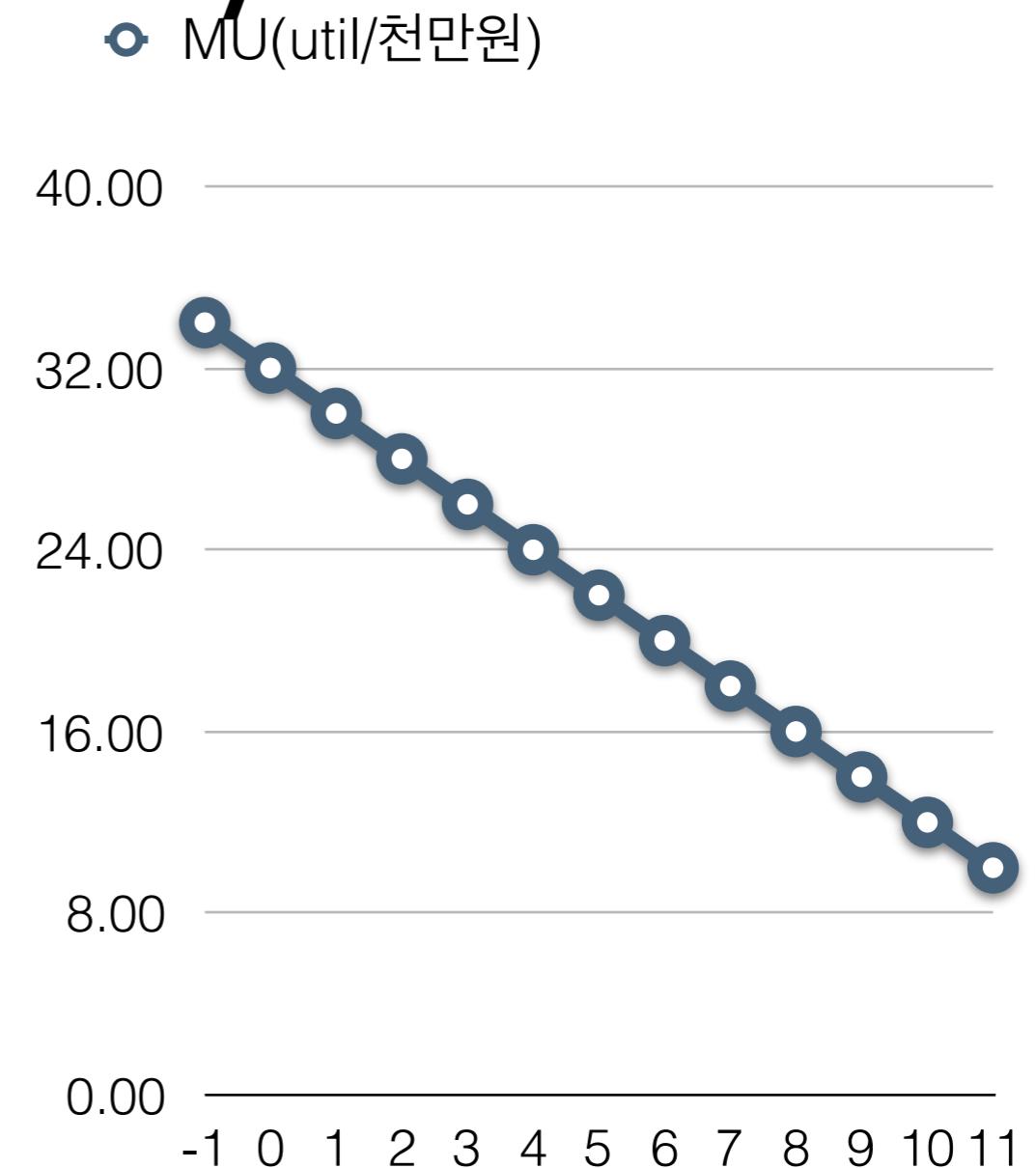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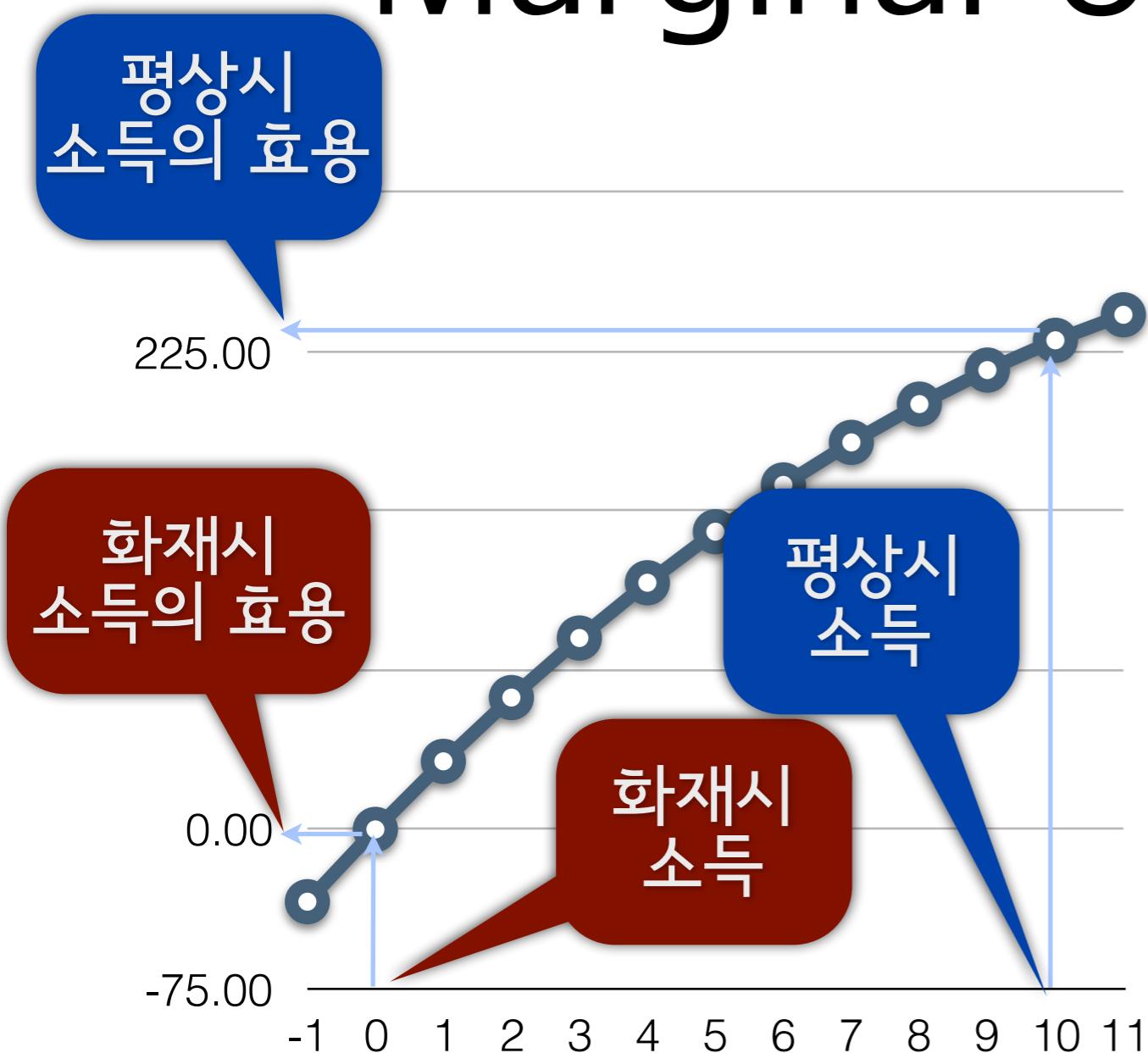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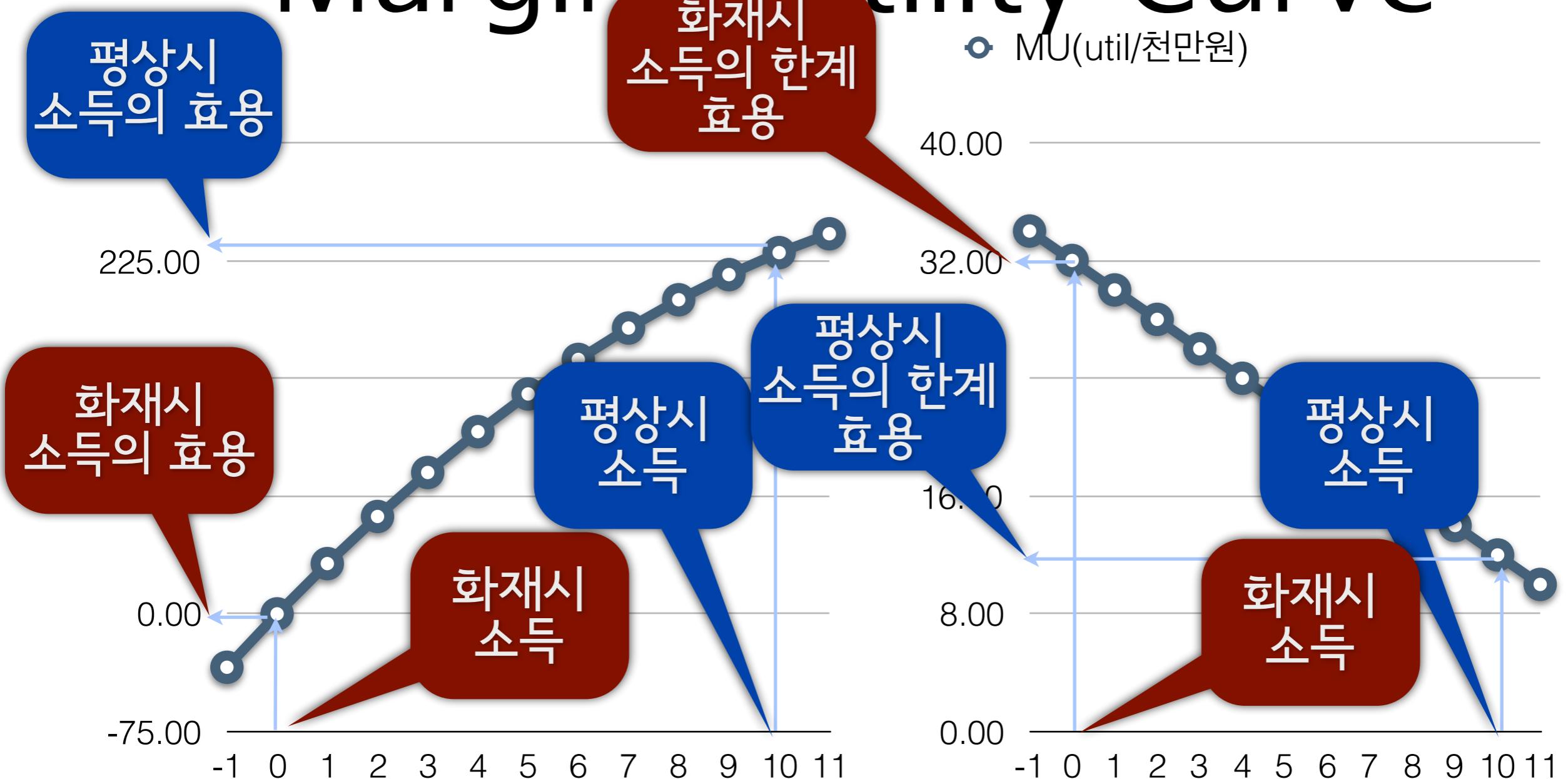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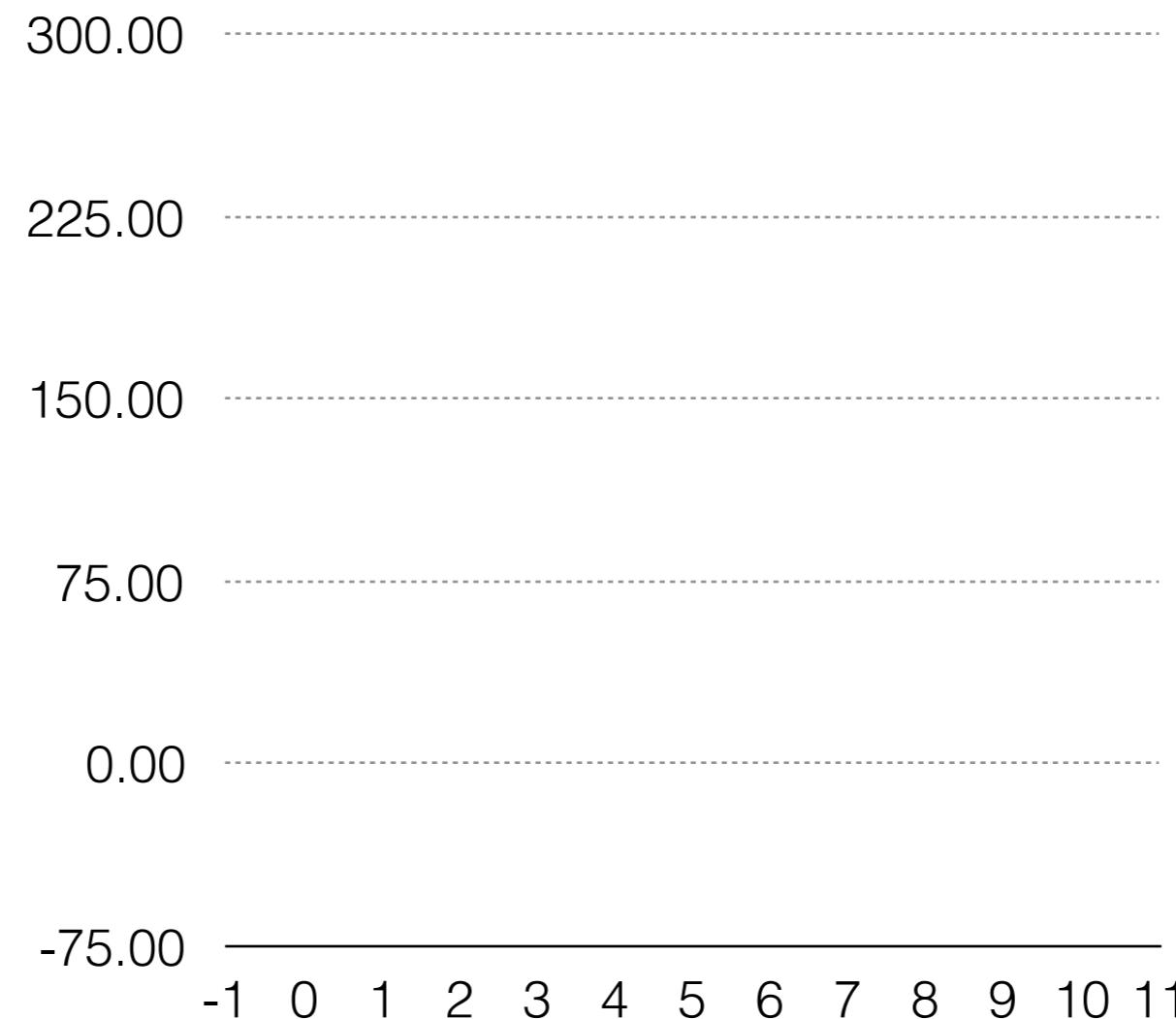
# Total Utility, Marginal Utility Curve



# 한계효용체감과 위험기피성향 Diminishing MU & Risk Averse Proper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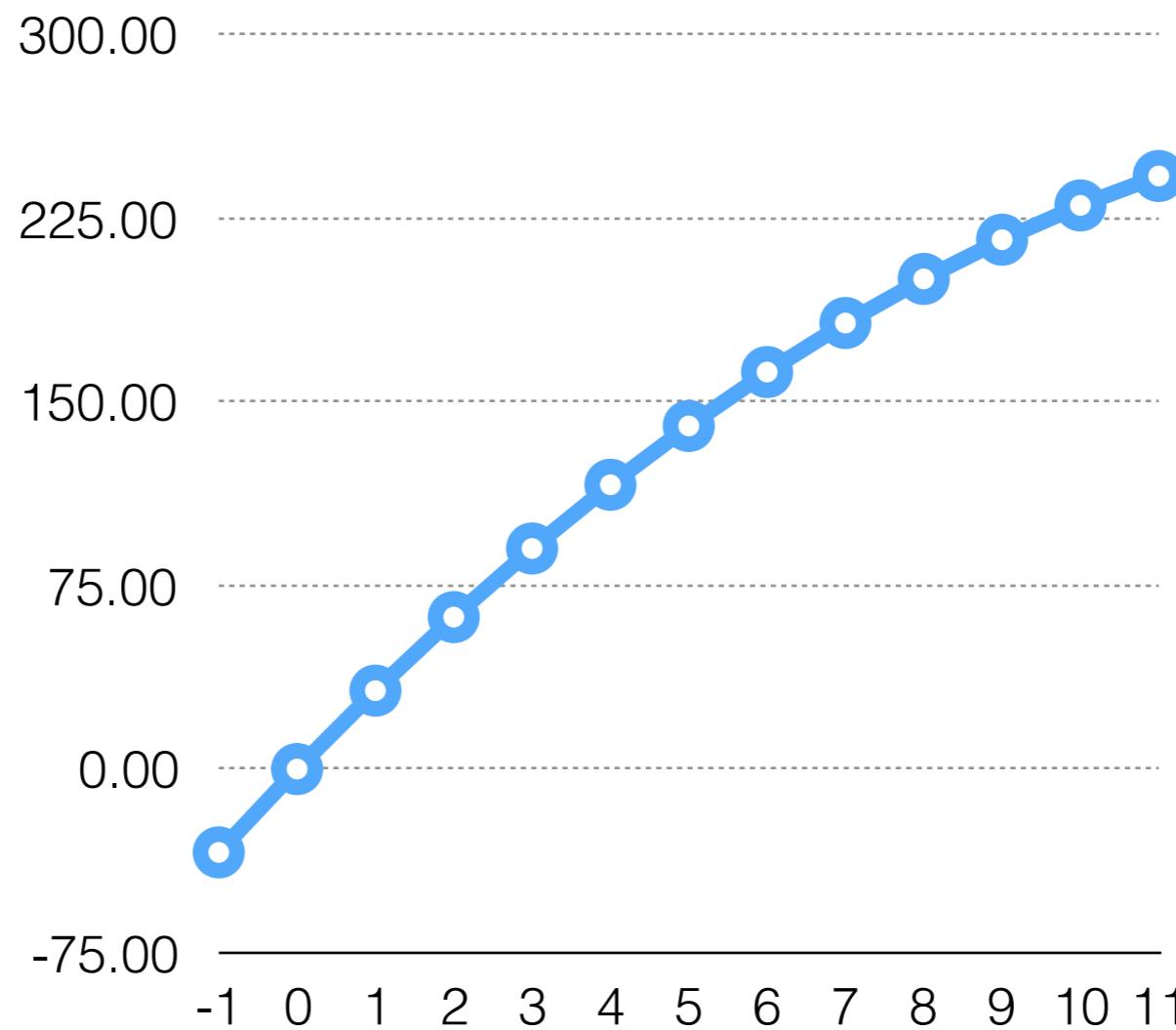
# 한계효용체감과 위험기피성향 Diminishing MU & Risk Averse Property

● TU(uti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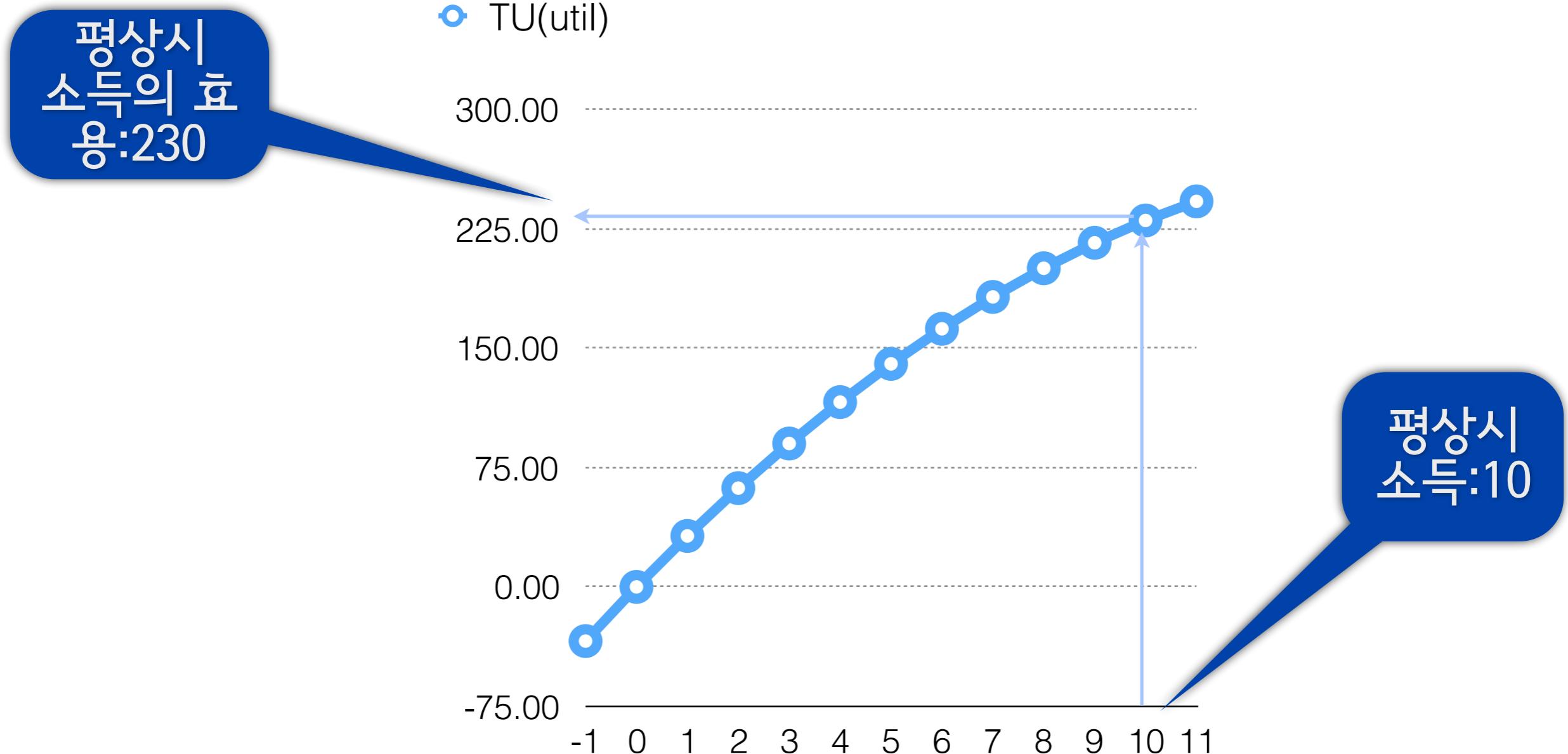


# 한계효용체감과 위험기피성향 Diminishing MU & Risk Averse Proper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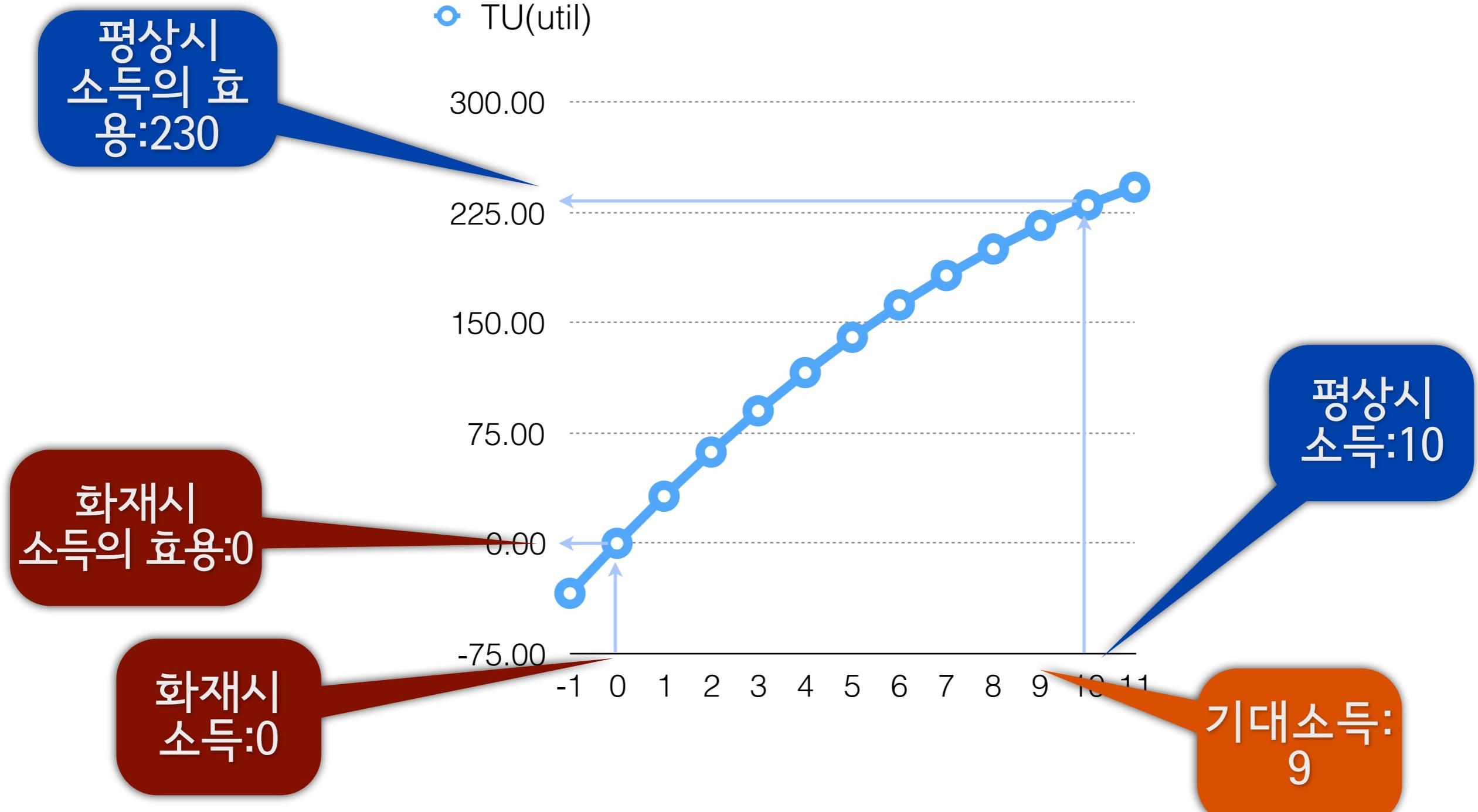
● TU(util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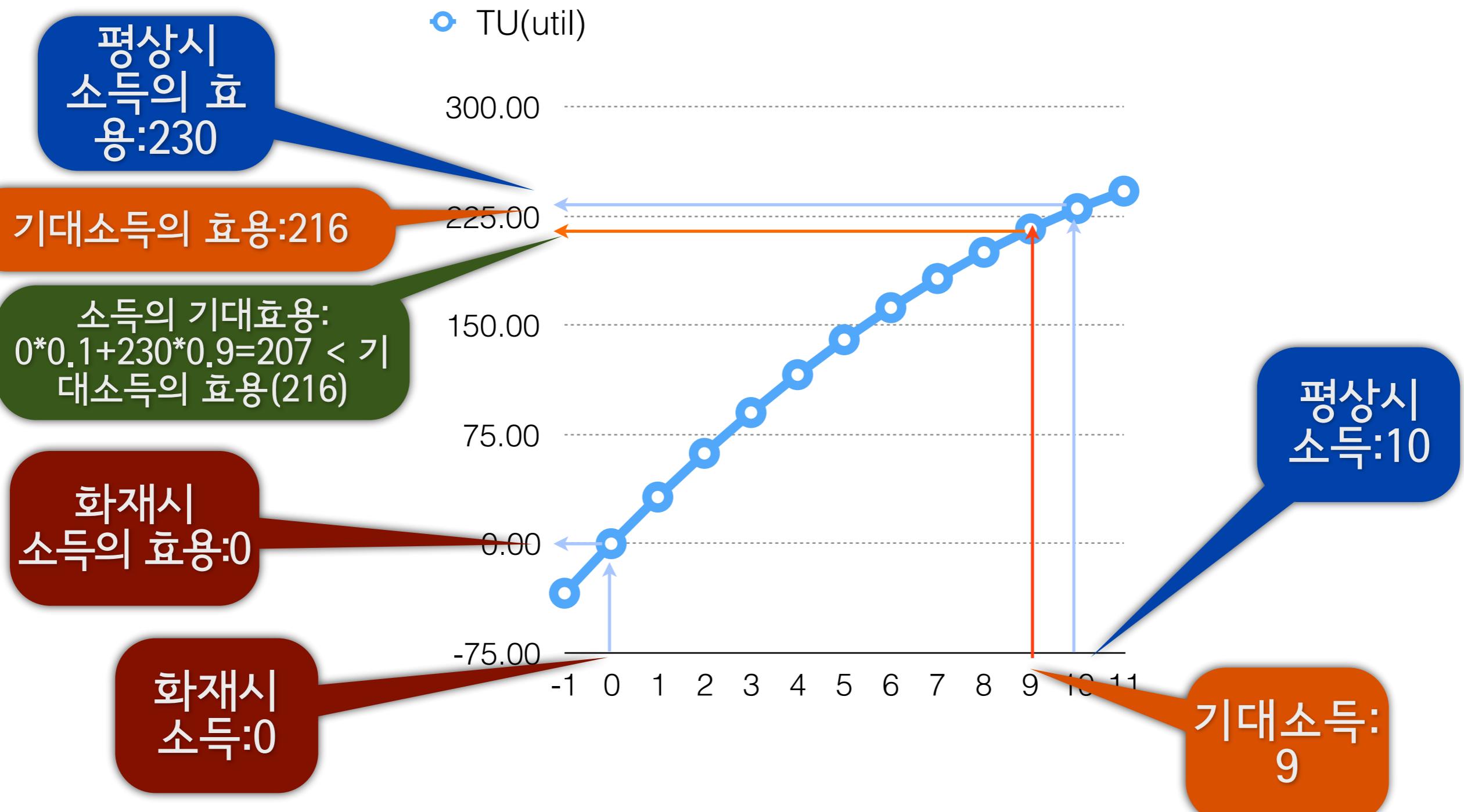
# 한계효용체감과 위험기피성향 Diminishing MU & Risk Averse Property



# 한계효용체감과 위험기피성향 Diminishing MU & Risk Averse Proper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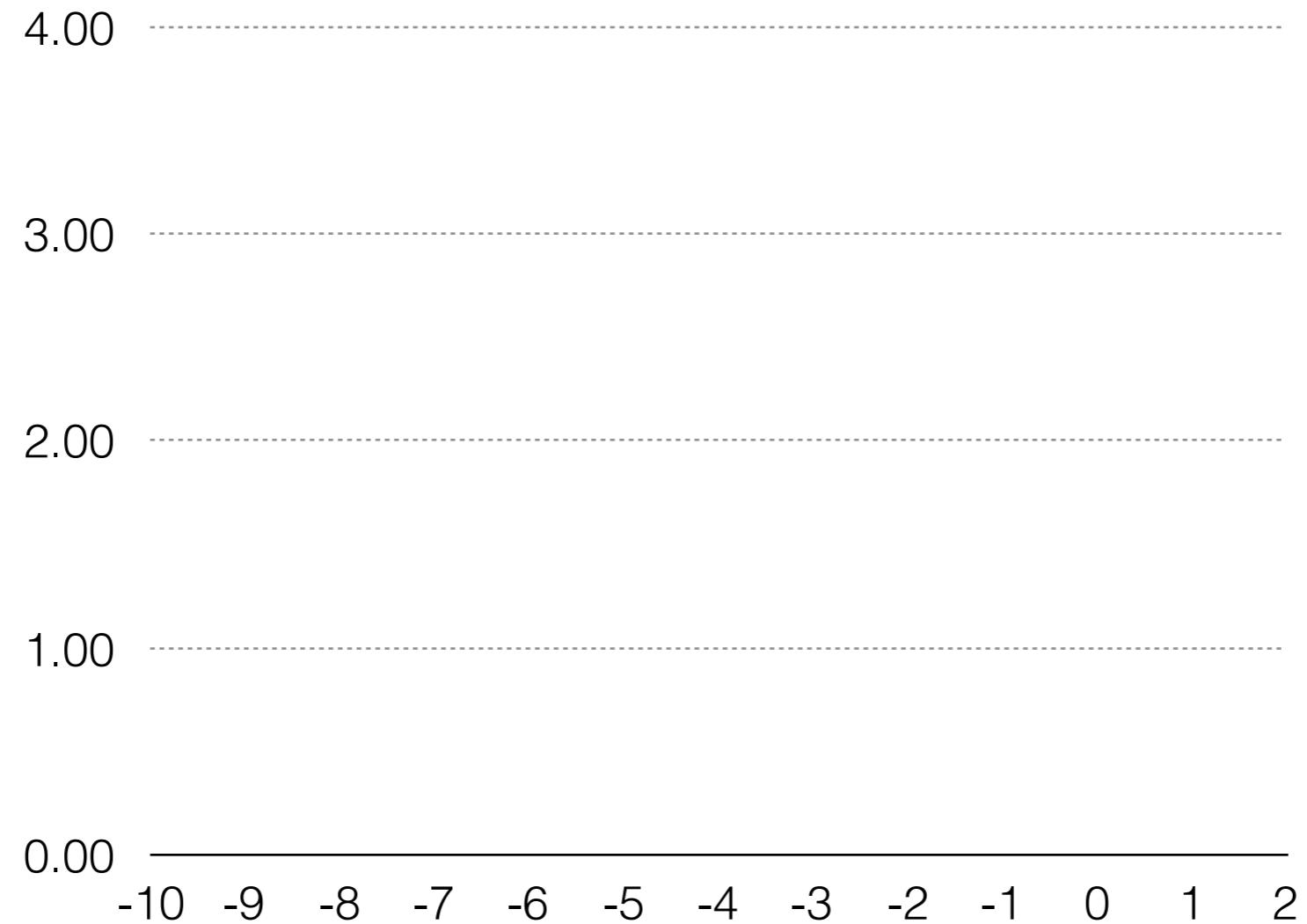


# 한계효용체감과 위험기피성향 Diminishing MU & Risk Averse Proper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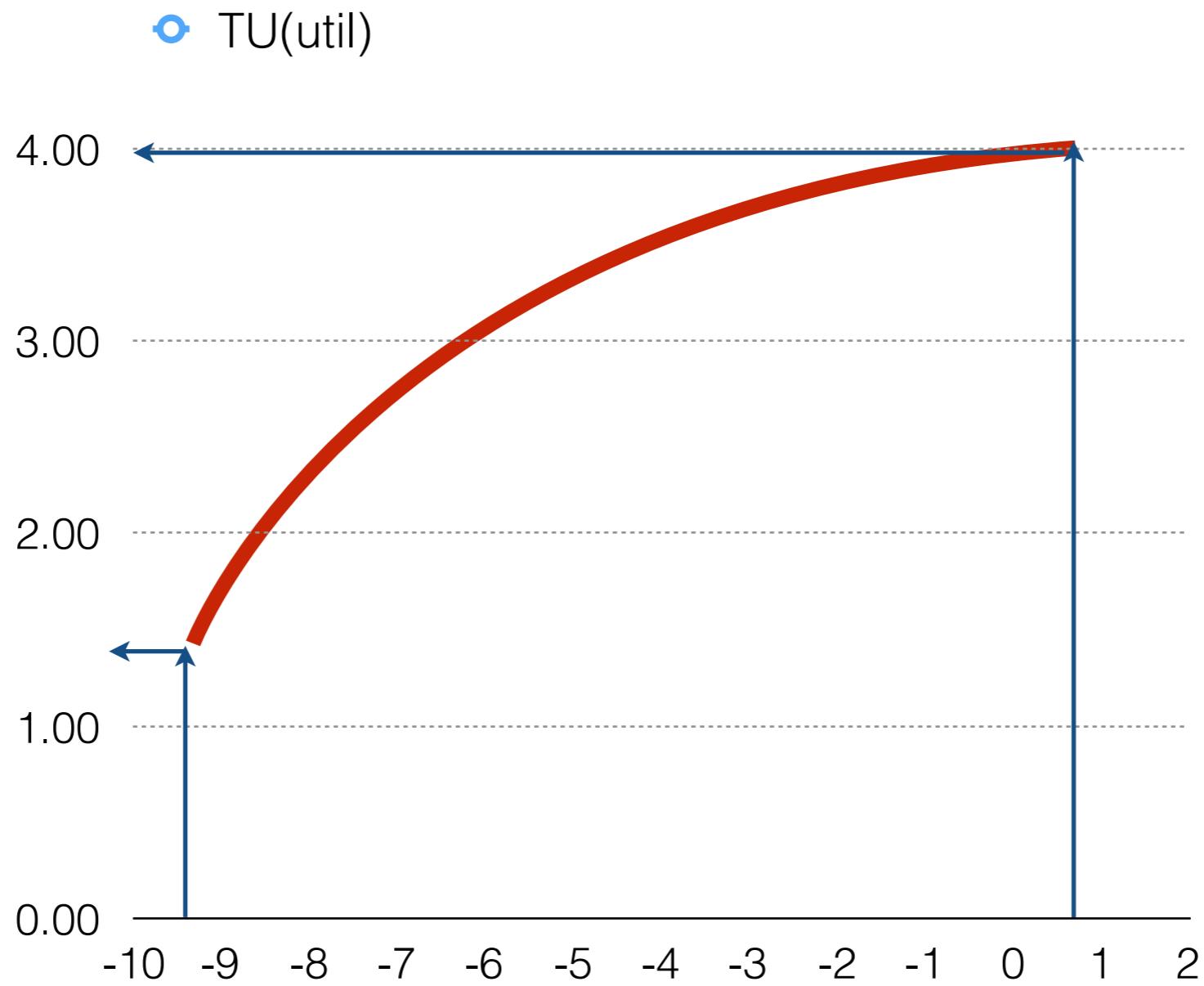


# 기하학적 해석

• TU(util)



# 기하학적 해석



# 기하학적 해석

효용:  
State 1

기대효용

효용:  
State 2

소득:  
State 2

기대소득의 효용

TU(util)

기대소득

소득:  
State 1

4.00

3.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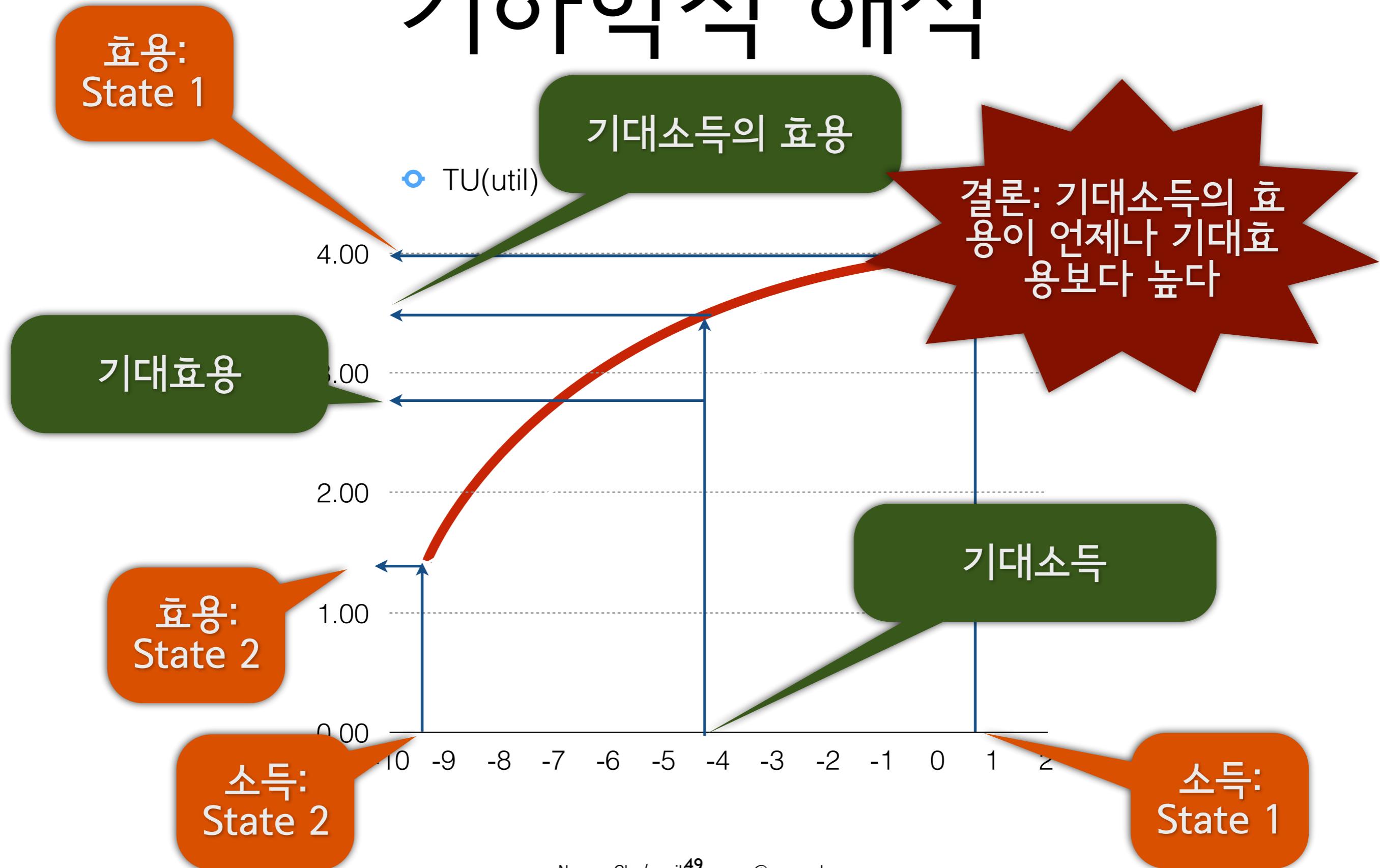
2.00

1.00

0.00

-10 -9 -8 -7 -6 -5 -4 -3 -2 -1 0 1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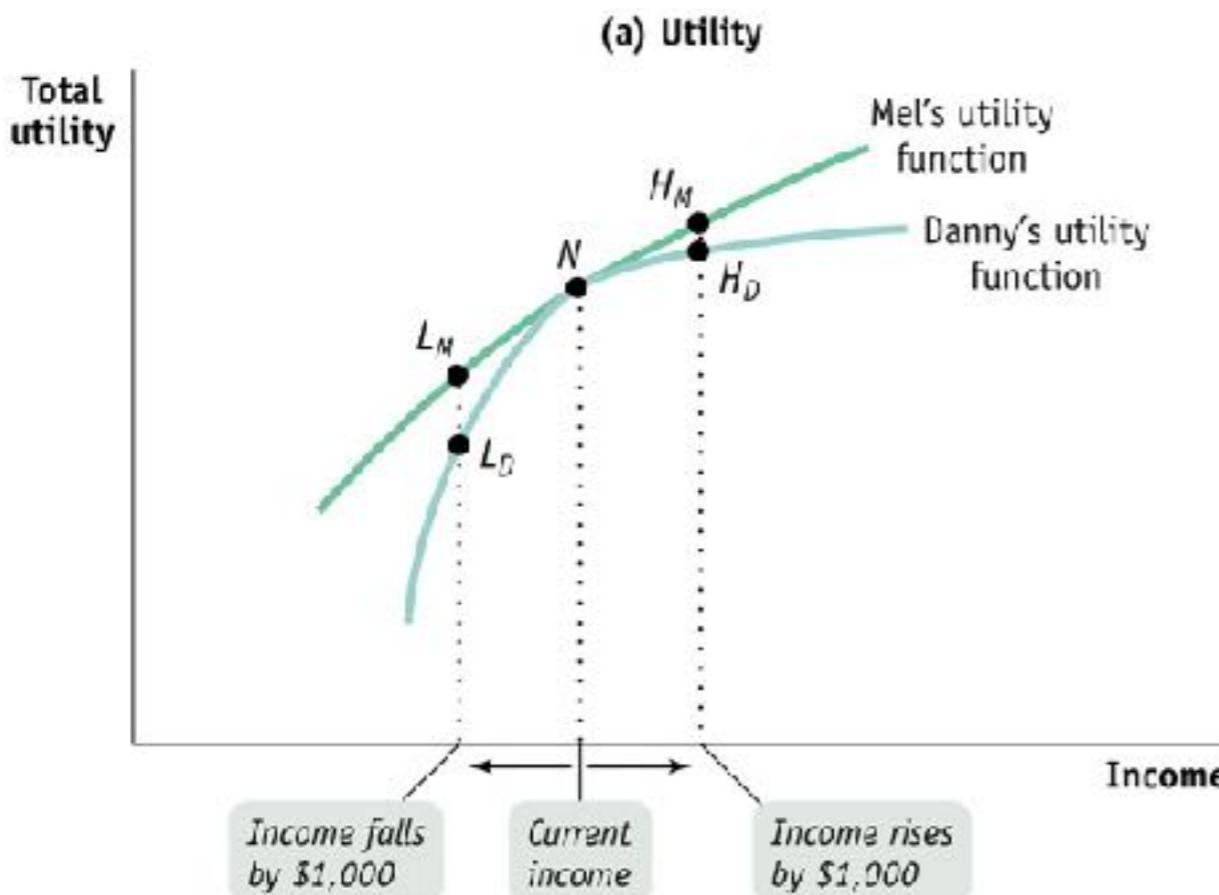
# 기하학적 해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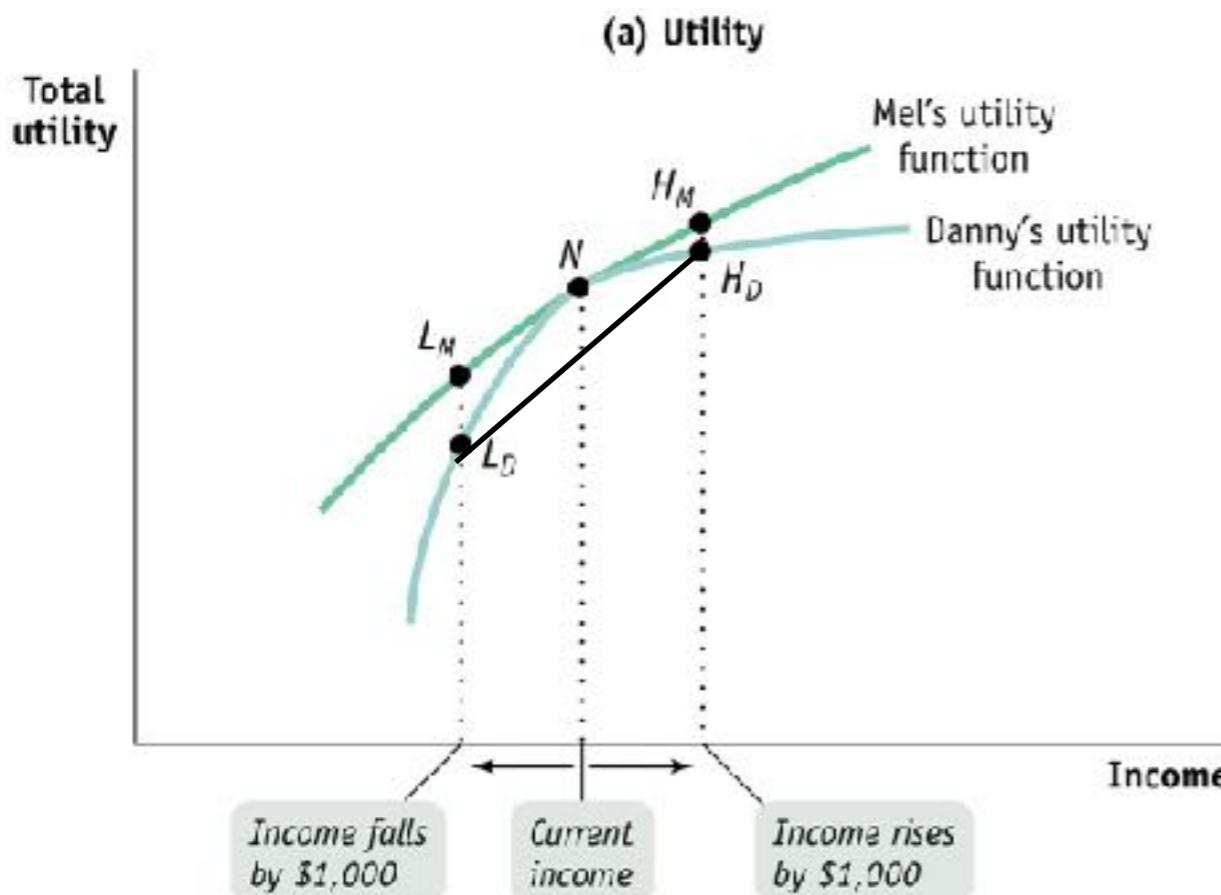
# 기대효용<기대소득효용

- 기대효용: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기대값
- 기대소득효용: 확실하게 기대소득을 제공할 때의 효용(불확실성 제거)
- 기대소득효용이 더 높다는 것은 불확실성 제거에 추가적 지불 용의가 있음을 의미
- 한계효용체감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성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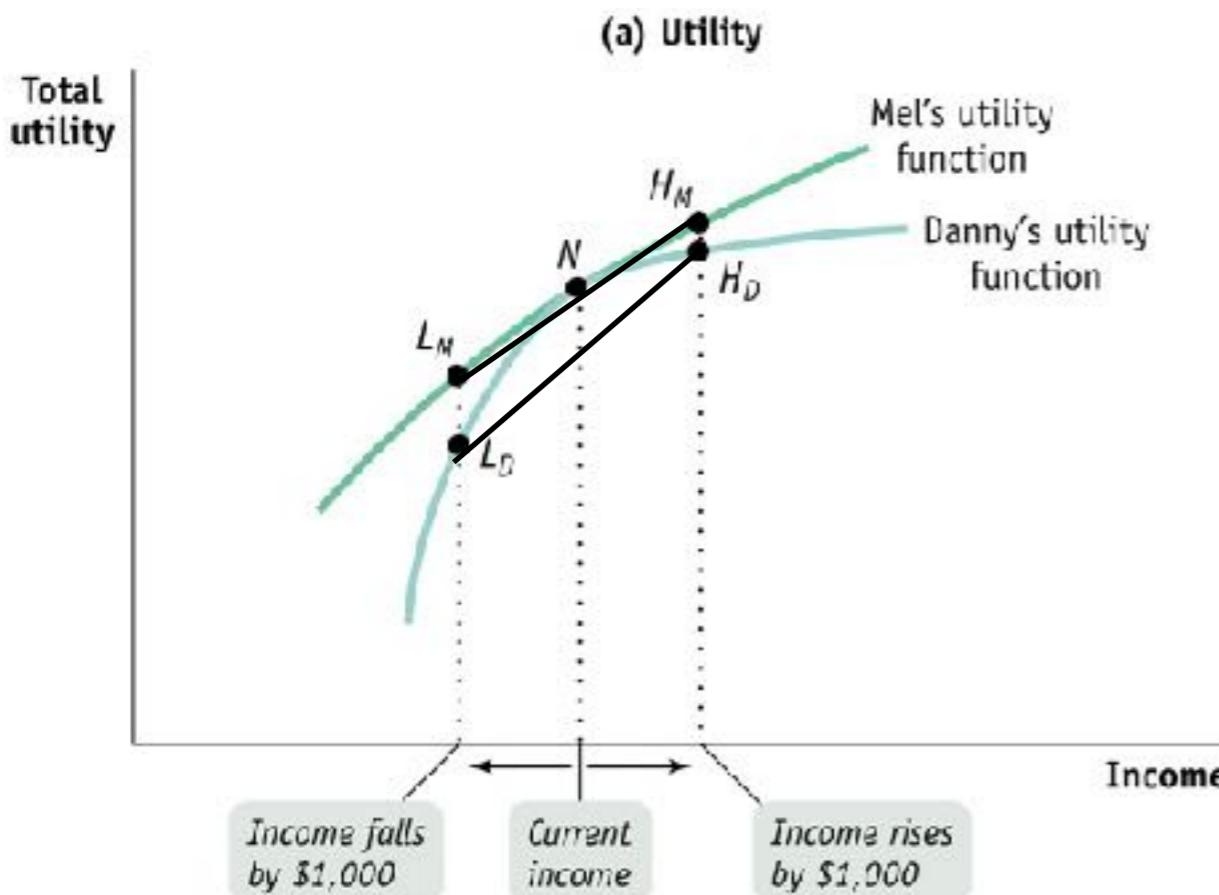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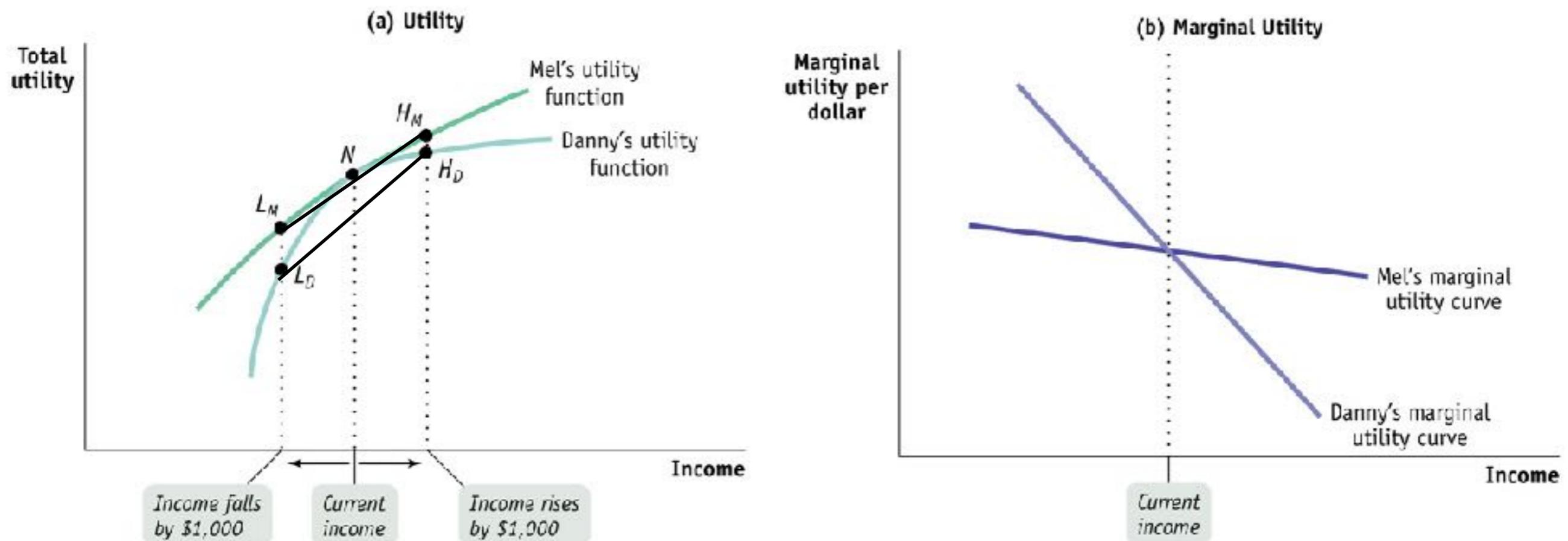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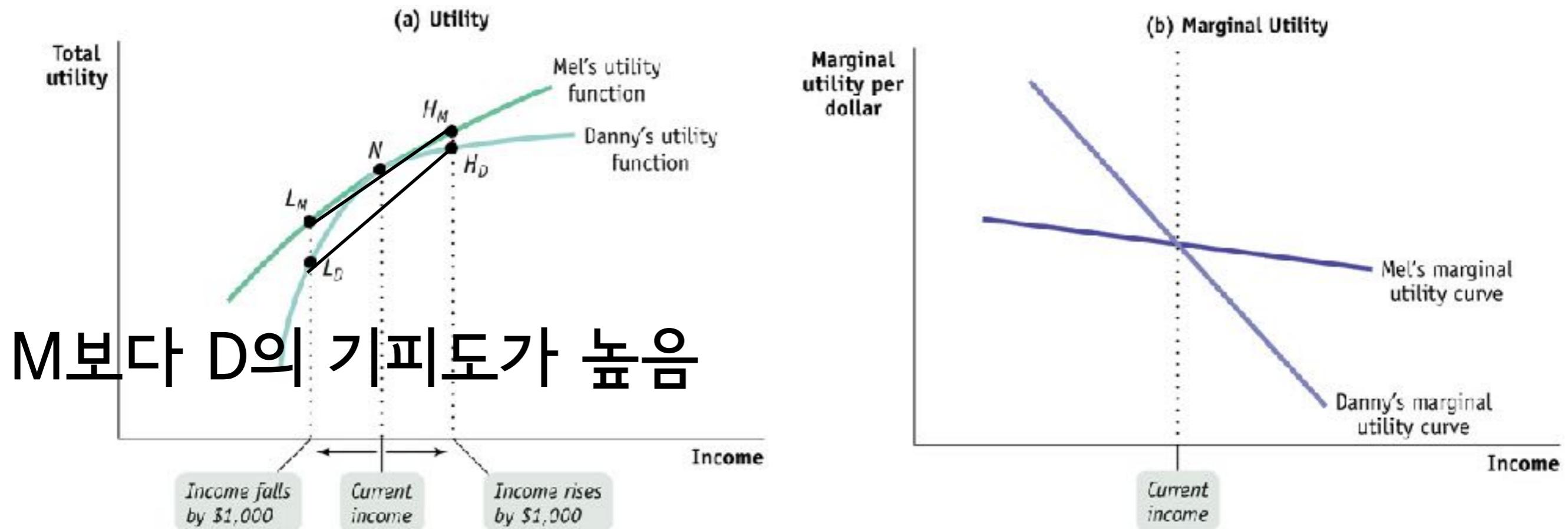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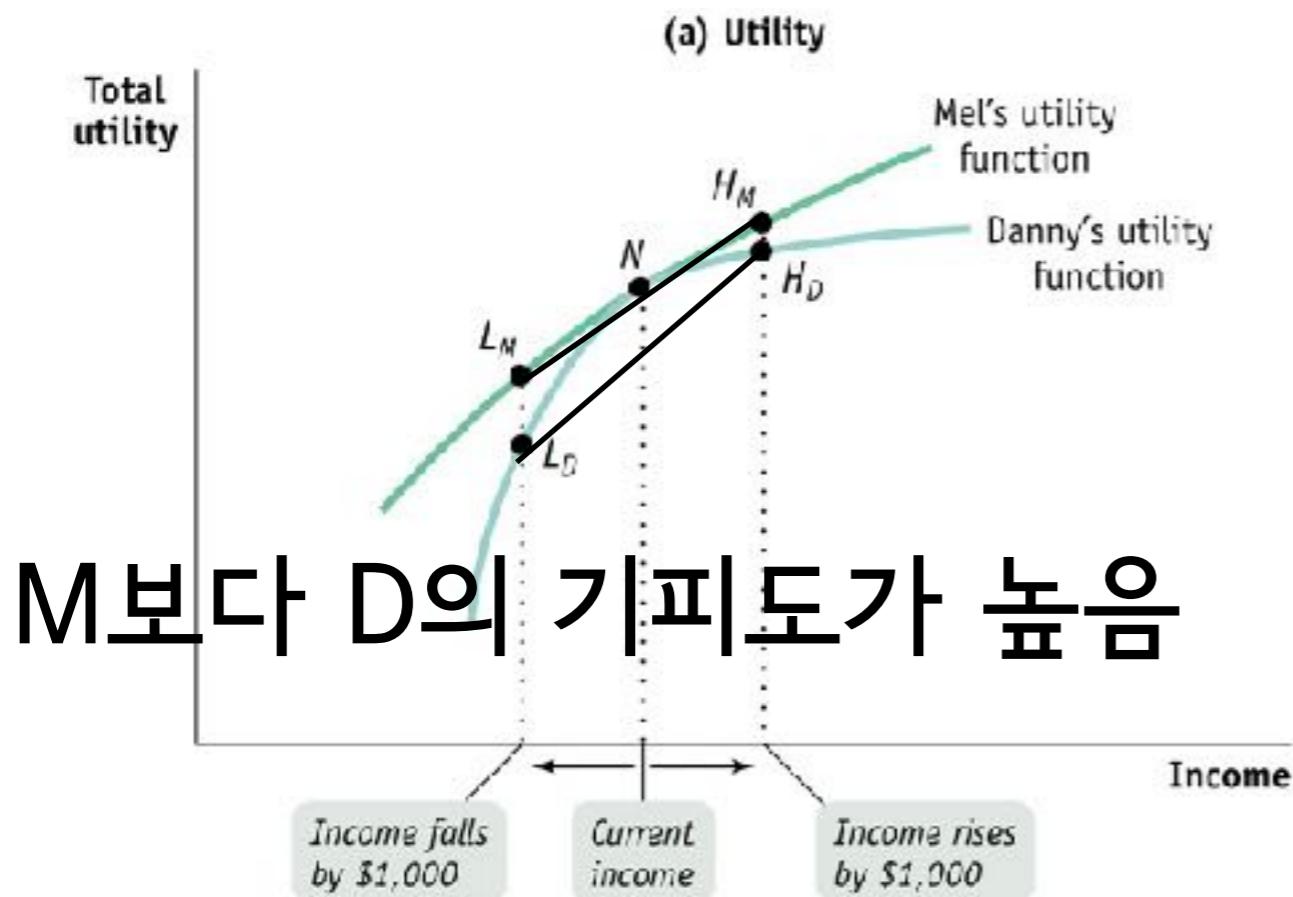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


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


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



# 위험기피도의 개별차이 발 생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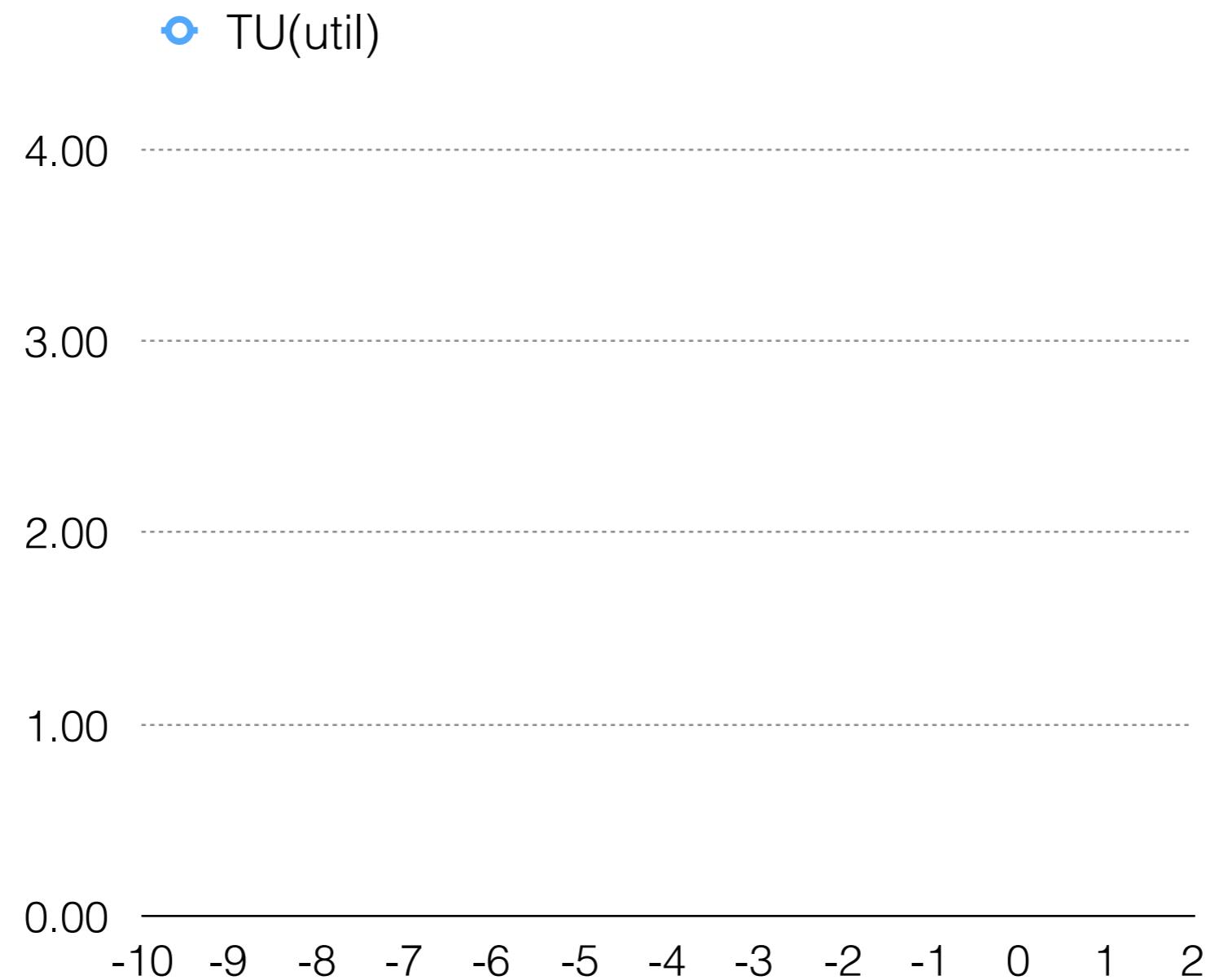
- 선호차이
  - 한계효용이 소득수준에 무관한(수평 한계효용) 사람은 위험기피성이 낮음
  - 수평선에 가까운 한계효용체감곡선: 소득과 효용이 정비례 (직선)
- 소득/부의 차이
  - 소득(정기적 수입), 부(보유재산)
  - 동일금액 소득감소라도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: 소득이 높을 수록 위험기피도 ↓

# 보험료의 결정

- 공정보험: 보험료 = 기대손실액
- 현실에서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> 기대손실액: 불공정보험
- 그러함에도 대다수의 피계약자는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
  - 피계약자는 보험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

# 불공정보함의 성립원리
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
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효용:  
State 1

기대소득의 효용  
 $u(E(L)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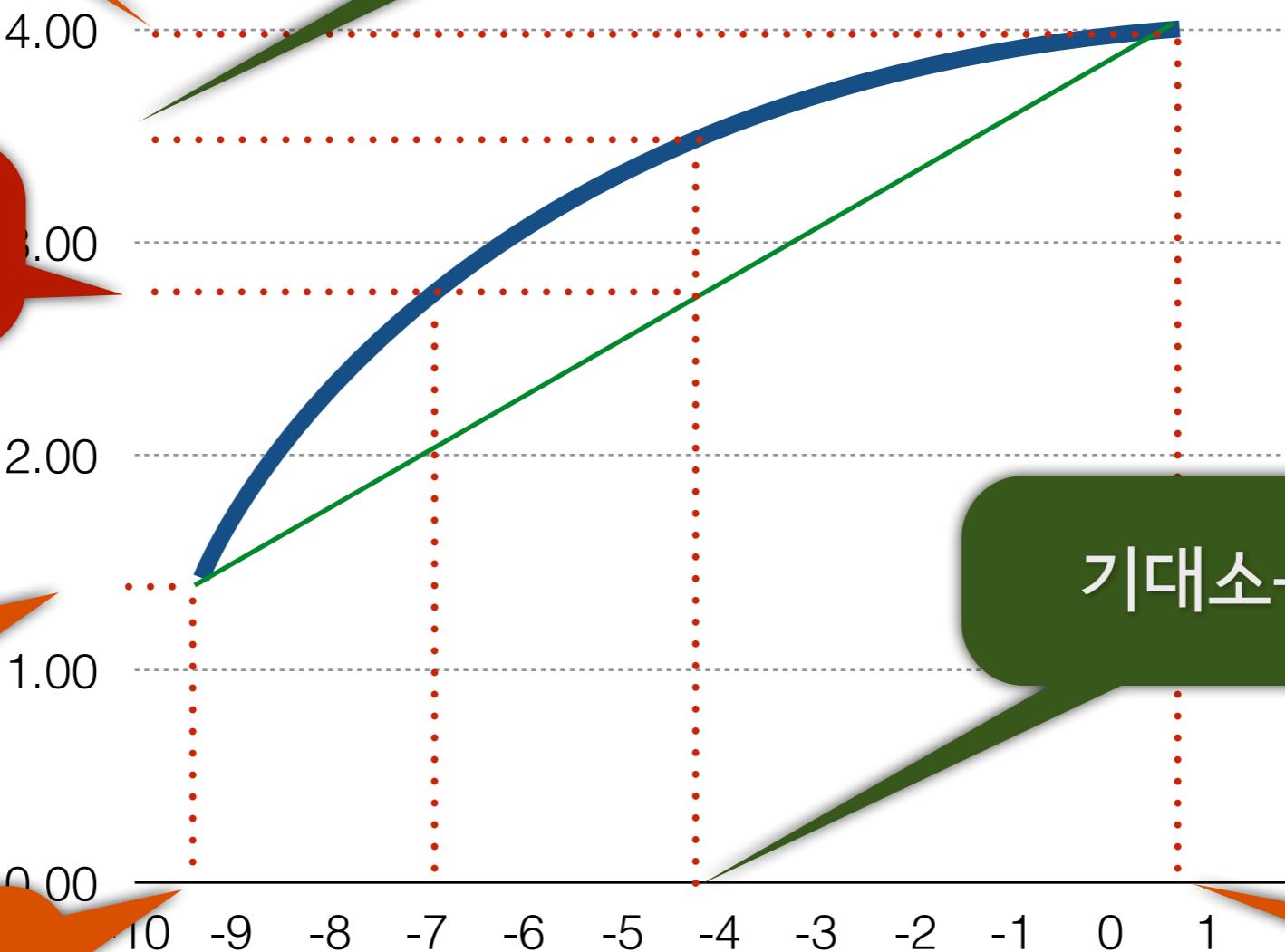
기대효용  $EU(L)$

효용:  
State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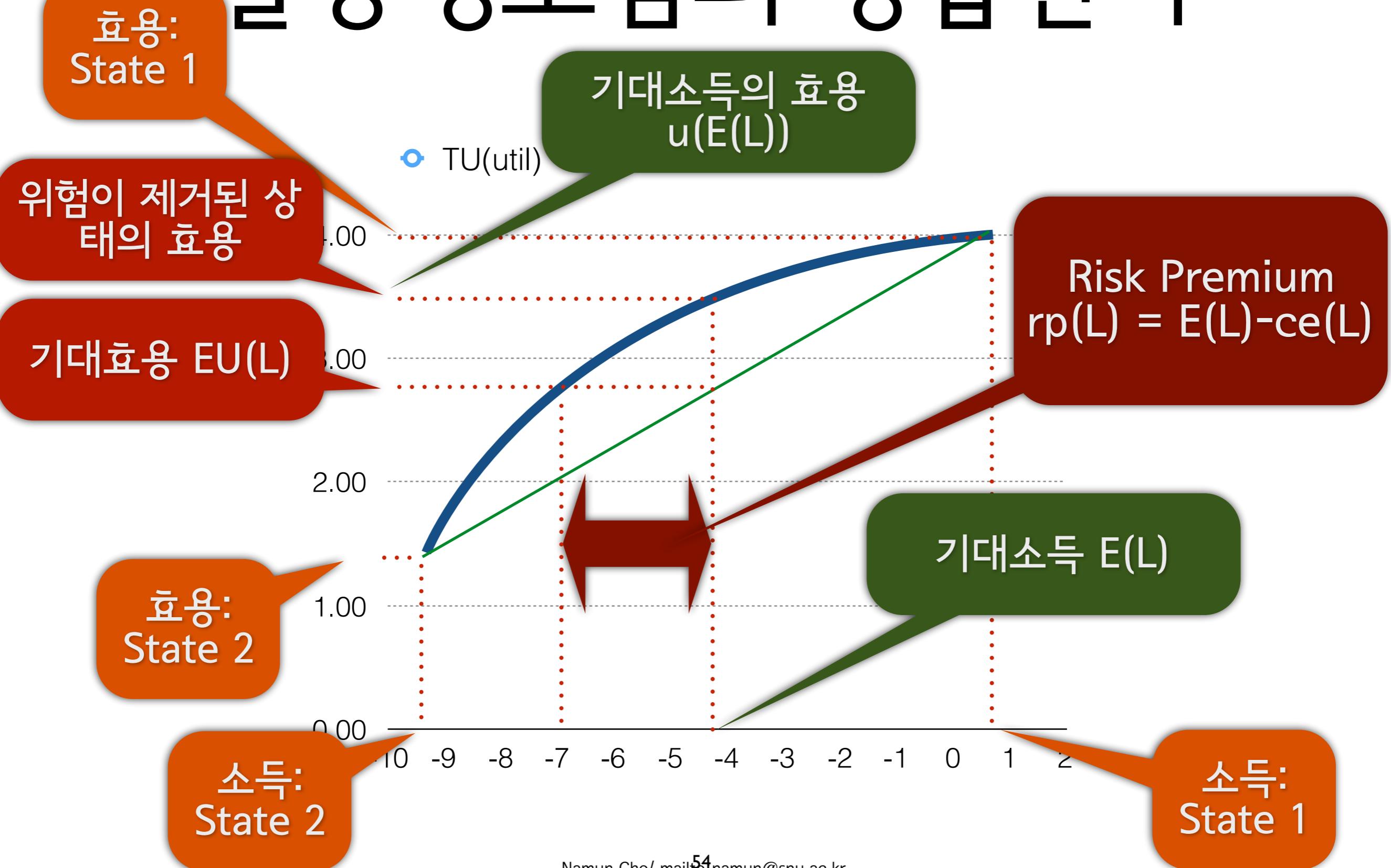
기대소득  $E(L)$

소득:  
State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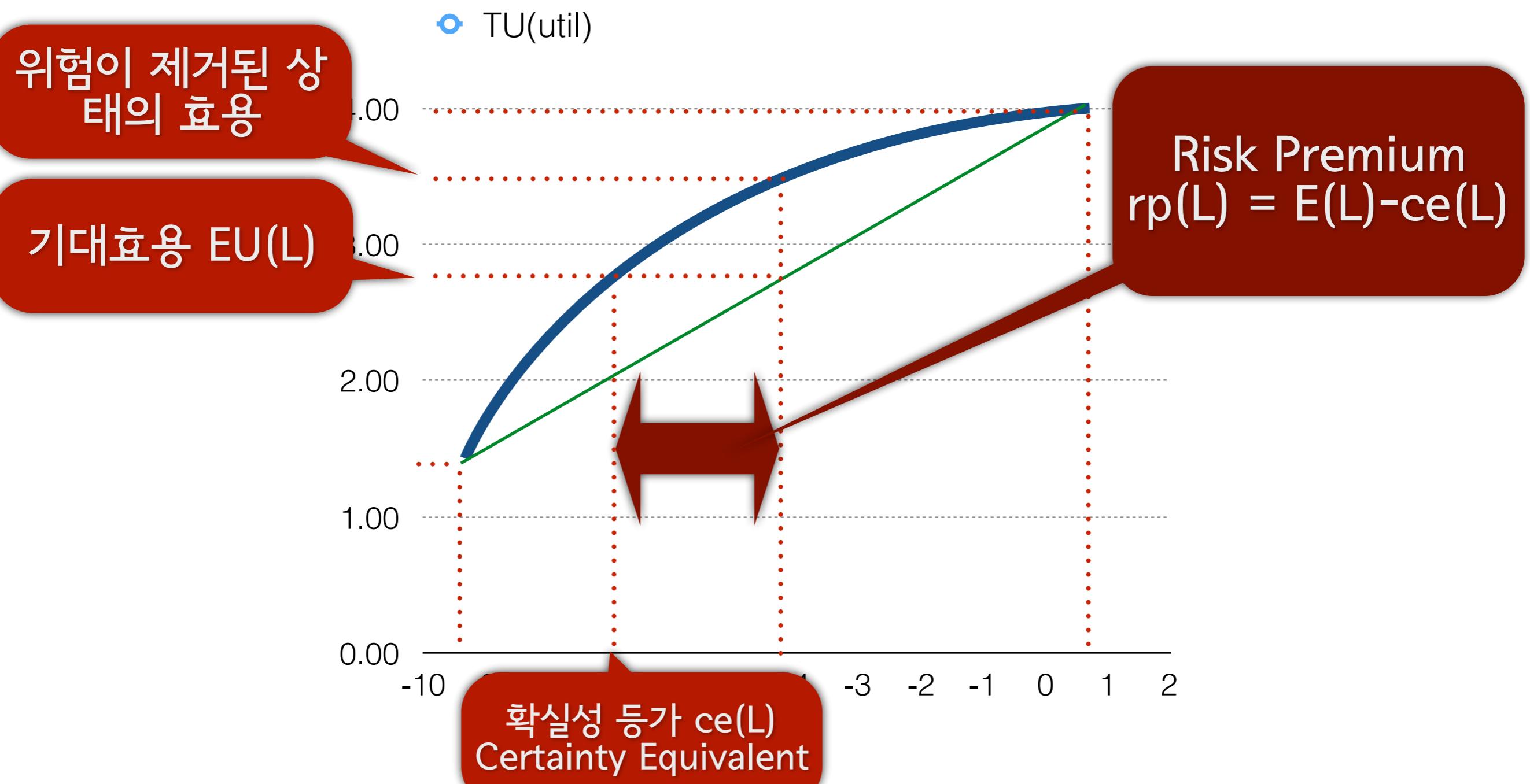
소득:  
State 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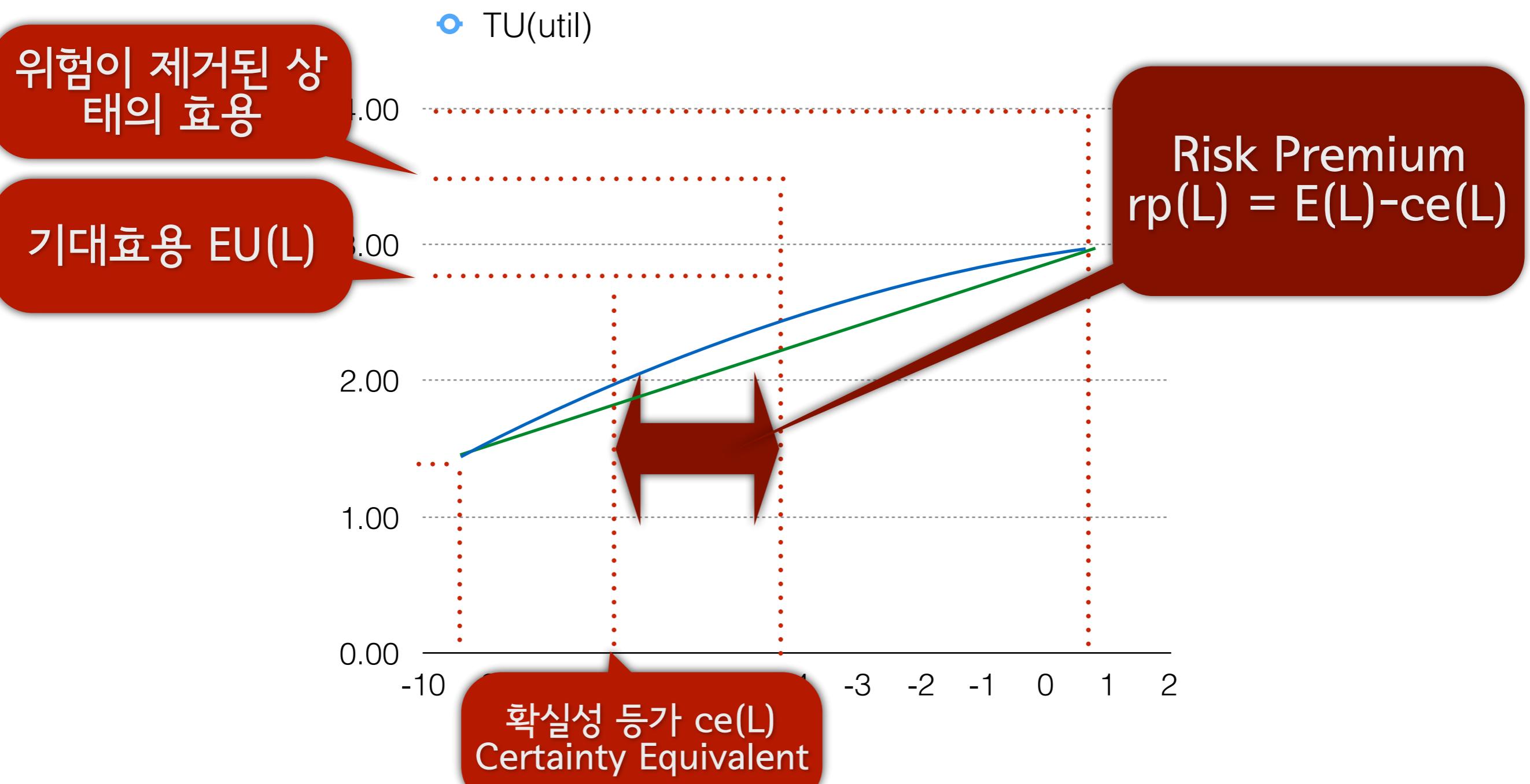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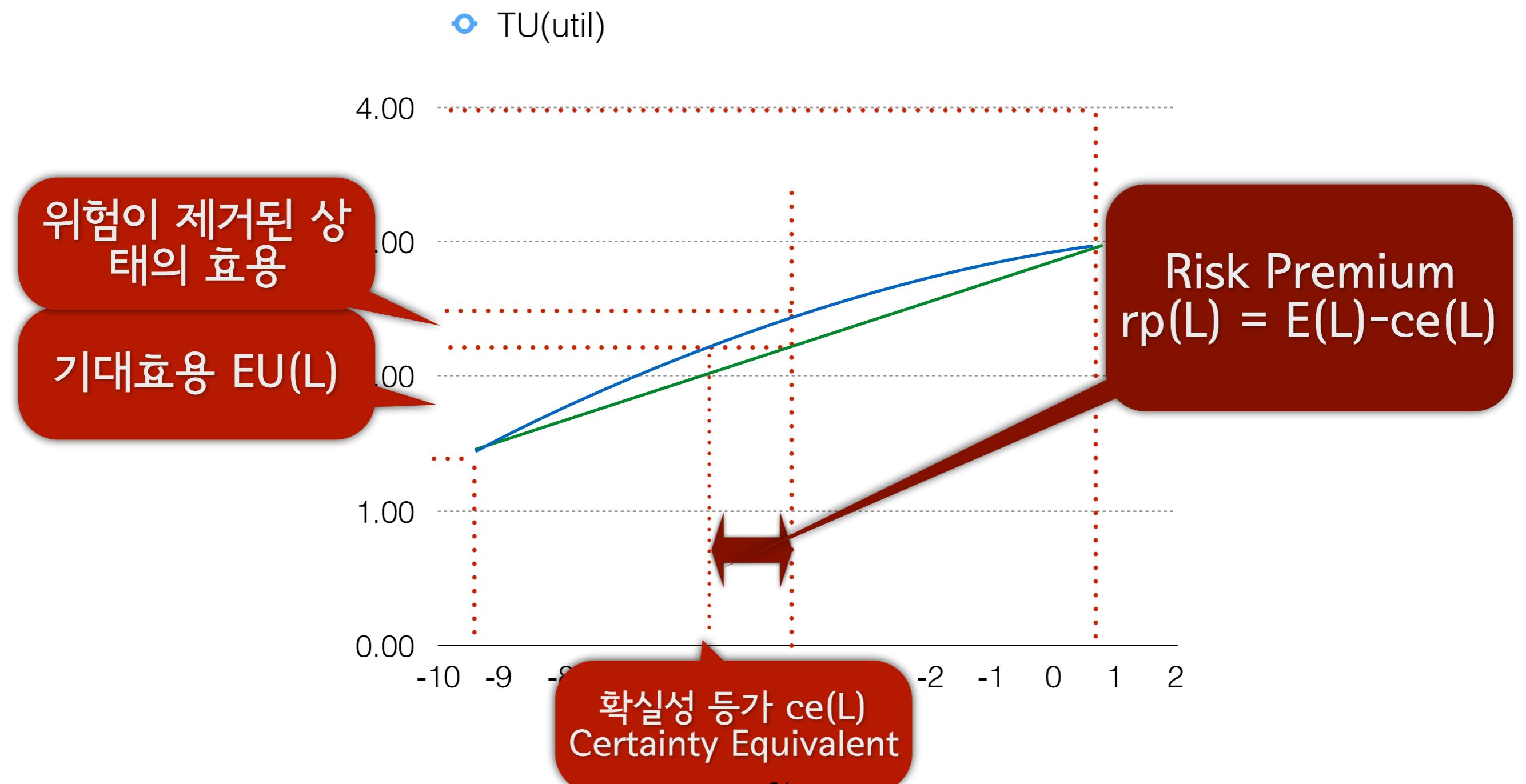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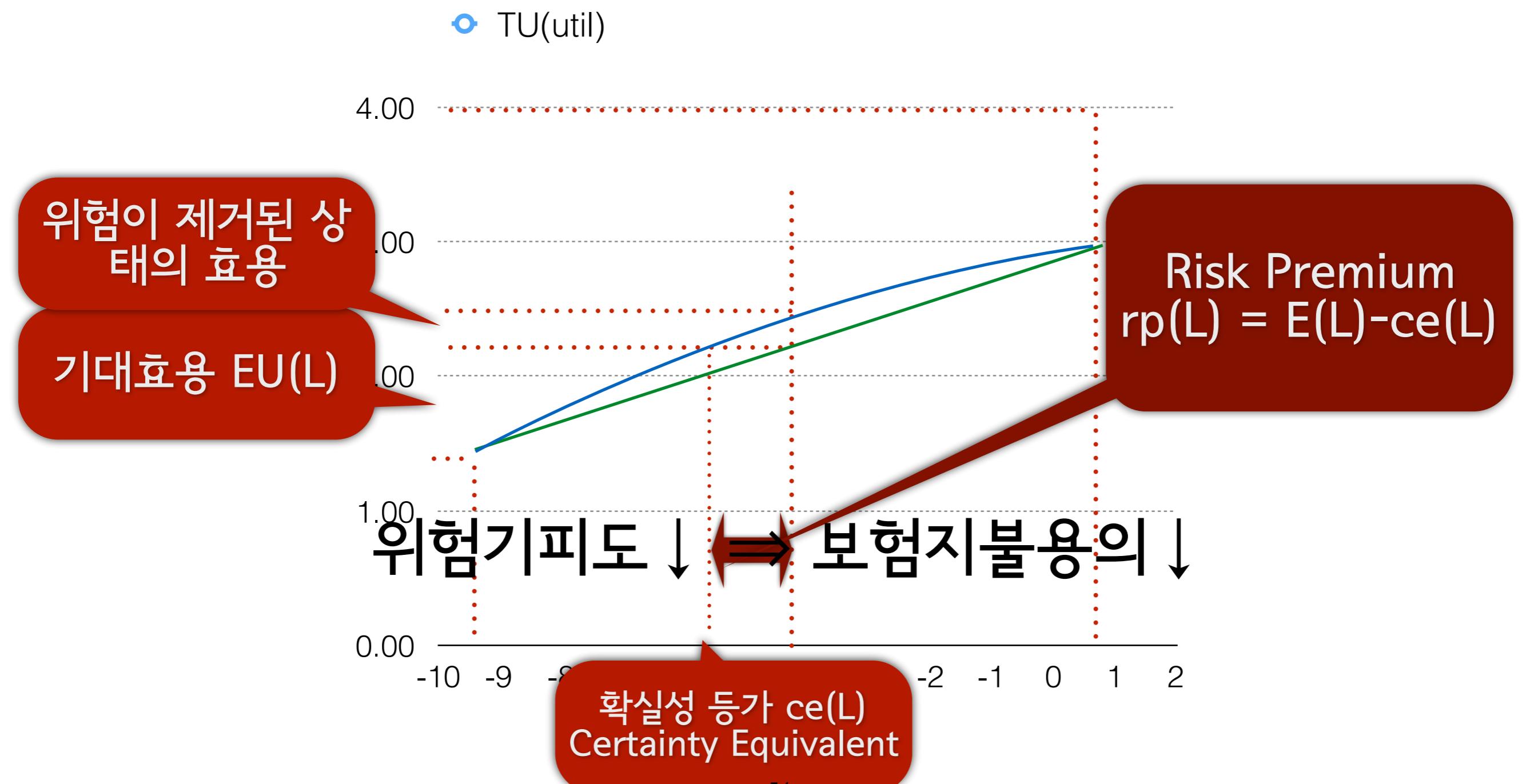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
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

# 불공정보험의 성립원리



# 함의

- 보험료가 공정보험보다 높더라도 보험으로 인해 감소하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편익한도 안에서 보험 구매자에게는 보험료 지출 유인 존재
- 보험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
- 보험산업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보험구매자의 위험기피성향이 클수록 높음

# 품질보증의 경제학

- 제품 구매시 발생 가능한 오류, 하자에 대한 수리보증: 보험과 같은 역할(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불확실성 감소)
- 유상옵션으로 수리보증의 범위를 늘리는 계약도 존재
  - ex) Dell promotion, Apple care protection plan, ..

# 예2: Gamble Choice

- D.Kahneman & A.Tversky
- 두 제안 중 하나를 고르시오
  - 1A versus 1B
  - 2A versus 2B

GAMBLE 1A		GAMBLE 1B	
Winnings	Prob.	Winnings	Prob.
1M	1	2M	0.5
		0M	0.5

표: K-T 실험 1

2M\$를 우선 지급한 뒤,

GAMBLE 2A		GAMBLE 2B	
Winnings	Prob.	Winnings	Prob.
-1M	1	0M	0.5
		-2M	0.5

표: K-T 실험 2

# Contradiction?

- 둘은 사실상 동등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A와 2B를 택함

- “K-T 실험 1”에서 만일 1A를 택했다면,

$$1 \cdot U(1M) > 0.5 \cdot U(2M) + 0.5 \cdot U(0M)$$

- “K-T 실험 2”에서 만일 2B를 택했다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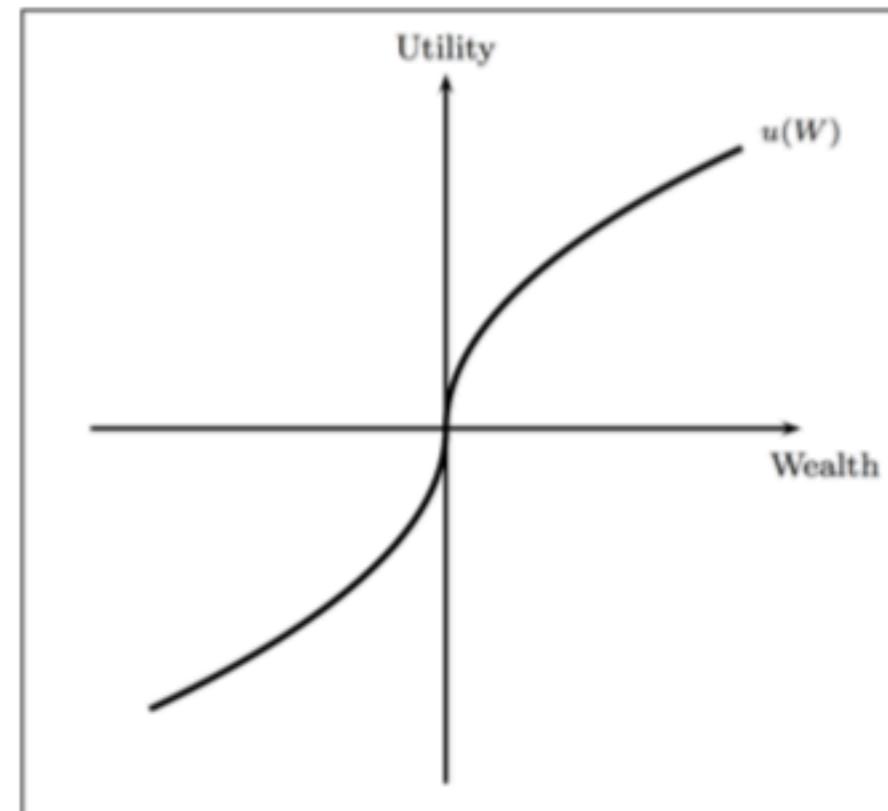
$$1 \cdot U(2M - 1M) < 0.5 \cdot U(2M) + 0.5 \cdot U(2M - 2M)$$

# Prospect Theory

- 두 Gamble의 준거점(Reference Point)이 다르다
-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 값이 아니라 이 준거점으로부터의 차이임
  - +: 이득, -: 손실
- 이득에 대해서는 위험회피
-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감수 (손실회피)

# Prospect Theory

- wealth가 (+)인 영역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
- wealth가 (-)인 영역에 대해서는 손실 회피
- 결국 reference point에 따라서 경제적 행동이 극적으로 변한다.



# 과제: 유보가격에 대한 행 동실험

- 도박1:

- 80% - 50,000원
- 20% - 0원

- 도박2:

- 10% - 400,000원
- 90% - 0원

기한: 2018.4.9 23:59

- <https://goo.gl/forms/O5xvIQbEspI0PGD73>

응답 결과에 의거하여 가상 시장을 만들고 임의의 순서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며, 최종 보유하고 있는 도박은 실제 컴퓨터로 도박을 개별실시하여 그 결과액을 거래중 보유하게 된 돈과 합산할 것임. 운에 의한 효과를 완화하고자 거래 순서를 랜덤하게 섞어 10회 반복한 뒤 평균치를 최종 보상으로 산정할 것임.

# 조건부 상품

# Contingent Commodity

# 조건부 상품의 개념

- 조건부 상품
  -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
  -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두 사람이 식사할 수 있고, 눈이 오지 않으면 한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쿠폰
  - 7월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에어컨 한 대, 20도미만이면 에어컨에 현금 10만원을 더 해주는 상품 등

- 즉, 조건에 따라 상품을 구별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음
- 조건부 청구권 (Contingent Claim)
  - 조건부 상품은 상품을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측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
- 조건부 상품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미리 알려져 있으면 조건부 상품은 복권과 사실상 차이가 없음
- 조건부 확률에 따라 기대효용을 계산할 수 있음

# 조건부 상품을 이용한 위험 관리

- 위험 제거: 보험
- 위험 증대: 도박

# 조건부 상품과 소비蠹음

- 상품과 화재(조건)
  - 화재 발생시 1원을 지급하는 상품  $w_f$
  - 화재 미발생시 1원을 지급하는 상품  $w_n$
  - 내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할 확률  $\pi$
- 조건부 상품의 소비蠹음  $(w_f, w_n)$
- 상품공간: 모든 소비蠹음  $(w_f, w_n)$  의 집합

# 무위험선

- $(w_f, w_n)$  으로 이루어진 상품 공간의 45도 선
- $w_f = w_n$  : 어떤 경우에도 같은 결과  $\Rightarrow$  무 위험
- 즉 화재 발생여부가 재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- 기대금액  $\pi \times w_f + (1 - \pi) \times w_n$
- 등기대금액선  
 $\pi \times w_f + (1 - \pi) \times w_n = K$ 
  - 기대금액이 같은 조건부 상품 소비묶음의 집합
  - 사건의 확률이 변하면 기울기가 변함
  - 기대금액이 커질 수록 원점에서 멀리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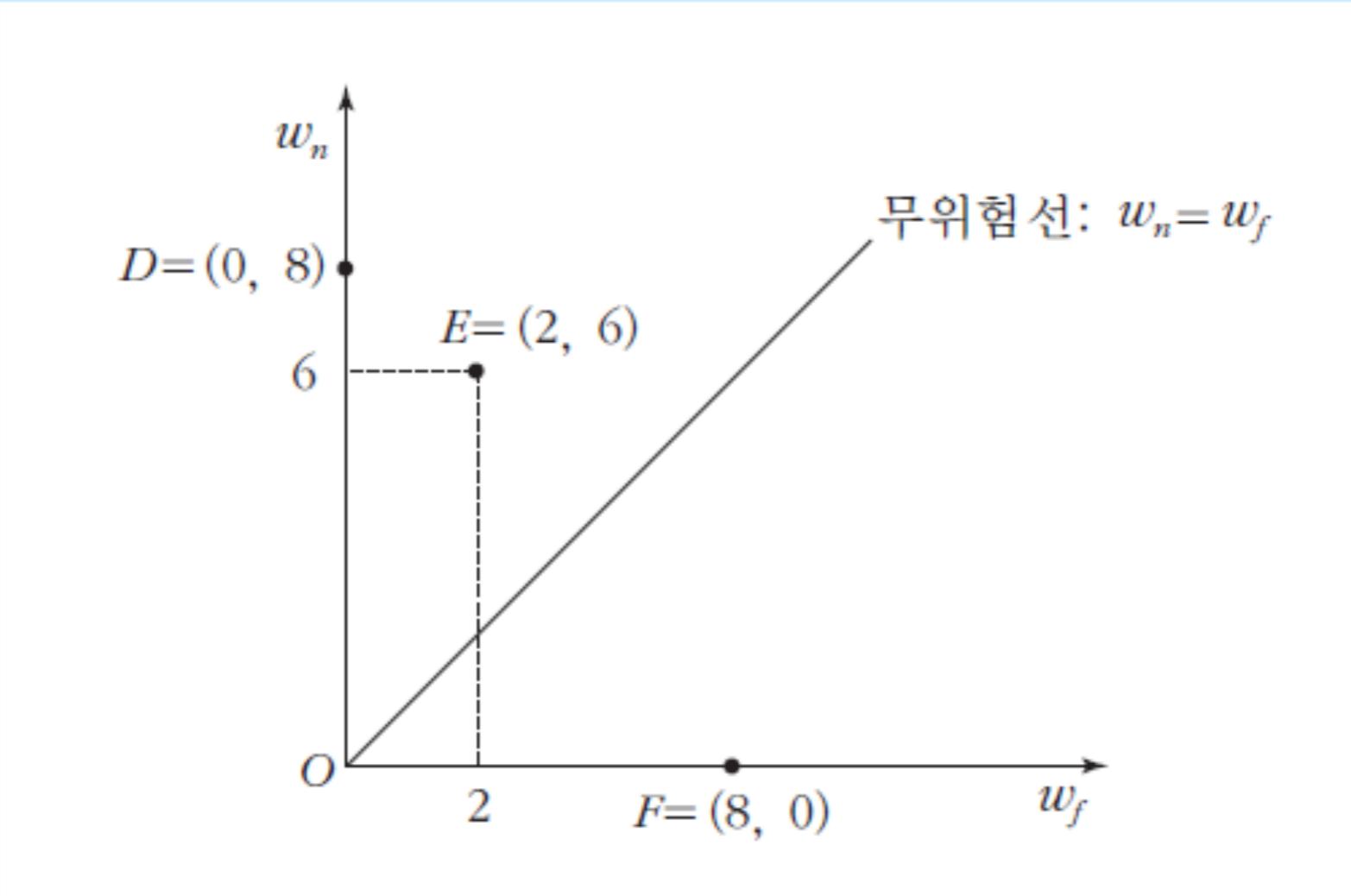


그림 9-8 조건부 상품의 상품공간

# 기대효용이론과 무차별곡선

- 기대효용

$$EU = \pi \times u(w_f) + (1 - \pi) \times u(w_n)$$

- 기대효용이 일정한 무차별 곡선

$$\pi \times u(w_f) + (1 - \pi) \times u(w_n) = \overline{EU}$$

- 무차별 곡선의 형태
  - 기대효용이론에서 효용함수는 특정한 형태
  - 기수성을 만족해야하기 때문

$$U(w_f, w_n) = \pi \times u(w_f) + (1 - \pi) \times u(w_n)$$

- 한계대체율

$$MRS = \frac{MU_{w_f}}{MU_{w_n}} = \frac{\pi u'(w_f)}{(1 - \pi)u'(w_n)}$$

- 무차별곡선과 무위험선
  - 무위험선의 정의에 따라
$$w_f = w_n \rightarrow u'(w_f) = u'(w_n)$$
  - 무위험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날 때 항상
$$MRS = \frac{\pi}{1 - \pi}$$
  - 등기대금액선의 기울기와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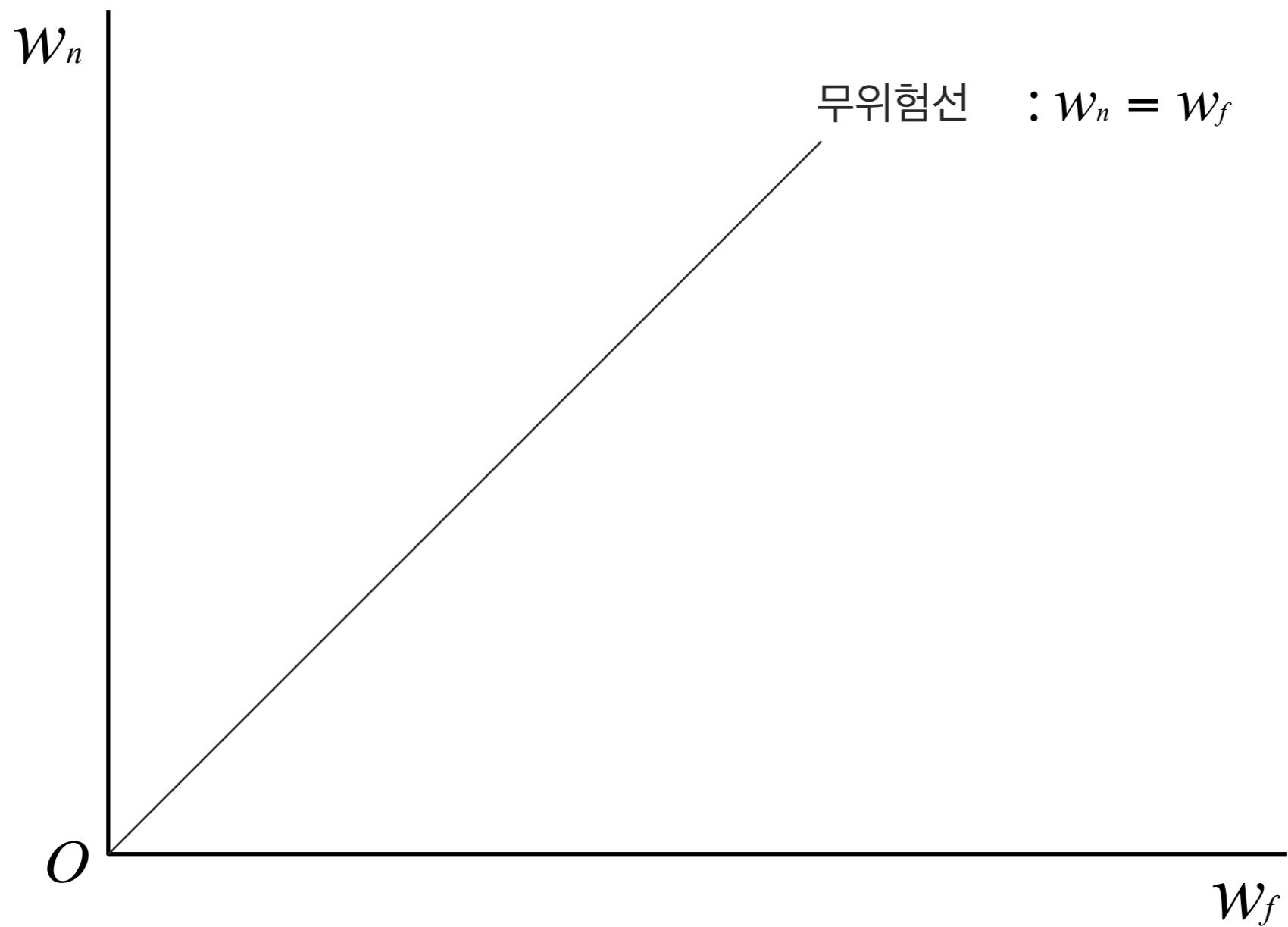
- 위험에 대한 태도와 한계대체율
  - 위험 기피자
    - 한계효용 체감 → 한계대체율 체감 →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 곡선
  - 위험 선호자
    - 한계효용 체증 → 한계대체율 체증 → 원점에 대해 오목한 무차별 곡선
  - 위험 기피자
    - 한계효용 일정 → 한계대체율 일정 → 직선인 무차별곡선

$\mathcal{W}_n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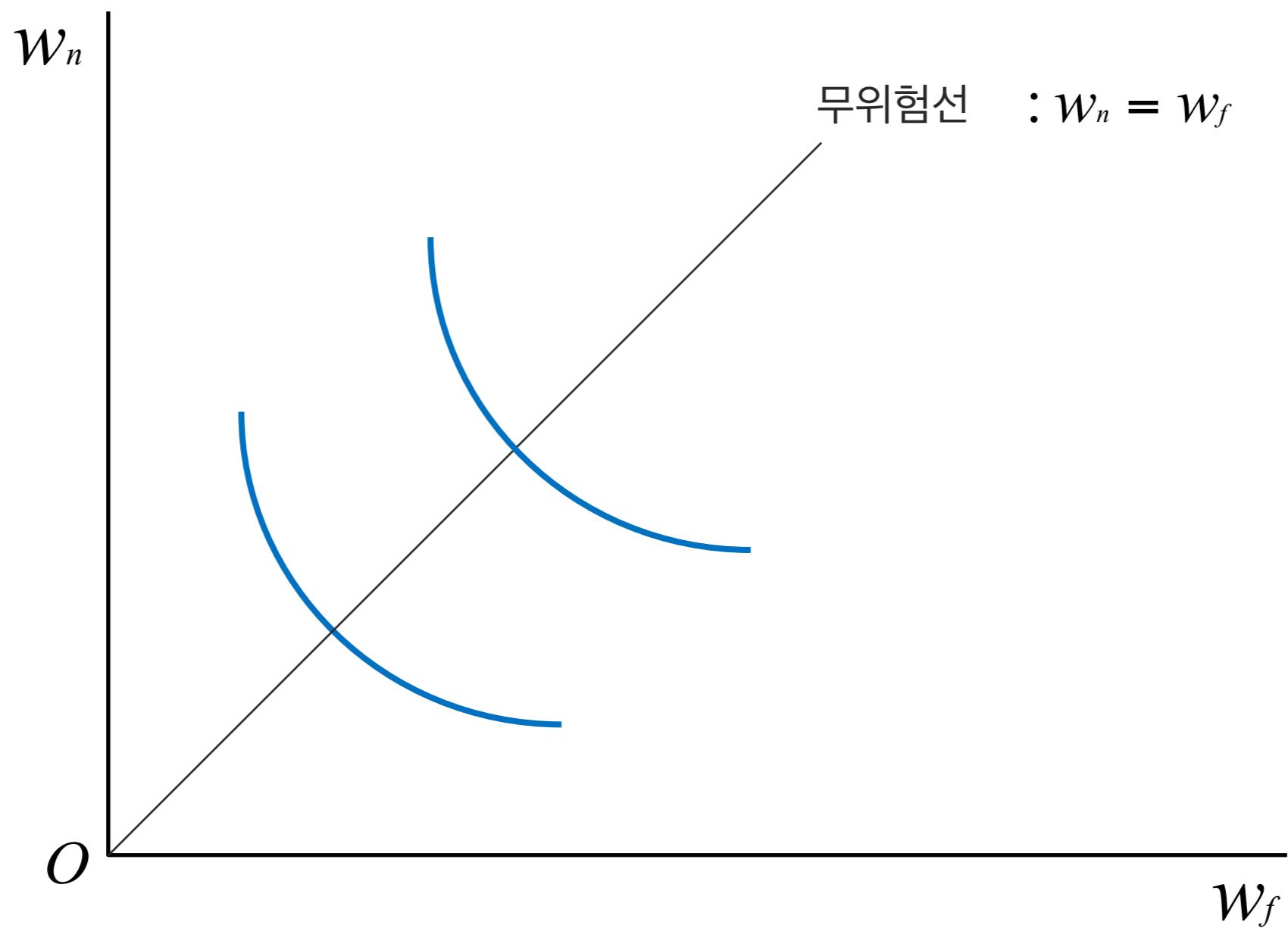
$O$

$\mathcal{W}_f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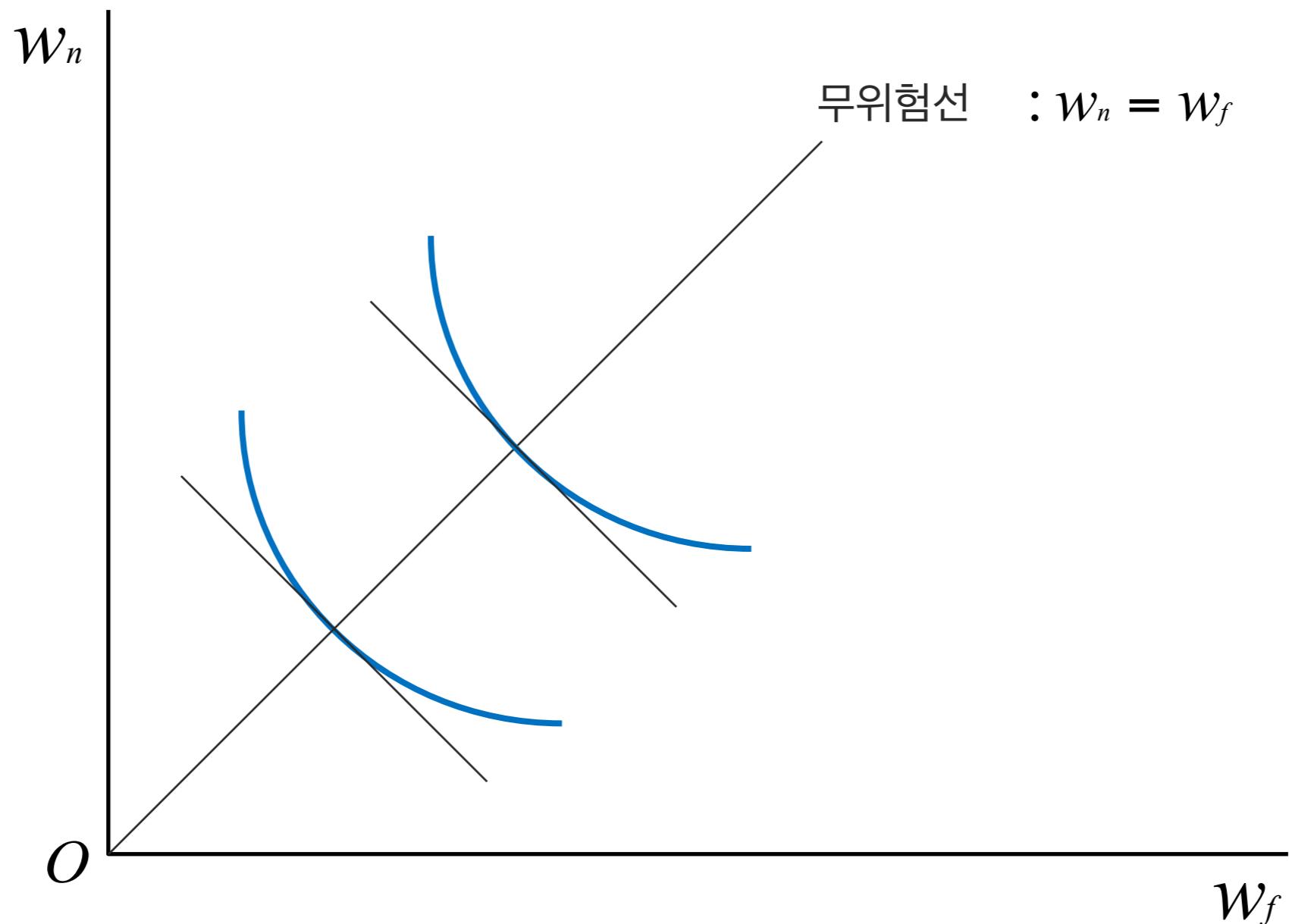
(a) 위험 기피적 소비자



(a) 위험 기피적 소비자



(a) 위험 기피적 소비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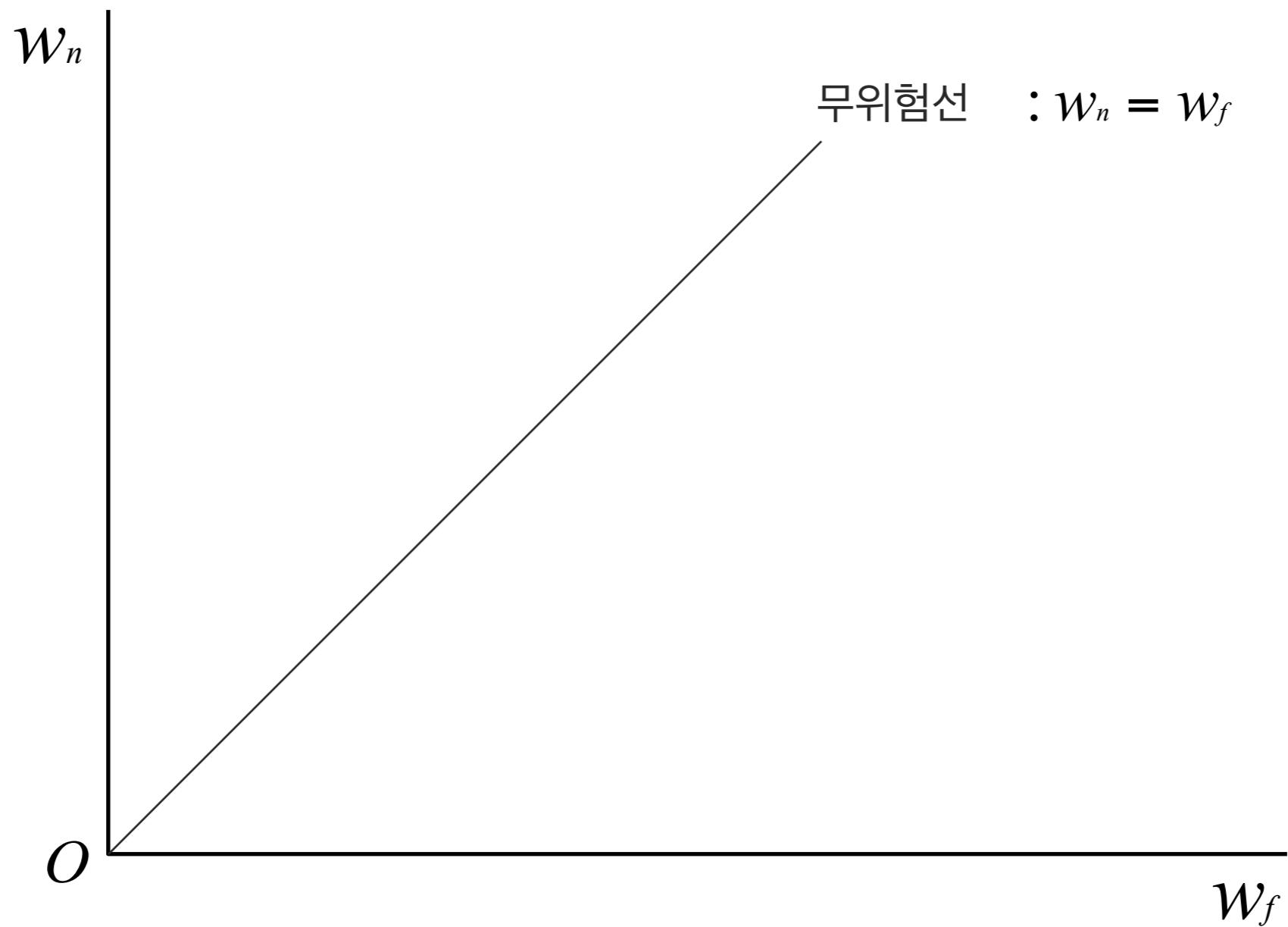
(a) 위험 기피적 소비자

$\mathcal{W}_n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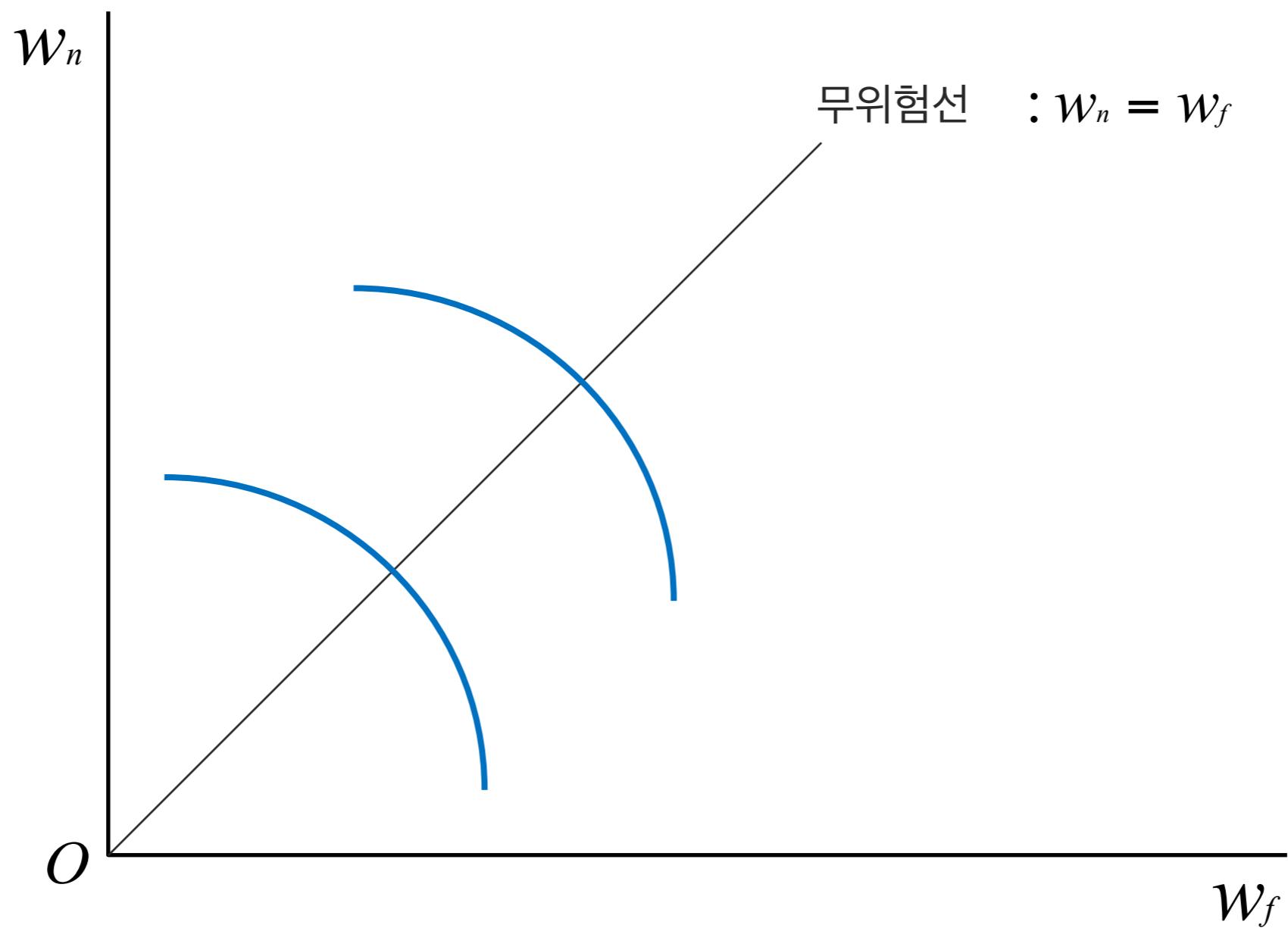
$O$

$\mathcal{W}_f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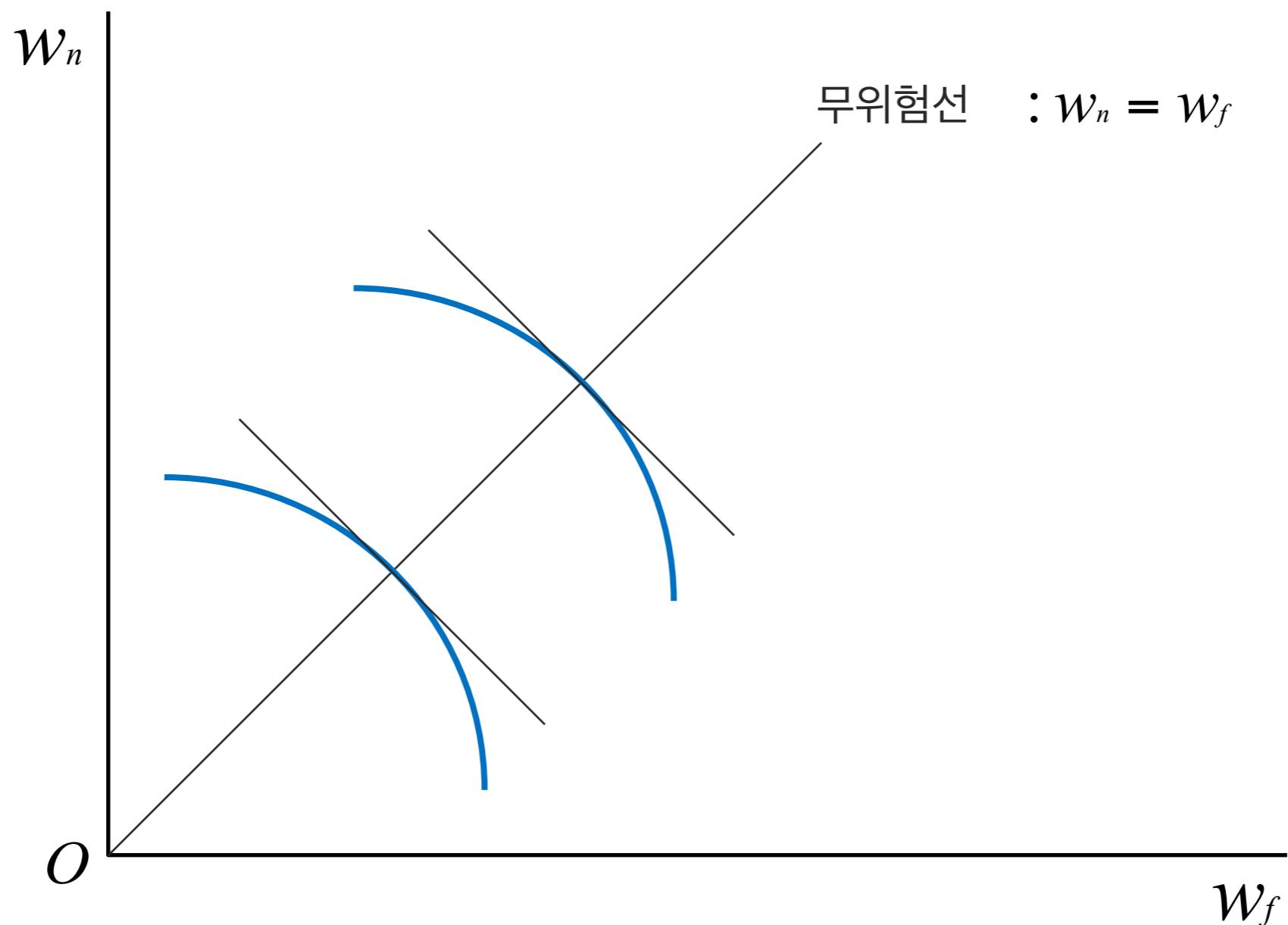
(b) 위험 애호적 소비자



(b) 위험 애호적 소비자



(b) 위험 애호적 소비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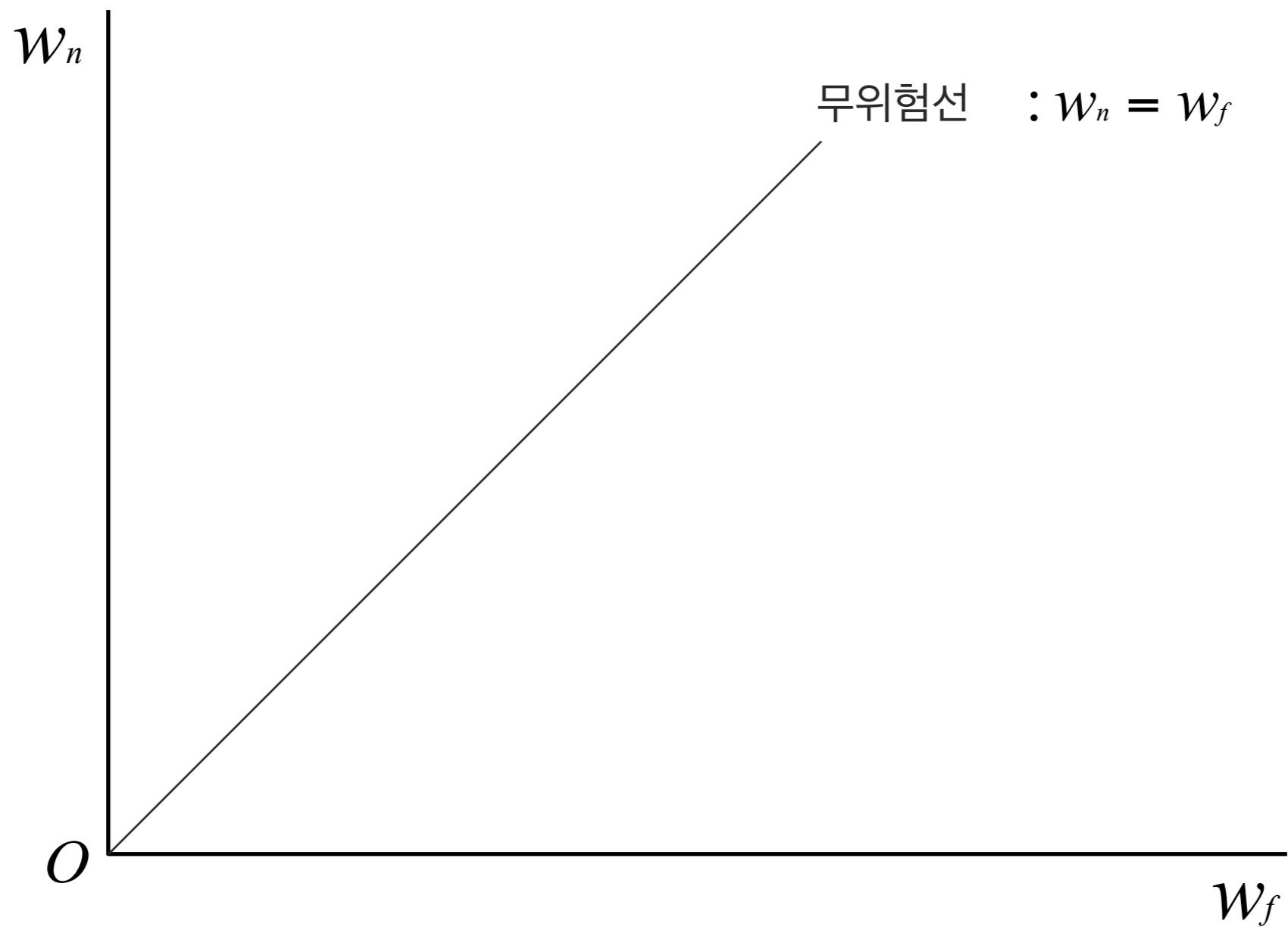
(b) 위험 애호적 소비자

$\mathcal{W}_n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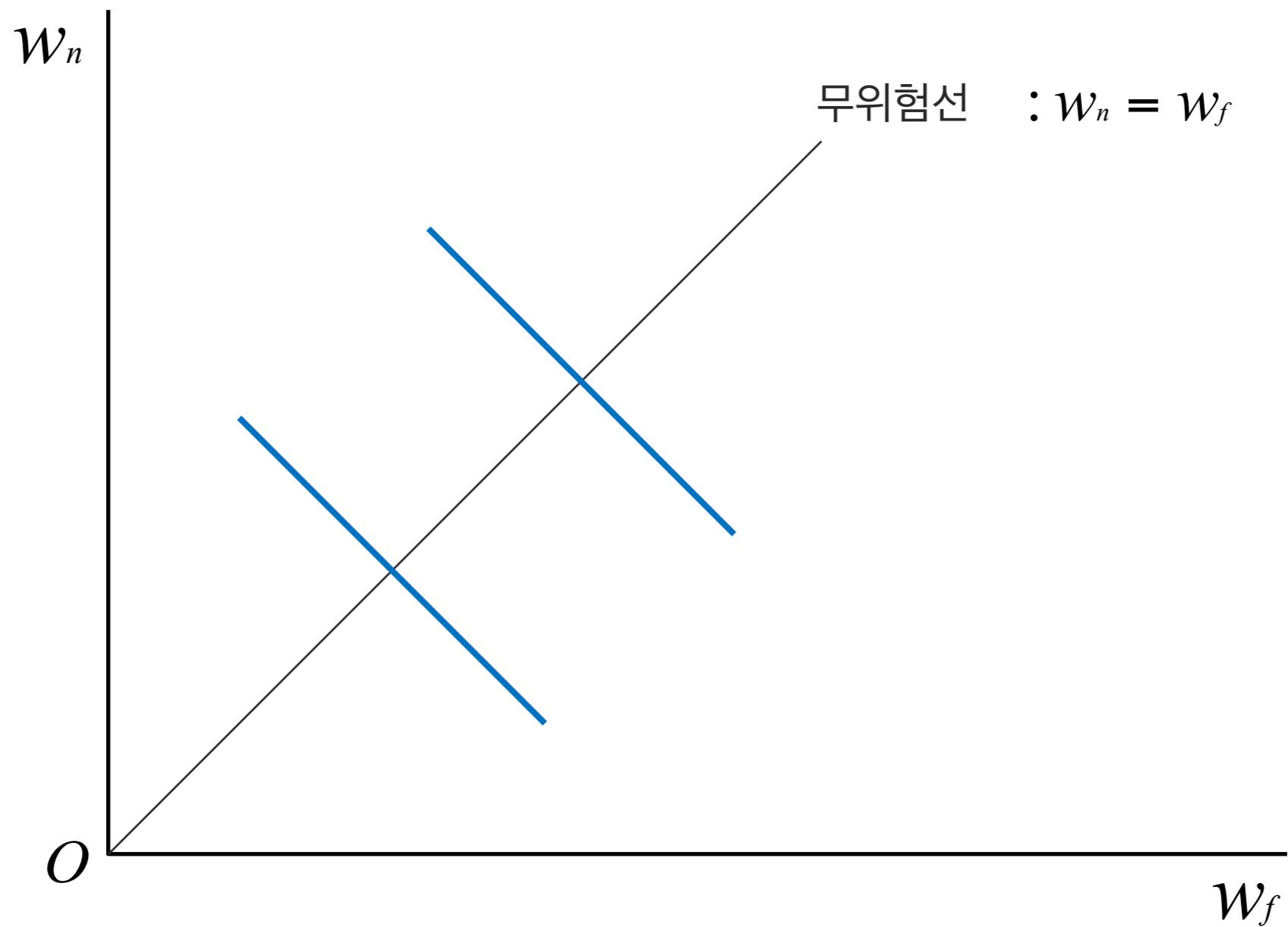
$O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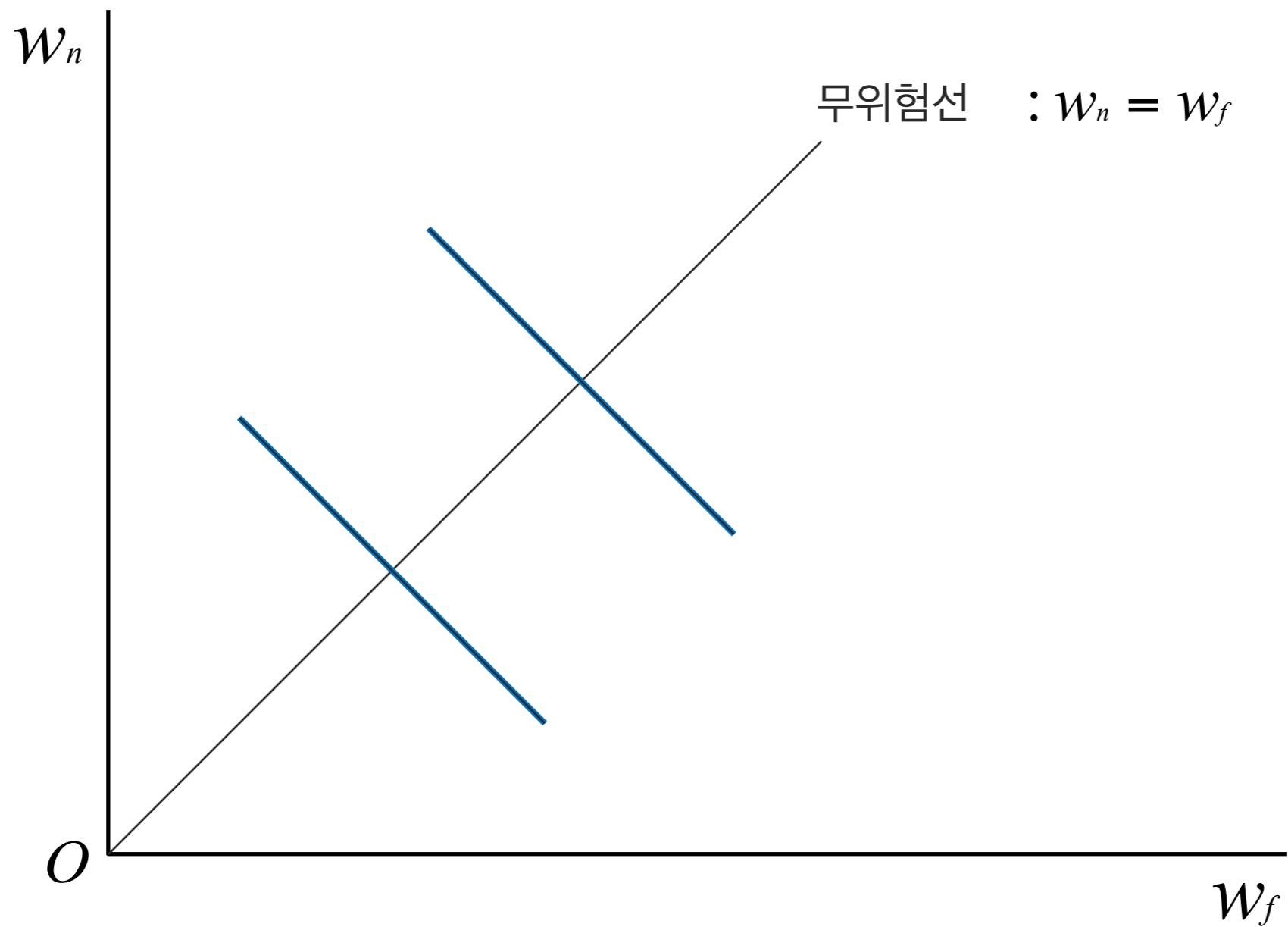
$\mathcal{W}_f$

(c) 위험 중립적 소비자



(c) 위험 중립적 소비자





(c) 위험 중립적 소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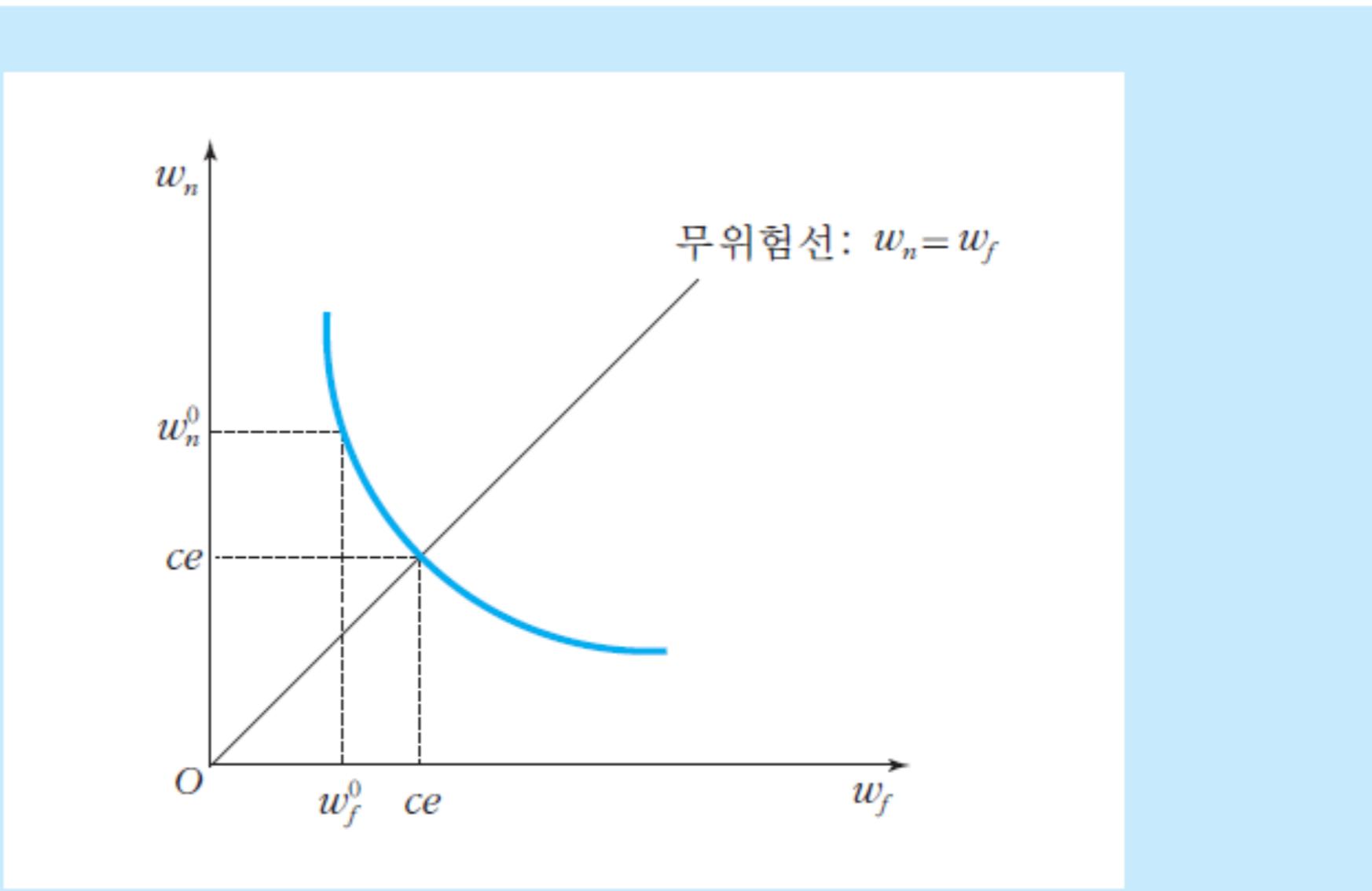


그림 9-10 확실성 등가

# Next Topics

- 생산자이론 1

# 수고하셨습니다



# 수고하셨습니다

